

심산 스님(홍법사 주지)
조상 덕 의지 말고
나와 남 위한 기도를
8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2월 28일) · 주간

제1040호 2015년 4월 16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전통산사 세계 유산 등재 가치 논한다

〈유네스코〉

추진위 4월 24일 국제 세미나… 등재 추진 사업 본격화

등재 해외 전문가 참여
종교 유산 가치 조명해
향후 국내외 세미나 예정
"등재 당위성 높일 것"

한국 전통산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추진위)는 4월 24일 공주 마곡사에서 '종교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한국의 전통산사는 속리산 법주사, 태화산 마곡사, 조계산 선암사, 두륜산 대흥사, 천등산 봉전사, 봉황산 부석사, 영축산 통도사 등 7개 사찰이며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조계종은 지난해 8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각 지자체들이 참여하는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기도 했다. 이번 사업은 추진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처음 있는 국제학술대회다.

구오짠 이코모스중국위원회 부위원장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종교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개관' 주제 발제에 이어 부리타 루돌프 브란덴부르그 기술대 교수가 '세계유산적 가치의 측면에서 어떻게 종교유산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기독교, 유대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 등 각 종교별 유산의 가치와 현황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한국불교와 관련해서는 이상해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한국 전통산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주제로 발제한다.

한국의 전통산사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과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열리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는 세계유산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며, 학술대회 이후에는 등재 대상 사찰인 법주사와 마곡사 일원에 대한 답사가 진행된다.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추진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799개이며 그중 34개의 유산이 불교문화재"라면서 "대부분 남아시아 및 동아시아에 집중 분포돼 있다. 아시아 불교 유적의 보편적 가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전통산사'의 등재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진위는 이번 국제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등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9~10월 경에는 '불교유산의 세계문화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세계 불교유산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 학술대회를 한차례 더 개최한다.

이와 함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7개 사찰의 현황 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기존 정부 · 지자체 조사들이 단순한 실측 현황 파악에 주안점을 뒀다면 추진위의 조사는 유 · 무형 자산들의 관리 현황을 비롯해 주변 식생 · 환경 · 생태까지 포괄한 조사로 이뤄진다.

김미경 추진위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전통산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산사가 가지는 가치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보유하며 부합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현재 7개 사찰의 유 · 무형 자산을 파악하는 기초자료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고서에는 7개 사찰의 보존가치와 관리현황, 주변 환경 및 사찰 의례 등 유무형의 문화 가치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자료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을 비롯해 11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영산재'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불조직지심체요절 하권'과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은 세계기록유산목록에 등재돼 있다.

추진위는 오는 2017년까지 등재를 위한 연구와 조사, 국내외 학술회의를 열고 유네스코의 현지 실사를 거친 후 2018년 세계 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연등회 알리기, 우리에게 맡기세요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전세계 40개국에서 온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연등회 보존위원회(위원장 자승)와 참이엔씨(대표 하영태)는 4월 8일 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2015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 출범식을 가졌다. 150명의 서포터즈들은 앞으로 2개월간 글로벌 홍보와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위해 템플스테이를 시작으로 역사, 문화, 교육 등을 이수하게 되며 전세계인들에게 연등회를 알리는 홍보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맡게된다. 〈관련 기사 6면〉 **이나은 기자**

"감사의 합장을 생활화합시다"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세요

본지 · 수효사 '감사편지' 공모… 4월 25일까지 접수

부처님오신날 봉축 일환
대상 상금 100만원 수여

땅콩 회항, 갑질 논란 등 인성 부재의 시대. 이는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한 데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주위의 모든 인연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하는 공모전이 열려 눈길을 끈다.

현대불교신문사(대표 혜월)와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이사장 무구)은 공동으로 '감사 편지' 공모를 진행한다. 후원단체로는 불교여성개발원 · 동산반야회 · 공림공양회 · 여여원이 참여한다.

불기2559년(201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감사 편지' 공모는 부모, 스승, 이웃, 친지 등 주위 인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를 통해 '감사의 생활화'를 유도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감사편지 공모는 오는 4월 25일까지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접수를 받으며,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이내이다.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100만원의 상금과 상패, 부상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입선작에게도 주최 · 후원단체 대표자의 상패와 상금, 부상이 수여된다.

이에 대해 감사공모 공동추최단체인 현대불교신문사와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은 "한통의 감사 편지는 자기 치유와 더불어 가정과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다"면서 "'감사의 생활화'를 위한 이번 공모에 시민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접수 및 문의
우 편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E-MAIL | linus@hyunbul.com
전 화 | (02)2004-8200

조계종 신도품계 최고위 배출된다

포교원, 선혜품계자 357명 선정… 18일 품서식

교육화 · 전문화된 신도를 양성하기 위해 조계종 포교원에서 2010년부터 추진한 신도품계제도의 최고 단계인 선혜품계 품서식이 오는 4월 18일 오후 1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및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다.

포교원은 "2010년 종단신도조직화 기치 아래 신도품계제도를 시행한 결과 발심품계자(종단신도등록자) 25만명, 행도품계자(기본교육 이수자)4만명, 부동품계자(전문교육 및 재교육 이수자)3만명 이상이 배출돼 신도품계제도의 기본근간을 형성했다"며 "하지만 신도지도자급 품계인 선혜 품계는 여러 가지 여건 미비로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하다 지난 해 11월 신도법 개정으로 신도지도자교육 및 선혜품계 품서를 특례 시행함으로써 종단 신도 교육과 조직화 과제를 본격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 시행에 따라 선혜품계를 품서받는 대상은 총 357명이다. 품수자는 신도법 제20조 및 신도품계시행령 제9조의 특례조항에 의거, 종단발전에 공로가 크거나 각급교육 및 신행경력을 갈음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불자들이 선정됐다.

포교원은 "중앙차원에서 후보자를 선별했으며, 교구본사 전체가 이번 품서 시행에 공감한 주지스님들이 추천한 후보자를 심의해 지난 2일 포교원회의 의결로 품수대상자를 확정했다"며 "이를 계기로 하반기에는 신도지도자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위한 시범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며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혜품계자는 금색의 신도휘장을 받게 되며 종단 신도 지도인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한편 포교원은 선혜품계자를 대상으로 4월 18일 오후 2시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지도자교육 특례과정을 실시하고 4시부터 품서식을 개최한다. **이나은 기자**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고조

조계종 환경위, 본사 사회국장단 성명서 발표

조계종을 중심으로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는 4월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신불산 케이블카 건립 반대'의 입장을 피력했다. 같은 날 영축총림 통도사는 울산시청에서 울주군청까지 본 · 말사 사부대중이 함께 신불산 케이블카 건립 반대를 외치며 도보행진을 전개하기도 했다.

환경위원회는 '울산시와 울주군은 신불산 케이블카사업을 당장 중지하고 사과하라'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신불산은 자연공원(군립공원)과 낙동정맥 지역으로 영남알프스일원의 중요한 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며 "보호지역을 관리해야 할 해당 지자체에서 보호지역을 파괴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연공원과 낙동정맥을 파괴하는 사업 중단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입지타당성과 재정 평가 등 모든 자료 공개 △담당공무원들의 사후책임과 배상을 명문화하는 정책실명제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조계종 교구본사 사회국장단은 4월 9일 개최된 교구본사 사회국장회의에서 '신불산케이블카 설치반대 성명서' 발표를 결의했다.

사회국장단은 성명서에서 "최근 울산시는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 아래 생태가 우수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신불산 자연공원에 환경보존 및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사전검증 없이 케이블카설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일제가 민족정기 말살을 위해 신불산에 박아 두었던 철심을 뽑고 기념했던 울산시에서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수십 톤의 철제건물과 지주대 등을 세워 훼손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신성민 기자**

乙未年
金剛戒壇
보살계산림

천년의 향기가 숨쉬고 있는 영축총림 통도사는 개산조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봉안하시고 금강계단을 쌓아 戒를 설하신 戒律의 근본도량입니다. 을미년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세세생생의 불연으로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발원합니다.

동 참 금 5만원 (새마을금고 6269-09-005031-0 예금주 : 통도사)
차 량 안 내 부산 온천장 지하철 1번 출구 앞 - 오전 8시 ~ 9시
접수 및 문의 통도사 종무소 055) 382-7182 화엄전 055) 381-1288
팩스 055) 372-7010

입재 2015년 4월 23일 (음 3. 5) 목요일
회향 2015년 4월 25일 (음 3. 7) 토요일
장소 통도사 금강계단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원산 토명 합장

자승 스님, 종교평화 기금 4만 달러 전달

3월 레바논 방문 당시 지역현안 해결위한 약속 실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내전을 겪고 있는 레바논의 평화를 기원하는 기금을 전달했다.

자승 스님은 4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만수르 다우 레바논 남부 주지사에게 종교간 화합 · 평화 자비기금 4만 달러(약 4400만원)를 전달했다.

이번 자비기금 전달은 레바논 동명부대 격려 당시, 총무원장 스님이 불교계가 부르글리야 지역 현안 문제인 공동묘지 부지 매입을 위해 종단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뤄지게 됐다. 부르글리야 마을은 공동묘지가 없어 사유지에 오랜 기간 무단으로 시신을 매장했고, 이로 인해 지역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됐다.

전달식에서 자승 스님은 "레바논을 방문했을 때 현장에서 지원하겠다는 약속했다. 이번 전달을 계기로 지역 현안 문제인 공동묘지 부지와 관련한 갈등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만수르 다우 주지사는 "부르글리야 주민들을 대표해 감사드린다. 조계종의 지원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국과 레바논의 거리는 멀지만 동명부대 파병과 조계종의 지원 등으로 마음의 거리는 좁혀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만수르 다우 주지사, 하싼 드보크 레바논 티르시장, 동명부대 민사협조반장 남상환 중령 등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9일 만수르 다우 레바논 남부 주지사(사진 오른쪽서 두번째)에게 종교간 화합 · 평화 자비기금 4만 달러를 전달했다.

조계종 원로회의 종헌 개정안 인준 부결

미등록법인 권리제한 명확히… "종회서 재논의" 요구

원로회의 명칭 존치키로 결의

선학원 특별교구 지정 의견도

송담 스님과 면담 성사 안돼

지난 201차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통과된 종헌 개정안이 마지막 절차인 인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밀운)는 4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48차 회의를 열고 종헌 개정안 인준에 대해 논의하고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원로회의가 종헌 개정안 인준을 부결시킨 것은 지난 2012년 '종헌' 개정안 인준을 부결하고, 지난해 7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반려한데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원로회의는 종헌 개정안 9조 3항 등 세세한 항목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헌개정안은 △종정 자격조건 가운데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 △원로회의를 원로회로 변경 △미등록 법인에 대한 권리 제한 대상자와 내용을 종법으로 규정 △총림 방장의 중임 금지 △초심호계원장, 법규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 등을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로회의는 종헌 9조 3항의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권리제한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권리제한을 해야 한다"고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94조 4항의 '사설사암의 창건주의 권리는 종법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고 개정한 것을 '사자상승함을 인정한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했으며, '원로회의'를 '원로회'로 명칭을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존치키로 했다. 이후 원로회의는 인준을 부결하고 중앙종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기타사항에서는 선학원정상화를위한추진위원회 활동을 보고 받았다. 선학원정상화를위한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이 회의에 참석해 위원회 구성 취지와 활동 경과를 보고했다.

이에 대해 원로의원 스님들은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으며, 일부 스님들은 선학원의 특별교구 지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국대 사태에 대한 원로회의 차원의 문제 진단에 대한 주장도 있었으나 논의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는 5월 종정 진제 스님의 증명 아래 세계불교 지도자들과 함께 세계평화와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대회를 봉행한다. 간화선의 선근을 선양하기 위한 무차선대법회와 연등회가 조화롭게 배치되는 뜻 깊은 자리인 기원대회에 평소의 원력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종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모은다면 못할 일도, 어려운 일도 없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원로의원 스님의 지혜로움이 매우 소중하다. 종단 발전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 청안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원로회의가 지난해 탈종을 선언한 송담 스님(법보선원 이사장)과의 면담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는 보고도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은 경과를 보고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면담 건 때문에 원로스님 대여섯 분이 송담 스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갔으나 몸이 편찮아 다른 사찰로 가셨다고 해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며 "상좌 스님에게 다녀갔다고 전해달라고 한 상황 밖에 없다. 이후로 연락을 못 해봤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로회의에는 의장 밀운스님, 부의장 원명 · 명선스님을 비롯해 전체 의원 25명 가운데 19명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스님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접수한다

4월부터 월 2만원 범위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지현)는 승려복지제도 시행에 따라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 건강보험료 지원은 올해부터 종단이 시행하고 있는 승려복지 제도에 따른 것으로, 월 2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 가운데 교구와 사찰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스님으로, △주소지가 사찰로 등재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상 장기간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가 사찰인 경우에는 사찰에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구와 사찰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스님들의 경우 종단에서 지원한다. 종단 미등록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권리인 · 관리인의 도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각 분기 말까지이며, 우편이나 팩스(02-733-3603)등을 통해 이뤄진다. 신성민 기자

"종회 모니터링 사실에 근거해야"

종회사무처, 평가서에 유감 표명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처장 태효)가 201차 임시회에 대한 중앙종회 NGO모니터단(단장 김종규)의 결과보고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중앙종회 사무처는 4월 3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중앙종회 NGO모니터단이 3월 30일 언론에 발표한 결과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모니터단이 본회의장에 있었음에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평가를 하는 것은 모니터단 활동가의 선정에 있어 문제가 있다. 사전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회사무처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성급하게 평가서를 언론에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은 모니터단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인 비판과 평가에 대해서는 언제나 과감히 수용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모니터단의 운영이 향후 성숙해지고 전문성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종단·종무원 명예 실추, 법적 책임 묻겠다"

조계종 종무원조합, 6일 정봉주 前 의원 고소

바른불교모임 "논란에 사과"

전과 논란 김영국 대표 사의

조계종 종무원조합(위원장 정유탁)은 4월 6일 종로경찰서에 정봉주 前 의원을 모독죄로 고소했다. 또한 정 前 의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도 발표했다.

종무원 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실추된 종단과 종무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망언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정봉주를 6일 종로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했다. 나아가 종무원조합은 기타 법적대응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조계종이 아무 역할도 안했다'는 정 前 의원의 비판에 대해 종무원 조합은 "종단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지난해 4월 17일부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봉사단을 팽목항에 파견해 활동했고 종교단체로는 유일하게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조계종을 김정은 집단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형식의 '종북몰이'라고 성토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바른불교재가모임(대표 우희종)은 4월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창립 이후 벌어진 설화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변호사법 등 전과 논란이 불거진 김영국 공동 대표는 사의를 표했다.

바른불교재가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공동대표로 영입했던 김영국 연경정책연구소장이 자신에 대한 법보신문의 과거 전력 공표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고 이를 받아들이기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봉주 前 국회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정 前 의원의 일부 과한 표현에 대해 불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사과드린다"면서 "저희 모임의 정신과 취지는, 의식있는 불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일부 권력승들만을 제외하고는 결코 불온하거나 과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사, 어린이·청소년 포교 나선다

8일 종로경찰서와 청소년 위한 템플스테이 협약

청소년 자립 성장 도움줄 듯 18일 불교아동硏과 MOU도

서울 종로 조계사가 정부 · 전문 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나선다.

서울 조계사(주지 원명)와 종로경찰서(서장 윤명성)는 4월 8일 오전 11시 1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위기청소년들의 심신 안정을 돕기 위한 템플스테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조계사와 종로경찰서는 4월 8일 오전 11시 1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위기청소년들의 심신 안정을 돕기 위한 템플스테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조계사와 종로경찰서는 학교폭력 가 · 피해자 및 학교 밖 위기 청소년, 탈북자,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자립과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을 템플스테이에 담아낼 계획이다. 여기에는 종로경찰서의 담당 주무부서인 여성청소년과와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가 동참한다.

이 자리에서 윤명성 서장은 "경찰과 지역이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각종 범죄에 노출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계사는 매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로 진행하는 동자승 단기출가에도 교육적 전문 프로그램을 가미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연등회 마스코트 활동만이 아닌 전인적 교육의 장으로서도 동자승 단기출가 프로그램을 정착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사는 오는 4월 18일 동국대 불교아동교육연구소(소장 이수경)과 동자승 단기출가학교 '보리수 새싹학교'에 대한 상호협약(MOU)를 체결한다.

3년째 보리수 새싹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조계사와 동국대 불교아동교육연구소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동자승 단기출가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평가 등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주요 사찰별로 운영 중인 동자승 단기출가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이고 교육적인 운영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조계사 보리수 새싹학교는 11일까지 동자승 어린이를 선착순으로 모집했으며, 부모면담과 조기적응교육을 마친 후 5월 11일 삭발수계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신성민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1.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2. 학교소개
▶ 세계최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5년 5월 15일까지 수시전형

5.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마주협 위기… 입지 좁아지는 불교 NGO

불교계 대표 이주민 지원 협의체인 마하 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상임대표 진오, 이하 마주협)가 운영난에 처한 가운데 불교계 NGO 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마주협은 4월 7일 2015년 정기총회를 열고 운영계획 등을 논의한 데 이어 10일 조계종 총무원 측과의 협의에 들어갔다. 올해 마주협은 조계종이 그동안 지원해 온 사무국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며 존립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2006년 불교계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의 정보공유 및 친목도모를 위해 만들어진 마주협은 15개 지원단체가 소속돼있다. 마주협은 그동안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사업비 4000만원과 사무국 운영비 3000만원 등 총 7000여 만원을 지원받아왔다. 다문화사회가 도래하며 불교국가 출신 이주민에 대한 활동이 중요시되면서 부터다. 하지만 사무국 운영비에 대한 지원근거 미비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며 운영비 부분이 삭감됐다. 현재 마주협은 상근직원 2명 중 1명이 사표를 낸 상황이며 지난해 11월 부임한 김영선 사무국장이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지난해까지 종단 내 이주민위원회 형식으로 마주협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이 또한 종헌이나 종법에 위원회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없어 무산됐다"며 "지역의 회원 단체들은 다문화가정 지원 등으로 사무국 운영을 지원할 상황이 아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조계종 지원 예산 삭감에 운영난
1명이 업무 맡아… 타개책 고민
불교 시민사회단체 재정 어려움
재가연대 단기부채 4천만원 달해
환경연대 사찰 내 활동에 집중
전문가 "불자 사회인식 변화해야"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관계자는 "마주협 운영위 회의서 계획을 내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사업비 지원 예산 중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단체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운영비나 사업비를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주협의 위기에서 전문가들은 불교 NGO의 자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마주협 뿐만 아니라 NGO들은 사실상 운영 위기에 처해있다. 사회적으로 NGO활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며 회비를 내는 회원이 감소하는 등 조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4월 4일 7기 집행부가 발족한 참여불교재가연대의 경우 한때 1600여명의 회원이 270여 명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운영비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단기부채가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영난으로 사무실 일부를 매각했으며 신임 집행부는 취임에서 부채해결을 위해 대표단에서 일정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한 NGO단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불과 몇 년전만해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NGO들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김두한 불교환경연대 사무국장은 "예전에는 환경문제 등 사회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지만 지금은 숲체험을 비롯해 사찰 내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며 "회원이 감소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 비전과 운영계획을 통해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지난해 열린 참여불교재가연대 15주년 심포지엄에서 "사회적으로도 NGO의 위기가 지적되고 있다. 불교계 NGO활동이 위축되면 그동안 불교계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받아 온 사회적 역할 수행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적극 모색해야 할 조계종은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지원만 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종단 내 환경위와 노동위 등의 조직과 기존의 유관단체들과의 장기적인 비전과 운영계획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NGO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은 복지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관심이 부족하다. 사실 불교가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행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해당 NGO가 활성화 된다"며 "불교가 세속을 떠나있다는 불자들의 인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교육 등을 통해 불자 전반의 발상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정부의 비정규직 확산 정책 중단해야"

조계종 노동위 등 3대 종교 한목소리… 노동인식 개선 지적

"정부가 취업난 해결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고용 유연성은 비정규직 양산에 의한 노동구조 악화만을 초래할 것이다."

불교와 가톨릭, 개신교 등 3대 종교인들이 한데 모여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계종 노동위 · 천주교서울교구 노동사목위 · 한국기독교회협의회인권센터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4월 7일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확산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비정규직 확산으로 인한 고통을 막는 종교계역할' 발제를 맡은 정수용 신부는 "국가는 간접 고용한 고용주로 불평등한 노동구조를 개선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가 비정규직 문제에서 올바른 방향을 잡는데 종교가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신부는 이어 "노동의 가치와 노조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이루기 위해 종교계가 앞장서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양한웅 조계종 노동위 집행위원장은 종교계 내부의 노동인식부터 바꿀 것을 주문했다. 양 집행위원장은 "종교에는 전통적으로 봉사 개념이 있어 노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불교만 해도 총무원 외 개별사찰에는 사회에서의 비정규직들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양 집행위원장은 "조계종의 경우 노동위 활동을 통해 노동에 대한 개념을 자리잡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찰과 교회 안의 비정규직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공동행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불교계를 대표해 조계종 노동위원 도철 스님은 "노동문제에 대해 3대 종교 중 불교계는 그동안 적극적이지 못했다"며 "이번 활동이 아직 낯설지만 꾸준한 활동을 통해 국민인식 개선과 사회적 약자 보듬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노동위원회와 3대 종교단체는 4월 7일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비정규직 양산 정책을 비판했다.

"비구니 분열행위 당장 중지해라"

비구니회 9일 입장문 발표

전국비구니회가 지난 3월 16일 열린 전국비구니회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와 관련해 "비구니 승가의 분열을 초래하는 일체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뒤늦게 발표했다.

전국비구니회는 4월 9일 '제방의 비구니 스님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비구니 승가의 불신과 반목을 부추기지 말 것 △종법과 회칙과 관례를 무시하는 선전 · 선동 행위 엄정 대처 등의 방침을 밝혔다.

전국비구니회는 "회장 스님의 불신임 등을 열거하고 있는 사항은 회칙을 위배하는 행위이며 이는 비구니 승가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일 뿐"이라며 "선배 비구니 스님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전국비구니회를 흔드는 어떠한 내외부의 행위를 일체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전국비구니회는 "3월 16일 결의대회는 법적 효력이 없는 위법 행위"라면서 "위법 행동은 사법적 기준에 의거하여 민 ·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각 행위를 중지하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韓 불교, 미얀마 오지에 전력 발전소 건립

하얀코끼리, 나가 지구 방문
발전소 등 협력 사업 협의

발전소 기술 자문 진행
이상적 공공협력 '새 장'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국제협력 사업을 펼쳐온 불교계 국제 구호NGO 하얀코끼리(이사장 영담)이 미얀마 오지 마을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 사업을 진행한다.

하얀코끼리 이사장 영담 스님은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6박 7일간 미얀마 산간 오지인 나가족 자치관리 지역을 방문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논의했다.

인도-미얀마 접경지역 사가잉 주에 위치한 나가족 자치관리지구는 나가 민족이 살고 있는 산간 오지로 도로와 전기 등 사회기반시설이 거의 전무하며 오랜 동안 내전으로 인해 원주민의 삶은 피폐화돼 있다.

영담 스님의 이번 나가 지역 방문은 미얀마의 왕사이자 시타구재단의 이사장인 야니따라 큰스님과 미얀마 정부 관계자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또한 나가 지역에 한국 국제개발협력NGO가 들어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하얀코끼리 이사장 영담 스님은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6박 7일간 미얀마 산간 오지인 나가족 자치관리 지역을 방문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논의했다.

미얀마 정부 관계자들은 영담 스님과 현장을 동행하면서 지역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특히 중소형 발전소 건립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영담 스님은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지역의 발전과 원주민들의 열악한 삶을 개선하는데 선차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향후 중소형 발전소 건립 지원을 약속했다.

영담 스님은 4월 9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소형 발전기과 기반시설, 인프라 확보 등 발전소 1기당 약 5억 원 안팎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본다. 시범적으로 1기를 설치하고 추가 건립을 검토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병원과 학교 건립 문제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문에는 발전소와 기반 시설 전문가들이 함께 동행해 설비를 살폈다"면서 "이는 미얀마 정부의 철저한 협조 속에 이뤄졌다. 민간개발협력의 차원을 넘어 양국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공공외교로서의 성과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하얀코끼리는 국내 독지가들의 지원을 통해 모은 약 1억5천만원 상당의 의류를 이 지역 주민들에게 기증하는 등 다양한 구호 활동을 진행했다. 신성민 기자

'갈등' 동국대 총동창회 통합 합의

4월 9일 양측 소송 취하
원로교수들 前 총장 비판

2014년 3월 양분된 동국대 총동창회가 1년 만에 하나로 합쳐졌다. 원용선 동국대 총동창회 회장과 박종윤 회장은 4월 9일 서울 백상빌딩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통합을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라 양측은 소송을 취하하며 총동창회 회칙 및 선거 규칙에 따라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종윤 회장 측이 분열시 반출한 통장 및 직인 등을 원용선 회장 측에 인계하기로 했다.

동국대 총동창회는 "이번 합의에는 대승적으로 통합에 나서 준 박종윤 회장을 예우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며 "더 이상 갈등으로 동문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동문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용선 · 박종윤 회장 양측으로 갈라진 동국대 총동창회는 4월 9일 통합에 합의했다.

한편, 동국대 신재호 · 양영진 · 오원배 교수는 4월 7일 김희옥 前 총장에게 서한을 보내고 "재임기간 동국대 부채가 눈덩이 처럼 불어났으며, 동문기업인 KCC와 규정을 어겨가며 수백억원대 수의계약을 한 것, 예일대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7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은 점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일 주 문



'진정한 행복' 국제선센터 특강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수불 스님은 4월 21일 국제선센터 법당에서 '진정한 행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조계사 제주도 특별성지순례

서울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4월 28~30일 제주 관음사, 송악산, 산방굴사, 천왕사 등을 순례하는 특별성지순례를 진행한다. (02)768-8520



마곡사 관세음보살 이운법회

공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5월 3~5일 산신기도와 함께 대웅보전의 관세음보살을 연화당으로 이운하는 법회를 봉행한다. (041)841-6220



'내포문화숲길' 걷기 대회

내포문화숲길 이사장 지운 스님은 4월 4일 내포문화숲길 주말 걷기대회를 열고, 백제부흥군길 20코스를 답사했다.



열린선원, 타다유키 초청공연

서울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은 4월 12일 열린선원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정진과 타다유키(일본인 교사가수) 초청공연을 개최했다.



증심사 불교교리강좌 개설

광주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은 4월 9일 '종교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알기 쉬운 불교교리강좌를 개최했다. (062)226-0108



구미 수행회 1주년 기념 법회

일산 덕양선원 주지 법상 스님은 4월 20일 구미 거사림 회관과 금오정사에서 구미 수행회 1주년을 기념하는 '1주년 기념 대비주 수행법회'를 개최한다.



혜민 스님 마음치유 콘서트

혜민 스님은 4월 21일 충남 아산시 평생학습관 주최로 아산시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마음치유 콘서트를 진행한다.



4월 화요 열린강좌

대한불교진흥원 김규칠 이사장은 4월 21일 마포 다보빌딩 다보원서 유정민 전문통번역사 초청 '동물, 권리를 말하다'를 주제로 화요열린강좌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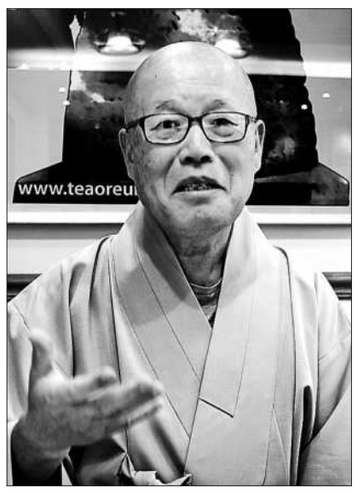


동국대 병원 개원 기념 슬로건 발표

동국대 일산병원 채석래 병원장은 4월 9일 '10년의 열정, 100년의 희망' 슬로건을 발표했다.

"교육 복지 문화 포교에 진력할 터"

개산 40주년 맞은 하와이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



4월 17~18일, 개산 40주년 '길' 공연
요양원준공 10월 24일, 창건 법회 25일
싯다르타 칼리지 내년부터 운영 계획

"올해는 하와이 포교의 거점 역할을 한 무량사가 문을 연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음악회, 선서화전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한달 동안 펼쳐질 것입니다. 올해에는 요양원, 불교대학 등도 잇달아 개원해 앞으로 현지인들을 위한 교육 및 복지 불사도 꾸준히 펼쳐나갈 것입니다."

하와이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사진〉은 미국 특히 하와이 포교의 대부로 불린다. 1996년 2대 주지로 취임한 도현 스님은 20년 동안 교민은 물론 현지인 포교에 진력하며 무량사를 명실공히 하와이 포교의 전진기지로 성장시켰다. 특히 어려운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며 각종 불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점은 현지 주민들 사이에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도현 스님은 현지인들을 위한 외국인 법회도 15년 동안 꾸준히 열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선과 명상에 관련된 법회를 엽니다. 그동안 입소문을 타고 알려져 총 회원만도 800여명이 되며, 토요 법회에 1백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활성화 돼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도현 스님은 한국인 2~3세를 위한 교민 포교도 꾸준히 하고 있다. 일요법회에서는 한글학교를 운영중이며, 다도교실도 열고 있다. 또한 중고생 중심인 보현무용단도 만들어 국악 교실도 진행하는데 교민들 사이에서 호응도가 높다.

"몸 속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데 우리 불교문화 특히 전통문화를 모른다면 어찌 한국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통문화를 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월 17~18일까지 양일간 하와이 무량사 공연장과 시내 MCCOY PAVILION(맥코이 바릴리온)서 열리는 개산 40년 기념 '길' 국악공연도 이런 차원에서 마련했다.

이번 공연은 평택 출신으로 하와이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국악교육의 큰 틀을 세운 故 지영희 선생의 후계자 30여명이 참가해 관현악 사물놀이 가야금병창 등의 공연을 통해 스승의 넋을 기리는 의미로 펼쳐진다. 또한 평택시는 故 지영희 선생을 매개로 호놀룰루시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미군이 많이 주둔하는 호놀룰루시와 한국의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시는 자매결연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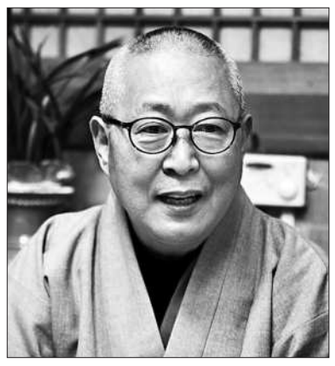
도현 스님은 "미국서 우리 민속공연이 춤으로 획일화 돼 있는데 국악 관현악과 소리 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앞으로 어린이 청소년 국악관현악단도 결성해 현재 운영중인 보현무용단과 함께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문화포교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무량사는 안길상 화백 초청 '부처님 묵향으로 만나네' 서화전도 4월 18일 오후 5시 개막해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 또한 10월 24일에는 무량사 팔롤로 한인요양원 준공식을, 다음날인 25일에는 창건 40년 기념법회를 연다.

"팔롤로 코리안 케어홈은 1백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고급요양원입니다. 4층 규모로 지어지는데 주간노인보호센터도 운영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하와이 싯다르타 칼리지도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하와이대와 사학협정을 맺어 놓은 상태입니다."

김주일 기자

"위안부 할머니 왕생 발원 불교의 소명"

5월 독도서 영산재 봉행하는 태고종 봉원사 주지 선암 스님



내년 백령도, 제주도, 해외 등서 잇달아 영산재 펼칠 예정

"올해는 광복 70년 · 분단 70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순국한 호국영령 및 전몰 군 · 경과 함께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영산재를 봉행해 넋을 위로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불교가 해야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고종 봉원사 주지 선암 스님〈사진〉은 영산재보존회가 5월 13~15일까지 2박 3일간 독도서 호국 영령과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영산재를 봉행한다고 4월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선암 스님은 "이번 행사를 특히 독도에서 진행하는 것은 일본의 독도 망언을 규탄하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며 아울러 세계평화 기원과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발원하자는 여러 가지의 취지가 담겨 있다"며 "약 40여명의 영산재보존회 스님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고종이 독도서 영산재를 봉행하는 것은 2007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어 선암 스님은 "이번 독도 영산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백령도와 제주도서 영산재를 봉행하고, 6 · 25 참전비가 있는 해외에서도 잇달아 개최할 것"이라며 "특히 한국 불교 최대 공연예술인 영산재를 봉행함으로써 분단 70년의 아픔을 씻고, 광복 70년의 민족화합과 국운융성을 기원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197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로 등록된 영산재는 한국의 전통 종교인 불교와 한민족 고유의 정서가 어우러져 수백 년째 전승 되어오는 국내 최대 불교전통문화 공연으로 자리하고 있다.

한편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영산재는 부처님께서 영산서 행한 설법인 영산회상(靈山會相)을 오늘에 재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다. 또한 영산재는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번뇌와 괴로움서 벗어나는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의식이기도 하다.

김주일 기자

봉은사, 금강경 독송대정진 펼쳐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는 4월 3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금강경 3년 대정진 두 번째 기도 정진을 진행했다. 이날 기도정진에는 신도 1200명이 동참했다. 주지 원학 스님은 "금강경의 가르침은 생활 속 실천"이라며 정진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세월호 인양 촉구 2차 오체투지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는 4월 9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광화문 세월호 광장까지 세월호 인양 촉구 2차 오체투지를 개최했다.

3월 26일 1차 오체투지에 이은 2차 오체투지는 실종자 아홉 명의 수습과 진실 규명을 위한 조속한 세월호 인양 결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익명기부 약속 지킨 한 노스님

지난해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찾아 2억원을 기부하며 조용한 자비를 몸소 실천하셨던 익명의 노스님이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다시 1억원을 기부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는 "익명의 노스님이 지난해 6월 2억원을 기부한 데 이어 또 다시 1억원을 기부했다"고 4월 7일 밝혔다.

이번에도 한사코 본인을 밝히길 꺼린 스님은 "입에서 한번 나온 말은 무슨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며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다시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만간 다시 학교를 방문해 열심히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자장면을 제공하고 싶다"는 또 다른 약속을 남기고 학교를 떠났다.

한편,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기부금을 스님의 뜻에 따라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금과 동국대 경주캠퍼스 건학이념 실현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제1기 불교의식 법음 범패 학인 모집

각단 불공의식 단기속성 3개월 과정

– 교육과정 –

기본의식(3개월단기)
도량석, 종송, 향수하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중급과정(법음, 범패)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39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화청

작법 : 천수바라, 도량게, 사다라니작법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강주스님 : 일관

보경사 불교대학에서는 초심자라도 불교정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불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1부, 반명함 사진 ····· 3매
→ **개강일시** : 2015년 **5월 7일**(목)
→ **수 업**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5시
→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3번지
→ **신청문의** : (054) 262-1117(보경사 종무소)

※ 숙식 제공 가능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설법전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8:3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조이 앙상블 합창단 아이들이 통일염원 콘서트 첫 순서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을 부르고 있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시민 300여 명이 참여해 통일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콘서트에서는 합창과 난타, 이희아 씨의 피아노 연주, 레이저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 노래 합시다"



이희아 피아니스트는 연주 중간 중간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난타공연과 함께 통일퍼포먼스로 레이저쇼가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이날 공연자들과 함께 호흡했다.

평화재단 4월 9일 통일염원 콘서트… 잔잔한 감동 선사해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이 4월 8일 개최한 '광복70년 기념 통일염원 콘서트' 는 통일을 염원하는 한민족의 다양한 면모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조이 앙상블 어린이 합창단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 합창부터 시작해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의 '아리랑 변주곡' , 극단 청명의 '통일 레이저 퍼포먼스' , 통일의병 합창단의 학수고대 공연까지 통일을 생각하는 사회 각층을 대변하는 이들이 한데 어루어져 마치 통일이 막 이뤄질 것만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냈다.

'광복 70년 기념 통일염원 콘서트' 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 통일을 위해 국민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또 실천에 나서자는 의지를 모으기 위한 자리였다.

"저처럼 몸이 불편한 이도 계속 노력해서 피아노를 치잖아요. 통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포기 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에는 이룰 수 있습니다."

이날 관객들의 환호 속에 캐논변주곡에서부터 아리랑변주곡까지 많은 곡을 연주한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손가락이 양손에 2개 밖에 없고 다리도 짧은 기형아로 태어났음에도 이를 극복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날 연주 후 이 씨는 대중들에게 피아노 외에도 자신이 하고 있는 통일운동을 소개해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북한아동돕기와 관련 서적 편찬 등을 해온 이희아 씨는 최근 불편한 몸에도 통일부 홍보대사 역할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는 피아노 연주를 할 때마다 태극기를 그린다는 마음으로 합니다. 나라를 지킨 독립운동가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반드시 통일을 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뒤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힘들다고 생각할 때 작은 실천하나가 긴 시간이 지나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통일에 대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서주시길 바래요."

대중들과 함께 아리랑을 부른 이 씨는 요즘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필요성을 많이 못느끼는 것 같아 더욱 안타깝다며 이날 모인 아이들부터 조금씩 통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줄 것을 당부했다.

네 손가락 이희아 씨 아리랑 열창
재능기부로 공연 채워져 의미
참석자 "아이들에게 통일 알리자"

2급 장애인으로 이날 콘서트 장을 찾은 김혜숙 씨는 "장애의 몸으로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며 "주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차츰 해나가겠다" 고 말했다.

이 씨의 연주에 이어 등장한 극단 청명의 단원들은 레이저 쇼로 통일의 미래를 그려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넓은 극장이 어둠 속에 빠지고, 천장을 비롯한 큰 천 위에 한줄기 빛이 밝혀졌다. 청명 단원들은 레이저로 분단의 벽을 허무는 것을 상징하는 춤을 추고, 이러한 퍼포먼스가 펼쳐지는 동안 사람들은 탄성과 함께 큰 박수를 보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청명 단원들은 힙합 Bboy의 댄스와 함께 신명나는 난타 공연을 펼쳐 콘서트장을 찾은 이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다.

1부 공연 후 사회를 맡은 이미란 씨는 "독일의 한 철학자는 민족이 완전히 갈라지는데 100년의 세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분단 70년이기에 민족이 동질성을 잃어버리기 까지 불과 30년 밖에 남아있지 않다" 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통일에 대한 것을 한번씩이라도 말할 수 있는 시민들이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마지막 공연으로 소년소녀합창단과 통일의병합창단 등의 연합합창이 진행됐다. '홀로 아리랑' 을 개사한 '함께 아리랑' 이 불려지는 동안 눈물을 흘리는 관객들도 보였다.

지휘자를 맡은 서울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임창배 교수를 비롯한 합창단원들은 이날 재능기부로 자리를 빛내 의미를 더했다.

임 교수는 "1945년 광복의 그날, 70년 전 한 목소리로 외치던 '대한민국 만세' 함성과 기쁨을 기억해야 한다. 분단의 아픔을 넘어 통일의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많은 이들이 공감했으면 한다" 고 말했다.

김채송화 씨는 "아이들과 함께 왔는데 아이들이 통일 노래를 처음 들어본다고 한다. '우리 세대에 통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며 "다시 한번 통일에 대해 생각해볼 때" 라고 말했다.

행사 후 조성식 평화리더쉽 아카데미 총동문회장은 "그동안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통곡의 울음과 한 맺힌 넋두리로 이어온 세월이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자리를 지속해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통일에 한민족 미래 달려있다"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는 통일 밖에 없습니다. 이런 통일에 대한 분명한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통일 기원 콘서트를 개최한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은 평소 통일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한국의 미래가 없다는 지론 하에 전국을 다니며 통일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스님은 "먼저 시민들이 각성해야 한다" 며 "이런 각성이 통일의 큰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위에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스님은 "먼 미래 한반도의 주변국들이 점차 강대국이 될수록 통일의 길은 요원할 것" 이라고 진단하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담아 새로운 100년을 설계해야 한다. 진정한 통일 시대를 여는 지도자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대적 과제" 라고 말했다.

밍마린포체(생불)
마정수기 수계 대법회

오늘 불자님들께서 수계를 받음으로서 불자임을 증명 하였습니다. 계행은 만행의 공덕으로서 삼계, 사생, 육도 중생들의 선구자가 되고 마침내는 불생불멸의 큰 깨달음을 증득하는 근본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고자 하거든 꽃의 뿌리를 보호하고, 풍요로운 곡식을 얻으려고 하거든 병충해를 방지 해야 하며, 얼굴이 예뻐지려면 마음을 아름답게 쓰고, 병을 없애려거든 남을 미워하지 말며, 존경받고 사랑 받으려거든 윤리 도덕을 지킬 것이며, 생사의 고리를 끊고 해탈의 자유를 얻으려거든 계율을 잘 지키라 하였습니다. 하물며 계율은 제불보살의 어머니요, 팔만사천 공덕의 근본이며 삼라만상의 우주법계와 삼계 유정무정 일체 중생이 받들어 행하는 근본이므로 어느 누구든 계율을 받되 행하지 아니 하더라도 천신이 옹호 하는데 만약 수계를 받아 단 하나의 계율을 단 한번이라도 지키면 그는 마침내 부처가 될 종자를 발아시킨 것이요, 오계를 신수봉행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신보다 위대하고, 자연보다 거룩한 자이니 우리 수계자는 밖으로는 다생부모와 제대 불보살님과 선구자님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안으로는 나의 위치와 나의 사명을 다하는 불생불멸의 선구자임을 자각하여야 합니다.



부산자비선원 진성 큰스님

한번의 화를 내면 그 독이 팔만사천 지옥고를 이루고, 한번 환희심을 내면 팔면사천 연화대를 이룬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든 계를 받고 돌아서서 파괴를 하더라도 계를 받은 계를 받은 공덕으로 영겁의 습기가 소멸된다 하였으니 일생을 지킨다면 그 공덕은 유희의 쇠사슬을 끊고 깨달음의 큰 인연이 될 것입니다. 수계자님들은 악한 일을 하지 말며, 착한 일은 서로도와 나만이 계를 받아 지니는 좋은 인연에 만족하지 말고, 각각 자기의 일가친척 친구 인연 있는 이웃들에게 권하여 수계를 받게 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명복의 복전을 닦아주는 지름길 입니다.

또한, 일가친척 친구와 자녀는 물론, 후손들의 수계를 대신 받아주는 공덕은 해탈의 종자를 얻는다고 하였고, 수계식을 받는 불자는 성불의 인연이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수계식이 있을 때마다 멀고 가까움을 가리지 말고, 거듭 수계 받아 성불하시길 기원하며 이차인연 공덕으로 법계 일체중생의 성불과 불자님들의 심신의 무궁한 행복을 기원합니다. 관세음보살 !!!

부산자비선원 진성 합장

일 시 : 2015년 4월 18일 (토) 오후 2시
장 소 : 부산자비선원 (부산 남구 문현동 908-1) ☎ 051)633-8445

■ 동참하신 분에 한해서 밍마린포체 (생불) 부처님께서 직접 ▶ 수계첩 ▶ 금강경 도장 ▶ 팔상도 스카프 증정합니다.



2015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 출범

4월 8일 역사문화기념관서 오리엔테이션



연등회 보존위원회(위원장 자승)는 참 이엔씨(대표 하영태)와 4월 8일 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2015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 출범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연등회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홍보와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한다.

연등회 · 연등축제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홍보 등의 자원봉사를 진행할 글로벌 서포터즈가 출범했다.

연등회 보존위원회(위원장 자승)는 참 이엔씨(대표 하영태)와 4월 8일 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2015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 출범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연등회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홍보와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한다.

40개국 150명 청년 참가

2개월간 한국전통문화교육

연등회 기간 통역 자원봉사

SNS에 연등회 알리기 활동도

이번 글로벌 서포터즈는 지난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해 하여 300여명이 지원하여 평균2: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거쳐 최종적으로 40개국에서 온 청년 150명을 선발했다.

이번 지원자들은 피부색만큼이나 국적도 다양하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에콰도르와 같은 북남미권과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러시아 등의 유럽 권, 중국, 아제르바이젠, 카자흐스탄, 말레시아, 인도,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권, 가나, 남아공 등의 아프리카까지 모든 대륙을 아우르는 40개국에서 75명의 청년들과 한국인 청년 75명으로 구성됐다.

서류심사와 면접과정을 통해 선발된 서포터즈들은 1박 2일 진관사 템플스테이 체험을 시작으로 한국의 전통 문화의 특징과 이해 무형문화재 연등회 유래, 자원봉사자의 역할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앞으로 2개월간 연등회 서포터즈는 축제에 참가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통역과 안내를 맡게 된다. 아울러 연등회 진행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수행 하면서 축제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서포터즈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일일 어르신 배식 자원봉사를 비롯해 광화문 점등식때는 플래시 몹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포터즈는 이번 활동부터 실시간 홍보도 병행한다. 교육과정과 활동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리는 'SNS 일지 작성' 과 함께 팀 활동 동영상을 만들어 유투브에 올릴 예정이다. 또한 후기 콘테스트 등을 진행해 세계인에게 연등회를 알리는 홍보 봉사자 역할도 진행할 계획이다.

서포터즈 지원자 카트린 벅스트럽(25 · 독일)은 "실내 건축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데 한국전통 디자인 전시를 보고 감명받아서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나라 중 한국을 선택했다"며 "연등회 서포터즈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에 참여하게 돼 영광이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같다"고 말했다.

참 이엔씨는 "연등회는 앞으로도 글로벌 서포터즈와 같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많은 외국인들이 연등회를 친근하게 접하고 즐겨서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로서의 성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외국인 참여 형 프로그램을 발굴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SNS는 또다른 법당… 수행일지 등 소통

불교 소모임, 새로운 신행 트렌드로 부상

김용진(42 · 남) 씨는 매일 저녁 108배를 한다. 이후 친구의 초대로 가입한 네이버 밴드(BAND) 모임인 '끝까지 간다 기도방'에 수행 일지를 올려 108배를 하면서 느낀 점과 삶에서 변화된 점 등을 공유한다. 평소 불교 · 명상에 관심이 있었지만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지 몰랐던 김씨는 간편한 소셜네트워킹 모임을 통해 매일 삶을 바로 잡는 습관을 기르게 됐다.

박원화(26 · 여)씨는 매월 'YB선우' 회원들과 정기 모임을 갖는다. 서울 관악구 성불암에 모여 지도법사 법찬 스님의 법문도 듣고, 수련회와 성지순례 등 다양한 행사도 갖는다. 또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서로 수다도 떨고 불교 이야기도 나누면서 '우리는 불자'라는 공동체 의식과 신심을 키우고 있다.

청년불자들의 신행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사찰 정기법회나 행사에 참석해 법문을 듣고 기도를 하는 일반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서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그들만의 신행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임들은 불교에 관심은 많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불교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김용진 씨는 독실한 불자 집안에서 자랐지만 개인적인 신행활동은 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최근 정토회 모임에 나가면서 친구의 초대로 '끝까지 간다 기도방' 에 가입해 꾸준한 수행을 실천하며 불교를 통한 새로운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김 씨는 "불교에 대한 관심과 호감만 있던 상황에서 비슷한 뜻을 갖고 밴드 모임을 통해 기도 하고 서로 점검하니 도반으로서 의지도 되고 힘이 난다"고 말했다.



30여 년 전 부산 법륜불교총학생회 활동을 하던 양진호 (43 · 남)씨는 최근 지인의 초대로 네이버 밴드 '법륜' 에 가입했다. 양진호 씨가 '법륜' 에 뜬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청년불자 신행패턴 변화 바람

법회, 봉사 등 모임 공지 SNS 활용

밴드, 채팅방서 수시로 불교주제 대화

자율적 신행 장점… 포교 대안 부상

김 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카카오톡 그룹채팅 '길벗 나누기 방' 을 통해 신행활동을 한다는 정여진(40 · 여) 씨는 "혼자서 일지를 쓰며 수행을 해왔는데, 마음 맞는 친구들과 그룹채팅으로 점검하고 이야기를 나누니 공동체 의식도 생기고 기도에 소홀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YB선우' 는 서울 성불암 주지 법찬 스님이 이끄는 '나눔공동체 선우(禪友)' 에서 만든 20대 젊은이들의 모임이다. YB는 '영붓다(Young Buddha)' 의 약자로 대학생, 직장인, 배우지망생, 작곡가 등 15~20명의 20대 청년들로만 구성돼 있다.

YB선우 회장을 맡고 있는 한승윤(29 · 남) 씨는 "지난 해 10월 '붓다' 공연 관람 후 서로 소개하는 자리에서 불자인 것을 알고 모임이 만들어졌다. 평소에는 사람들에게 굳이 불자라고 밝히지 않는데 같은 또래가 불자라고 하니 서로 너무 반가워서 모임을 만든 게 시초다. 이후 법찬 스님과의 인연으로 매월 정기모임을 갖고 친목을 다지고 있다. 향후 봉사단체도 만들어 좀 더 체계적으로 청년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잘 놀고 불교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끼리 그룹채팅방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친목을 다지니 소속감도 생기고 불자라는 자부심도 생긴다"고 말했다.

30여 년 전 부산 법륜불교총학생회 활동을 하던 양진호 (43 · 남)씨는 최근 지인의 초대로 네이버 밴드 '법륜' 에 가입했다. 30년 전 함께 학생회활동을 하던 1기 선배들부터 동기 및 10기 후배들까지 모여 있어 반갑고 감회가 새롭다. '법륜' 회원들은 밴드를 통해 서로 안부도 묻고 연 2회 가족 수련회 및 정기모임과 108배 결사 등을 함께 하며 신심을 키우고 있다.

양진호 씨는 "불교학생회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가 1980년대이다. 각자 사회생활을 하면서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이니 감회가 새롭다"며 "의료계 · 법조계 · 금융권 등 다양한 분야에 선배들이 진출 해 있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어 힘이 되기도 한다. 밴드 모임을 통해 그때의 추억도 나누고 불심도 다시 새길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이들의 모임은 전반적인 불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불자 또는 친불자를 불교로 이끌어냄으로써 포교에 활기를 불어넣는 새로운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포교전문가는 "시간 · 공간에 제약을 받아 신행활동을 하지 못하던 불자들, 또 최근 힐링 · 치유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인들이 SNS를 통해 자율적 신행모임을 갖는 것은 긍정적 현상"이라며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은 이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김해 바라밀선원 개원 2주년 장학금 전달

"5월 19일부터 매주 화요일 무료급식 실시"

김해 바라밀선원(주지 인해)은 4월 4일 개원 2주년을 맞이해 '기념법회 및 장학금 전달식' 을 거행했다.

행사에는 바라밀선원 조실이자, 조계종 고시위원장 요산 지안 스님을 비롯해 김맹곤 김해시장, 이명자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 등 사부대중 120여명이 참석했다.

바라밀선원은 "지난 해 개원 1주년을 계기로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작년 첫해에는 한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고, 올해는 2주년으로 두 명에게 전 달했다. 내년에는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또한 지난 해부터 지역 무의탁노인과 결식아동에게 지원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오는 5월 19일부터 매주 화요일 무료급식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055)327-2601



바라밀선원 조실 지안 스님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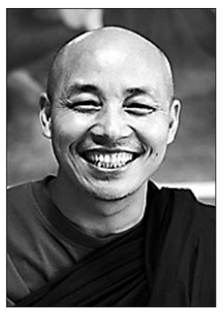
삼보정사, 빤딧짜 스님 특별법회 거행

4월 19일 11시 '붓다와 담마의 바른 이해' 주제

근본불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의 재가불교 신행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불교삼보회(이사장 박호석)가 오는 4월 19일 오전 11시에 서울 정릉의 삼보정사에서 미얀마의 아신 빤딧짜 스님〈사진〉을 초청해 '붓다와 담마의 바른 이해' 를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한다.

빤딧짜 스님은 미얀마의 싼마띠다 마하씨 선원장으로 주석하면서, 부산에도 담마야나 선원을 열어 양국의 불자들에게 20여년 동안 근본불교와 위빠사나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선지식이다.

특히 최근 한국어로 출간된 〈11일간의 특별한 수업〉과, 교계언론 〈미디어붓다〉의 컬럼 연재를 통해 한국불자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쾌하게 전하고 있다.



불법승 삼보를 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불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없다. (02)943-2858

이나은 기자

영 혼 의 세 계 (빙 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8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4월 中
◆ 개강일시 : 2015년 4월 中.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 개강일시 : 2015년 4월 中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 東 佛 教 儀 式 教 育 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심리적 어려움 복지관서 해결해요

불교계 복지관 상담 · 명상 프로그램 실시

지난 4월 4일은 '정신건강의 날' 이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4월 한 달 동안 정신질환 인식개선과 정신건강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자살과 관련해 자살 · 중독 예방을 위한 상담을 비롯해, 아동 ·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정보제공 및 정신가정의학과 의사와의 무료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불교계 복지기관들도 불교의 가치를 담은 정신적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상담 · 명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은 '명상프로그램' 을 특화시켜 지역주민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2012년 아름다운동행의 지원을 받아 '마인드톡' 프로그램을 시행한 복지관은 스마트폰과 게임중독에 빠져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도명상, 집단명상 등을 실시해 참가자들이 자기발견을 통한 집중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지난 해에는 RHM감정조율 명상프로그램을 통해 중년여성의 우울증을 예방하고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진행했다.

올해에도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이용자들의 호응에 따라 심리 · 요가 · 다도 · 노래명상 등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명상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옥수복지관은 지난 해 RHM감정조율 명상프로그램을 통해 중년여성의 우울증을 예방하고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진행했다.

옥수복지관…명상프로그램 특화
요가 · 다도 · 노래 명상 등 다각화
서울어르신상담센터…화해하기
분노조절 겪는 어르신 위해 실시

옥수종합사회복지관 김정언 사회복지사는 "각박해져 가는 현대사회와 급변하는 지역사회의 특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 2년간 복지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분들이 큰 호응을 보여 올해에도 명상프로그램을 진행할 것" 이라며 "또한 직원 스스로가 마음을 다스리고 행복감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 특화 명상프로그램을 8회기에 걸쳐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센터장 희유)는 소통과 감정 다루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을 위해 화다루기 능력향상을 위한 '화(火)해(解)하기' 프로그램을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5월 12일부터 6월 4일까지 매주 화 · 목요일 8회기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화 알아가기 △내 안의 화 △생활 속의 화 △내가 느끼는 화 △나도 모르는 화 △화 바라보기 △내 마음 전하기 △화와의 만남 등 주제별 과제를 통해 어르신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해소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는 화해하기 외에도 어르신들이 노년에 겪을 수 있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의 주제를 다각화시킨다.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통해 가족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행복시소', 헤어짐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애도 집단상담프로그램 '겨자씨', 임종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통해 지나온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인 '사는 기쁨' 등이 개설된다.

서울 **목동청소년수련관**(관장 경륜)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평일과 토요일에는 면접 · 전화 · 사이버 상담을 실시, 개인상담을 통해 진로, 학업, 성충동, 비행, 성격, 생활습관, 대인관계, 가족관계 등을 주제로 상담한다. 또한 만6세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놀이치료도 실시한다.

특히 목동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동반자(Youth Companion: YC)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위기(가능)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로 청소년이 있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일대일 관계를 맺고 정서적 지지, 심리상담, 지역자원 연계를 제공하고 있다.

송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최재혁)은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면접상담 및 심리검사를 실시해 우울감 있거나 자살 위험이 있는 어르신을 분류하고 심리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상별 교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시민들에게는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게이트키퍼 교육을, 공무원 및 노인관계기관 직원에게는 노인자살 위험군을 관리하는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이웃사촌' 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우울감이 있는 홀몸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나은 기자**

"불교 강점인 지역 네트워크 강화시켜 재난 대비"

성기환 교수, 4월 9일 열린 미래복지포럼서 발제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어느덧 1년이 됐다. 사고가 발생하자 불교계는 곧바로 재난 현장으로 달려가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쳤다.

조계종을 대표해 봉사단을 파견했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4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정부의 재난관리체계 이해 및 불교계의 역할' 을 주제로 정부의 변화된 재난관리체계를 살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성기환 서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상과 기술의 변화로 재난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며 "이에 따라 국가의 재난구호 활동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또한 재난의 증가와 국민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국가는 물론 종교단체의 역할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특히 유가족들의 마음을 보듬어줄 정신적 지원 확대는 국제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불교의 강점인 '지역 네트워크' 를 꼽으며 지역 사찰과 불자들이 자원봉사를 기반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조계종 복지재단 내 여러기관과 종단 관계기관간의 연계와 함께 이웃종교, 민간단체, 정부 등 각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통합 관리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통합적 관리체계를 관리하고 봉사자와 관리자 및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을 통해 인적 · 물적 역량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럼에 앞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은 참가자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무고한 생명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4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정부의 재난관리체계 이해 및 불교계의 역할' 을 주제로 정부의 변화된 재난관리체계를 살폈다. 성기환 서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보경 스님은 "오늘 이 포럼은 답보상태에 있는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와 완전한 해결을 원하는 한국불교와 조계종, 그리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마음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더욱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과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용호복지관, 어르신 700명에 짜장면 보시

4월 7일, 사랑의 나눔 행사 열어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과 (사)한국중식봉사나눔회 부산남구지부(지부장 이상춘)는 4월 7일 '사랑의 짜장 나눔' 행사를 열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과 (사)한국중식봉사나눔회 부산남구지부(지부장 이상춘)는 4월 7일 '사랑의 짜장 나눔' 행사를 열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복지관은 이날 행사에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 700여명을 초청해 짜장면과 간식거리 등 다양한 음식을 제공했다.

특히 (사)한국중식봉사나눔회 부산남구지부는 음식마련을 위해 재료를 제공했으며, 직접 조리와 배식을 도맡아 했다.

(사)한국중식봉사나눔회 부산남구지부 이상춘 지부장은 "저희가 가진 재능으로 나눔 실천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마다 지역민들을 위한 사랑의 짜장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즐겁게 드시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중식봉사나눔회 부산남구지부는 남구 지역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앞 이기대 입구 일원에서 녹색캠페인도 실시했다. **하성미 기자**

본동복지관, 어울림 한마당 축제열어

4월 4일 어르신 난타 공연도 선보여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종성)은 4월 4일 노량진동 단체 및 지역주민과 함께 한 '벗이랑 꽃이랑 어울림 한마당' 에 참가해 지역나눔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벗이랑 꽃이랑 어울림 한마당' 축제에는 복지관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아리 '한울림' 의 난타 공연이 진행됐다.

난타공연을 관람한 지역 주민들은 "동작구 본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렇게 많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즐거운 공연을 보여 주어 즐겁고 흥미롭게 관람했다"며 웃음을 지었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노인특화사업 오아시스 동아리 '한울림' 의 공연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동 기회를 넓혔으며, 자긍심과 성취감을 형성해 지역사회 소통 및 화합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이번 '벗이랑 꽃이랑 어울림 한마당' 축제에는 복지관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아리 '한울림' 의 난타 공연이 진행됐다.

안양노인복지관, '팔도 고향 방문' 프로젝트

개관 15주년 사업, "고향 보내드립니다"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박양숙)은 개관 15주년을 맞아 홀몸 어르신을 위한 '팔도 고향 방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어르신들이 고향을 직접 방문하고 옛추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다.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의 행복을 되찾아 주기 위해 15주년 사업을 준비했다"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방문했던 고향을 직접 방문해 행복한 순간을 만끽할 어르신을 모집한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031)455-0551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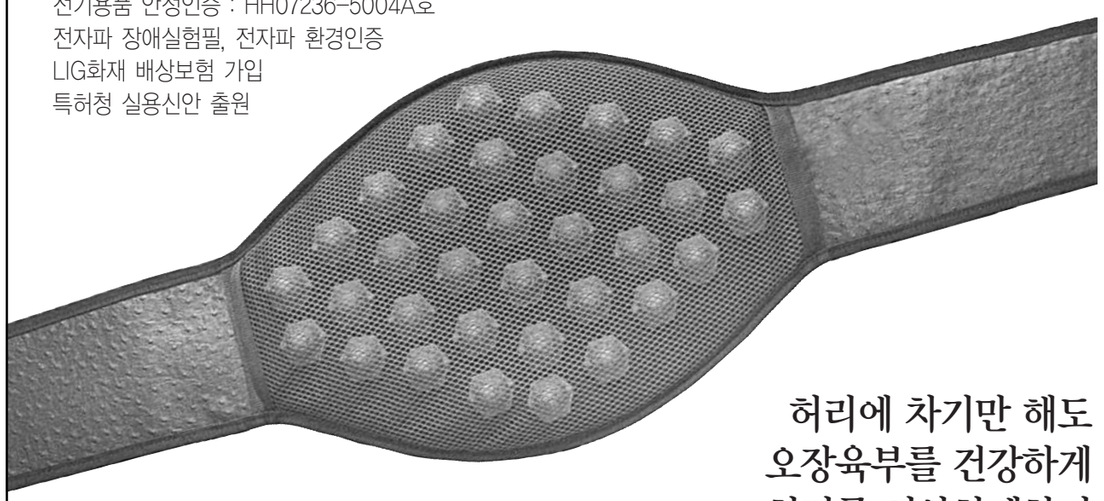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조상 덕 의지 말고 나와 남 위한 기도를”

홍법사 지장천일기도 법문

심산 스님(홍법사 주지)

천도재(薦度齋)는 망자(亡者)의 넋을 기리며 극락정토로 인도하기 위해 지내는 불가의 의식이다. 일반적으로 49재가 가장 대표적이며 이밖에도 100일재 · 소상 · 대상 등으로 치러진다. 심산 스님은 4월 6일 지장재일(음력 2월18일)을 맞아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지장천일기도 입재식 법문을 설했다. 심산 스님은 “천도재를 지내는 의미는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마음 뿐 아니라 재를 지내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며 “의식을 올리는 사람 또한 천도재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법문의 요지다. 정리=박아름 수습기자



심산 스님은 … 1981년 도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동국대 선학과와 불교문화대학원을 졸업했다. 대성사, 통도사 부산포교원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 한나래문화재단 이사장과 불심홍법원 이사, 동련 이사장 등 소임을 맡아 포교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 제10회 포교대상 원력상, 2002년 불이상, 2008년 행정안전부장관 표장 등을 받았다.

수륙 · 영산재 · 49재 등 천도의식은
중생의 이고득락 · 해탈 위한 행위

불교 목표는 살아생전 열반 얻는 것
악업 · 서운한 관계 소멸하고
본래 청정 모습 회복하면 열반 이르러

지혜로워야 극락에 갈 수 있어
지혜란 순간의 판단에서
가장 보편적 가치를 찾는 것

천도의식은 영가에 부처님법 설해
보편적 가치 알려 무지 일깨워줘

망자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천도재

지난달 지장천일기도 회향에 이어 오늘 새로운 지장천일기도 입재를 맞았습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천도재는 영가를 이 사바세계의 고통이 아닌 즐거움으로 가득 찬 극락정토로 인도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도의식 가운데는 수륙재뿐만 아니라 49재, 영산재 등도 포함을 합니다. 그 재들이 가진 공통의 뜻은 이고득락(離苦得樂), 모든 중생이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어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의식을 베푸는 행위입니다.

얻고자 하는 즐거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법에 의한 즐거움, 즉 진리에 의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 재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일이나 떡, 초와 향 같은 재물을 많이 차리는 물질적인 천도가 아니라 영가 앞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고 그 진리에 의해 영가가 행복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살아있는 후손 제자들의 입장에서 천도재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 망자의 원한관계나 모든 악업 등을 소멸하고 청정한 마음을 회복해서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것이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천도재를 하는 이유겠지요. 다시 말하자면 영가가 지었던 모든 악업과 업장을 소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혹은 살아생전 지었던 인간관계 속에서의 모든 원한이나 불편한 마음을 다 접고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도록 해서 극락왕생으로 인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을 일컬을 때 환지본처(還至本處)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본래의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또 반대로 극락에 머물지 말고 속환사바(速還娑婆)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속히 사바세계로 돌아와 중생들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는 말이지요. 우리 삶은 사실 때 하나 묻지 않고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살아갈수록 점점 더 많은 어려움에 휩싸이고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이지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업을 짓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말인 환지본처의 숨은 뜻은 ‘죽음으로 가는 것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간 세상의 시기질투와 시비선악의 모든 고리를 끊었다’ 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열반에 이르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살아있는 동안 열반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선악, 시비 모든 관계의 복잡함을 끊는 것을 열반이라고 하는데 중생의 삶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나 스스로의 내면에서도 선악 시비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살아서 그런 마음을 모두 끊고 그저 삶에 대해 감사하게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열반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선 모든 의식작용, 안이비설신 모든 감각이 멈춰버려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악업, 서운한 관계 등을 소멸하고 본래 청정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 계기의 시간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극락도 지옥이 될 수 있다

돌아가신 영가를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개인마다 이런저런 아쉬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천도재는 그 마음들을 모두 접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49재를 지낼 때 영상편지를 영전에 보내지요. 그것을 보면 누구든지 간에 돌아가신 분 앞에서는 서운함 아쉬움 애석함 섭섭함 등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갖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도재에서 죄의식을 가지기도 합니다. 천도재는 어떤 조건, 어떤 형태로든 그 모든 것을 다 소멸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살아남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망자가 지었던 모든 악업과 원한을 소멸하고 청정한 마음을 회복해 극락으로 왕생하십시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망자의 입장에서 천도재의 의미를 살펴보면 불교에서 우리의 삶을 표현할 때 사유(四有) 네 가지가 있다 말합니다. 생유(生有), 본유(本有), 사유(死有), 중유(中有)가 바로 그것입니다. 생유(生有)는 태어남을 의미하고, 본유(本有)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유(死有) 죽을 때, 중유(中有)는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상태이지요. 생유와 사유는 본유나 중유와 비교해서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순간은 예상치 못한 찰나이거나 예상한 짧은 순간인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러나 본유(本有)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시간으로 사람마다 모두 다른 모습과 시간을 보냅니다. 업에 따라 그 모습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사는 동안만이 아니라 죽은 뒤 다시 태어나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불가에서는 보편적으로 49일만에 새로운 몸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경우에는 49일이 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몸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이가 살아생전 업을 잘 지으면 굳이 49일이 지나지 않아도 바로 극락세계에서 왕생을 할 수 있는 것이요, 49일이 지나고도 새로운 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음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음신이란 이승에도 저승에도 안착을 하지 못하고 떠드는 영혼을 말합니다. 또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새로운 몸을 얻을 때까지 49일의 기간을 중유(中有)라고 하는데 이 중유의 시간에는 영혼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전에 보다 훨씬 더 똑똑한 머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영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왜 영가보다 덜 똑똑한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눈이 침침해서 글이 안보이고, 귀가 멀어서 안들리는 등 여러 가지 신체적 조건에 의지하게 되면 그 능력의 한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배움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망자를 위한 천도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두뇌, 청력, 감각 등의 한계 때문에 잘 모르던 사람도 영가가 되고 나면 모든 것에 전부 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때에 영가에게 진리를 설해 준다고 하면 바로 지혜를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천도의식을 하는 동안 우리가 외는 염불을 영가가 듣는 순간 이해하고 지혜광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영가가 육신을 가진 인간보다 더 똑똑한 것은 맞지만 사람도 똑똑하고 덜 똑똑한 사람이 있듯이 영가 중에서도 똑똑한 영가가 있고 덜 똑똑한 영가가 있습니다. 탁한 영혼, 맑은 영혼들이 다 각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돌아가셨다고 해서 다 완전한 청정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아생전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업의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영가가 돼서도 지혜를 깨달음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마음씀씀이가 저 세상의 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생에서 업을 잘 쌓아야 하며, 놓을 것은 놓고 가야 다음 생에서도 업과 습에 의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극락세계가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해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만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똑똑하다, 즉 지혜롭다는 이 의미는 단순히 암기력이 좋거나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판단에서 가장 보편적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욕심을 기준으로 한 가치가 아닌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공통된 가치를 아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요즘 핸드폰은 날씨, 검색, 사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만능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핸드폰이 만능이라고 해도 핸드폰을 조작할 수 있을 때 만능인 것이지 핸드폰이 만능이라고 해도 내가 어떻게 조작하는지 모른다면 나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극락세계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극락세계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 때 극락이 극락이 되는 것이지 내가 모르면 극락도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도의식은 영가에게 부처님 법을 설해서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동안 자신이 사리사욕에 잡혀 살았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상근기(上根機)로 천도재를 행하라

요즘은 일반 사람들은 천도의식에 대해서 간혹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에 우리는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도의식을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첫째는 영가가 지었던 모든 악업이나 영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감정들을 소멸하고 영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기원하는 것이며, 둘째는 생전보다도 훨씬 똑똑한 영가에게 부처님의 경전을 설했을 때 더욱 빨리 지혜를 얻게 되니, 그 지혜를 얻음으로써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천도재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바로 천도재를 모시는 이유가 돌아가신 영가를 위한 것이 아닌 살아있는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장경〉에서도 이르길 제사를 지내는 공덕의 7분의 1은 영가에게 가지만 7분의 6은 제를 지내는 사람에게 공덕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영가의 존재 유무를 막론하고 내가 내 마음의 조상님을 생각하고 천도재를 지내는 것은 사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 속에 죽은 사람을 품고 살아갑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형제 친구 모든 사람들을 잊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을 살펴보면 생전에 함께 지낸 인연이 있는 사람의 죽음이 아쉽고 애석하며 때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영가를 보낼 때 이러한 마음도 모두 다 보내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서 그분들의 대한 감정도 모두 보냈을 때 나와 영가가 모두 함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도재를 지내며 영가를 위해서 불경을 외면 그것은 나의 공부입니다. 그 분을 생각하며 부처님 공부를 하는 것이 내 삶의 큰 의미를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은 천도재를 지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영전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가를 반성하며 나를 성찰하게 됩니다. 그러니 천도의식은 영가를 위하기보다 영전 앞에서 그분의 모습을 거울삼아 내 삶을 돌아보고 그분이 보신다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겠다는 내 마음의 상징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한 달에 한번 지장재일을 잊지 않고 절에 와서 영가를 기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독이고 견고하게 돌아보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도재를 지내는 사람의 모습은 근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천도재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행하는 것은 상근기(上根機)입니다. 중근기(中根機)는 내 도리로써 한다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근기(下根機)는 조상에게 그저 한탄하는 마음으로 재를 올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힘든 상황에 놓여있을 때 이유도 없이 조상님에게 의지해서 덕만 보려고 하는 마음이 하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조상과 내가 함께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지혜를 얻는다는 마음인 상근기로서 천일기도에 임해야 합니다.

천도재는 망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빨리 얻어 반야용선을 타고 극락으로 왕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의식입니다. 동시에 나의 지혜도 함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입재한 여러분은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재에 임해 영가와 내가 함께 천도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화 풀이 살 풀이 꿈 해몽 대사전
화제의 책
꿈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심층 심리와 놀라운 예지력! 이런 꿈을 꾸면 이런일이일어 난다.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꿈 해몽 비법과 21세기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꿈에 관한 모든것!
평소에 꾸는 꿈을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올바로 해몽하여 바른 인생의 길잡이로 삼으십시오! 인간의 평균 수명을 75세로 했을 때 그 중 25년은 잠을 자는 시간으로 보내고, 25년 중의 10년은 또 꿈을 꾸는 시간으로 보낸다고 한다.
짧은 인생 동안 10년이라는 시간은 간단히 무시해 버리고 넘어가기엔 너무나 아깝고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꿈풀이 전문가가 있어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그 신비한 꿈의 올바른 해석에 관한 모든 비밀을 이 책을 통하여 속시원히 밝혀 보았다.
■ 金允中 지음 / 신국판 / 644쪽 / 정가 28,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 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50,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大出力 믹싱앰프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성보 관리 나도 전문가"… 스님 대상 교육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문화재관리 교육 '인기'

"스님, 탱화를 보존할 때 모퉁이가 상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퉁이 보호재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찰의 보일러 배관 스펀지 부분을 잘라 모퉁이에 껴주면 됩니다. 스펀지는 화학재질이기에 스펀지 부분을 먼저 중성인 한지로 둘러싸주세요."

"절집에서는 불상의 경우 보통 수장고에 그대로 넣어 놓는데, 개별로 싸서 보관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문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교문화재, 사찰에 산재한 성보를 관리하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뜻깊은 교육의 장이 열렸다. 불교계 최초로 문화재 관리 실무교육이 실시 된 것.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화범)이 4월 9일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개최한 다량문화재 소장처 관리자 유물관리교육에서는 스님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

신화용 문화재 보관 · 이송 전문가의 '성보문화재 포장과 유물취급' 강연과 실습현장에서 스님들은 직접 문화재 보관법을 익혔다.

신화용 씨는 "문화재를 보관 할 때 무심코 비닐과 같은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문화재를 손상시키는 요인이 된다. 한지를 활용해 충격보호재 등을 만들어 쓰는 것이 좋다"며 한지를 활용한 방법을 시연했다.

실습에 참여한 화계사 교무 동재 스님은 "그동안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성보를 관리하는 주체였음에도 이에 대한 교육이 전무했다"며 "절집 안에는 대대로 전수되는 방식이 있는데 이런 전통과 현대 보존전문가들의 보존기술을 함께 어우러져 보다 성보문화재가 오래 보존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여한 최영용 동화사 성보박물관 계장은 "사실 사찰에서 보존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워낙 다양하다. 전공자라도 전공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처럼 종합적인 보존 방법을 듣는 것이 유용하다"며 "실무자 입장에서도 실무교육으로 진행되기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8일에는 도진영 고려대 색채연구소 교수의 '실외 석조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강의와 함께 김태식 연합뉴스 문화재 전문기자와 조계종 문화부 문화재팀의 '절 밖에서 바라보는 절' 과 '문화재 보호의 법적근거' 강연도 진행됐다.



스님들이 경전류를 보관하는 방법을 실습하고 있다. 이날 스님들은 한지를 이용한 문화재 관리 방법 등을 교육받았다.

45명 스님 참석해 높은 관심 보여
성보박물관 관계자 "실무에 도움"

도신영 교수는 "석조문화재의 풍화는 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라며 "육안 진단 및 정밀 진단으로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존을 강구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 교수는 다양한 석조문화재 피해사례를 담은 사진자료를 통해 스님들이 사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석조문화재 훼손 현상을 설명했다.

김태식 연합뉴스 기자는 강연에서 "성보문화재는 불교계 뿐만 아닌 국민 모두의 자산으로 불교계도 지정문화재 만큼은 고화질 사진 및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문화재 관람료의 활용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성보박물관 유물관리교육에서 신화용 씨가 가사와 같은 천조직 문화재를 보관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선(禪)과 인문학의 만남, 새롭게 살핀다

한국선학회 4월 25일 춘계학술세미나서 종합 고찰

한국문화 속의 다양한 인문학 분야와 선불교의 접점을 살펴보는 학술세미나가 마련된다. 한국선학회가 4월 25일 개최하는 '선(禪)의 대지위에 영글어가는 온갖 곡식' 학술세미나가 그 것이다.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탁)는 25일 오후 1시 연세대 문과대 1층 강의실에서 사상과 역사, 사회와 명상, 문학과 예술 등 총 3개 섹션으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먼저 학술세미나 개회식에서는 전 불교학술원 원장 인환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선과 사상 · 역사' 주제로 열리는 섹션 1에서는 동국대 교수 혜원 스님의 사회 하에 장은화 동국대 강사가 '숭산선의 공안 수행과 인가제도', 박희승 한국문화연수원 교수가 '간화선의 현실인식과 대응', 동국대 대학원 과정의 한창호 씨가 '청화 염불선 행법과 무문관 공안을 통한 교화활동 비교',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연구원 영석 스님이 '선교결사의 계승과 소림통방정안', 조계종 교육아사리 희청 스님이 '백파의 무자화두 참구' 에 대해 발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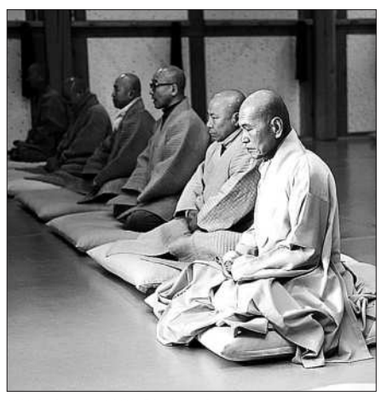
특히 박희승 교수의 간화선의 현실인식과 대응은 근현대 선의 흐름 속에서 간화선을 필두로 한 선불교가 어떻게 변용돼왔으며 이로 인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핀다.

'선과 사회 · 명상' 관련 논문을 다루는 섹션 2는 최근 각광받는 명상문화의 근간인 선불교 사상을 살펴보고 현대적인 적용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황수경 동국대 교수의 사회 하에 먼저 동국대 박사과정을 수료한 류상윤 씨가 '조사선에서 원용하는 경영의 위기관리', 동국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전무규 씨가 '일상생활에서 사념처 수행의 활용', 최현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강사가 '음악명상과 사마타, 위빠사나 수행과 접점', 김성수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강사가 '글쓰기 명상의 내적 드러내기와 치유의 관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진우기 씨가 ' 현대 선수행에서 염(사띠)의 활용과 변용: 서양불교와 한국불교를 중심으로' 를 주제로 발표한다.

'선과 문학 · 예술' 관련 논문을 다루는 섹션 3은 전재강 안동대 교수의 사회 하에 이강옥 영남대 교수가 '설화에 나타나는 득도 해탈', 동국대 박사과정을 수료한 탄호스님이 '명청시대의 선미술과 선사상', 조태성 전남대 교수가 '선시와 감성-진공과 실재의 역설', 박규리 동국대 강사가 '선시의 본질과 영역에 대한 일고찰', 김미선 청주대 교수가 '불가의 심우시 고찰' 에 대해 발표한다.

신규탁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자신의 연구 분야를 드러내고 그것을 서로 토론하고 연구공동체를 존중하고 그러면서 함께 선불교 연구를 발전시켜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백양사 고불선원 참선 모습

신라 최대 불교寶庫 영축사지 4차 조사 돌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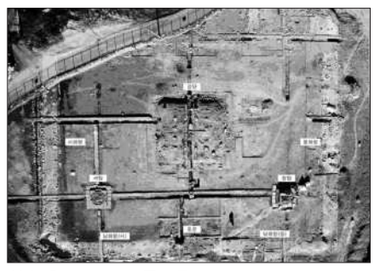
통일신라 최대가람인 '울산 영축사지' 4차 조사가 4월 6일 시작됐다. 울산박물관(관장 신광섭)은 5개년 계획으로 2012년부터 영축사(靈鷲寺) 학술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4차 조사는 4개월 간 울주군 청량면 영축사지에서 이뤄지며, 석탑 부재의 정밀 조사와 탑지 하부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울산박물관은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영축사가 금당지를 중심으로 쌍탑이 위치한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 가람배치인 것과 영축사 규모가 경주 감은사에 버금감을 확인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금당지 북편 강당지 확인으로 영축사지 가람배치가 강당-금당-동 · 서탑-중문-회랑으로 이루어진 최대 가람이었음을 밝혀냈다.

영축사는 〈삼국유사〉에 신라 신문왕대(683년) 창건 내용이 기록된 사찰로 출토유물로는 통일신라 금동불상(金銅佛像) 2점, 석불좌상(石佛坐像) 1점, 약사불이 장식된 광배(光背)편 등이 나왔다.



울산 영축사지 항공사진

신광섭 관장은 "영축사지의 전모를 밝혀 향후 이뤄질 문화유적 보호 · 보존정비 및 종합 정비사업 계획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대각사상硏, '용성 · 한암 스님' 학술대회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은 평창 월정사(주지 퇴우 정념)와 4월 24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용성과 한암, 그 지성의 원류를 찾아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 1부에서는 동국대 교수 혜명 스님의 사회로 김광식 동국대 교수의 '용성과 한암의 행적에 나타난 불교관', 능인불교대 교수 자현 스님의 '계잠의 분석을 통한 선계일치적 관점 분석', 백도수 능인불교대 교수의 '한암의 계율인식 고찰', 이자랑 동국대 교수의 '용성 율맥의 성격 및 전개',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 마성 스님의 '용성의 선농일치 사상' 이 발표된다.

2부에서는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조성택 고려대 교수의 '한암과 용성의 사회참여와 불교실현의 방식 비교',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용성선사 어록에 나타난 선사상', 윤창화 민족사 대표의 '한암일발록을 통한 한암선의 특징 고찰', 이상하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위원의 '한암선의 언어적인 특징', 김종인 경희대 교수의 '대각교 운동의 성격과 근대성' 발표가 이어진다.

노덕현 기자

불교, 정말 사회적 역할 잘하고 있는가?

불교평론 열린논단, 조성택 교수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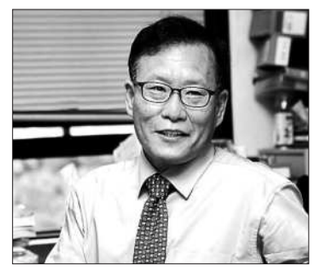
불교평론(주간 홍사성)은 4월 16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와 함께 열린논단 연속기획 '한국불교 정말 괜찮은가' 의 세 번째 주제인 '사회적 역할, 정말 잘하고 있는가?' 를 진행한다.

세 번째 논단에는 조성택 고려대 교수 〈오른쪽 사진〉가 나서 한국불교의 모습을 물질적 구제활동과 정신적 구제활동으로 나눠 진단한다.

조성택 교수는 "현실사회는 늘 빈곤이나 질병, 재난과 같은 고통에 노출돼 있고 이는 사랑과 자비를 내세우는 불교가 담당해야 할 분야"라며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불교가 담당해야 할 분야는 올바른 가치관을 확산시켜 나가는 활동이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때 불교는 바른 길을 열어주어야 하고 위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평론 측은 "이미 결론이 뻔한 이야기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미리 부정적 결론을 내리는 현상이 만들어졌으며, 이를 돌파할 방법은 무엇인가를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제를 맡은 조성택 고려대 교수는 최근 실천적 인문공동체 '화쟁아카데미' 를 설립해 뜻있는 지식인들과 의견을 나누는 모임을 이끌고 있다. (02)739-5781



노덕현 기자

깊이 있는 연구, 새로운 시각, 다양한 주제!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1 불교철학의 역사
연속과 불연속
D. J. 칼루파하나/김종욱 역/신국판양장/544쪽/25,000원

2 한국의 불교의례 I
상용의례를 중심으로
정각/신국판양장/460쪽/23,000원

3 밀교학 개론
밀교란 무엇인가
종석/신국판양장/286쪽/12,000원

4 법화경의 성립과 배경
인도문화와 대승불교
塚本啓祥/이정수 역/신국판양장/576쪽/27,000원

5 성철선사상
돈오돈수와 중도·영원에서 영원으로
도대현/신국판양장/448쪽/23,000원

6 인도불교사
그 사상사적 이해
정순일/신국판양장/726쪽/33,000원

7 주역선해 연구
불교사상과 유교사상의 융합
청화/신국판양장/510쪽/25,000원

8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역사와 종교의 변증법적 이해
자현/신국판양장/280쪽/15,000원

9 불성론 연구
도겐의 『정법안장』을 중심으로
최현민/신국판양장/368쪽/18,000원

10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의학의 만남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신국판양장/416쪽/23,000원

11 청송의 선과 철학
선사상과 서양철학의 회통
소광희 외/신국판양장/312쪽/18,000원

12 불교미술사상사론
불교철학과 미술사의 통합적 인식
자현/신국판양장/304쪽/18,000원

13 천수경 연구
현행 『천수경』의 성립 및 구조에 대한 분석
정각/신국판양장/500쪽/25,000원

14 역경학 개론
불전佛典의 성립과 전승
최종남 외/신국판양장/454쪽/23,000원

15 현수 법장 연구
화엄교학의 대성자
계환/신국판양장/252쪽/15,000원

16 유식삼십송 풀이
유식불교란 무엇인가
후카우라 세이분 저/신국판양장/500쪽/25,000원

17 불교사회복지개론
불교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실천체계 및 현황
조보각 외/신국판양장/408쪽/20,000원

18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삼국유사』에 나타난 신라 정토신앙을 중심으로
현송/신국판양장/320쪽/17,000원

19 경봉 선사 연구
생애 및 사상, 수행과 결과를 중심으로
정도/신국판양장/304쪽/17,000원

20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입법계품에 나타난 선재동자의 구도여행을 중심으로
도업/신국판양장/360쪽/18,000원

21 정토 수행관 연구
영명 연수의 사상과 수행을 중심으로
법상/신국판양장/524쪽/25,000원

22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정토불교의 기원과 전개, 교리와 인물을 중심으로
현송/신국판양장/436쪽/23,000원

23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한국불교 정통성 회복을 중심으로
진관/신국판양장/242쪽/15,000원

24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시식, 공양, 송주 의례를 중심으로
이성운/신국판양장/454쪽/23,000원

25 청송의 생애와 선철학
동서양의 철학적 사유에 가교를 놓다
소광희/신국판양장/212쪽/15,000원

26 불교세시풍속
기록으로 만나는 불교 세시풍속과 문화
오인/신국판양장/446쪽/23,000원

27 삼계교 사상 연구
신행의 사상과 실천, 신라불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공/신국판양장/424쪽/23,000원

28 범망경보살계본휘해
천태지자 · 운서주굉 · 영봉우익의 주석서들을 종합한 주해
이원정 편/목정배 역/신국판양장/556쪽/2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인터넷 서점: 붓다북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봉축, 가톨릭과의 공존·평화 상징으로”

서산주지협의회, 가톨릭 성지 해미읍성서 최초 연등축제

그동안 서산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지역이었지만 가톨릭 순교성지임을 고려해 봉축행사가 열리지 않았던 해미읍성에서 최초로 연등축제가 개최된다. 이웃종교인들이 한데 모여 불교와 가톨릭을 비롯해 한국사회에서 공존과 평화의 상징으로 행사가 진행한다는 취지다.

조계종 서산시주지협의회(회장 도신, 서광사 주지)는 4월 6일 “5월 9일 서산시민과 함께하는 2015년 연등축제를 해미읍성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적 제116호인 해미읍성은 1417년부터 1421년 사이에 축성된 조선초기의 대표적인 석성으로 충청도 지역의 군사방어를 담당했다. 성곽둘레는 1.8km, 높이 5m, 면적은 약 20만㎡으로 지역 대표 문화재다. 이 곳에서는 조선후기에는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희생됐으며 그로 인해 순례성지로 평가 받고 있다. 2014년 8월 프란체스코 교황 방한 시에 해미읍성을 순례하기도 했다.

해미읍성에서 열리는 연등축제는 문화체험, 위령제, 노래자랑, 문화공연, 관불법요식, 제등행렬 순으로 진행된다. 문화체험은 다도체험과 전통떡 만들기 체험, 연꽃컵등 만들기, 다포에 민화그리기, 서산의 인물과 사찰, 문화재 소개 등을 체험한다.

또 서산시민과 학생, 불자들 누구나 참여

5월 9일 성곽길 따라 제등행렬

국가 평안 기원한 종교 의미 강조



할 수 있는 노래자랑이 열리며 문화공연은 개그맨 김지호의 사회로 인기가수 장미화, 강경민, 박정식, 나은, 타악그룹 진명 등이 출연해 즐거움을 선사한다.

제등행렬은 법요식 후 오후 7시30분부터 진행되며 해미읍성의 성곽 1.8km 구간에서 실시된다. 해미읍성의 성곽을 따라서 밝혀지는 오색의 연등행렬은 그 어느 연등행사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연등축제를 준비하는 천장사 주지 허정스님은 “연등회는 한민족의 역사 속에 살아숨쉬는 전통문화유산”이라며 “일반적으로 연등회 행사가 사찰 경내나 사찰 주변에서 진행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해미읍성에서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해미읍성은 가톨릭 전래에서 순례자들이 나온 이웃종교의 순례지이기도 하지만 성 주변에 사방에는 미륵불을 세워 안녕을 기한 미륵성지이기도 하다”며 “국가발전과 평화를 기원한 종교적인 의미를 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시주지협의회장 도신 스님은 “가톨릭 신자들이 목숨을 잃은 자리에서 연등을 밝히는 것은 역사의 아픈 상처를 보듬으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공존과 평화의 메시지로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해미읍성은 서산시민만 찾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라며 “이곳에서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연등축제를 열게 된 만큼 서산이 자랑하는 유형문화인 해미읍성과 무형문화재인 연등회가 창조적으로 만나 한국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안 개암사 산신탱화 점안식 및 산신대재



부안 개암사(주지 재안)가 전북불교 중흥과 전라북도, 부안군의 발전을 기원하는 을미년 봄 산신대재와 함께 산신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개암사 산신대재는 지역민들과 함께 매년 봄과 가을에 개최하고 있다. 행사에는 선운사 초기불교승가대학원장 재연스님과 학인 스님과 김종규 부안군수, 김춘진 국회의원, 군장병 등 2백여 대중이 동참했다.

산신대재에서는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명종, 법고, 삼귀의, 반야심경, 발원문 낭독, 신왕경 독송, 축원, 청법가, 법어,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산신대재에 이어 진행된 산신각 후불탱화 점안식에서 증명법사로 나선 재연 스님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와 무상의 진리를 바로알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암사는 극락교 인근에 천왕전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불사 모연 중에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불교聯, 행렬등 강습회 개최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4월 7일과 9일 2일간 광주불교회관 2층 법당에서 전통행렬등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습회에는 광주지역 사찰과 불교단체, 합창단 등 60여 명이 동참했다. 사찰별로 목어, 운판, 복주머니, 풍경, 사각, 원 등 다양한 행렬등 제작이 시도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문영배 광주불교연합회 기획팀장은 “올해 봉축행사는 자신이 만든 등을 들고 행진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습회는 7일 골조만들기와 배접, 9일 색칠과 마감작업이 진행됐으며 강사에는 광주지역 전통등 만들기 단체인 빛고을만등회(회장 김병구)가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국서 캄보디아 설 축제 즐겨요”

광주외국인복지센터, 4월 12일 ‘쫄츠남 축제’ 열어



불교계가 운영하는 광주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4월 12일 광산구 평동공단 내 옥동공원에서 ‘캄보디아 새해 쫄츠남 축제’를 개최했다.

‘쫄츠남’은 캄보디아 설날로 캄보디아에서는 4월 쫄츠남 기간동안 길거리에 국기와 불교기, 새해 복을 기원하는 현수막 등을 걸고 축제를 연다. 쫄츠남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고향을 찾는다. 이와 함께 한국 설빔 문화처럼 새 옷을 사고 부모로부터 생활필수품 등을 선물받기도 한다.

이날 캄보디아 설 행사에는 시탓 캄보디아 공동체 회장을 비롯해 주한 캄보디아 대사와 캄보디아 근로자와 가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애국가를 시작으로 캄보디아 불교의식, 인사말(광주불교연합회, 캄보디아 대사), 환영사(캄보디아공동체), 전통 음식, 전통 춤 및 캄보디아 다문화 여성 전통패션쇼, 놀이마당 등이 진행됐다.

또 회장 시탓, 부회장 시너, 총무 소펙, 문화 잼 등 캄보디아공동체 임원에 대한 임명장이 전달됐다.

광주전남불교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상임이사 혜공)와 광주광역시, 광주외국인인력지원센터 등에서 후원한 이날 행사에 이주성 센터장은 “캄보디아의 근로자들이 한국생활에 대한 긴장감을 덜어주고, 새로운 일에 대한 활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국 전통문화, wonderful~!”

미국 청소년대사 23명, 선운사서 불교문화체험 ‘화제’



미국 청소년대사 23명이 전북을 방문해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된 이들은 4월 3일 고창 선운사에서 1박 2일간 템플스테이를 하며 예불, 108배, 발우공양, 참선, 명상 등의 한국전통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이번 미국 청소년 대사들의 방문은 미국 내 한국우호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추진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회장 마크민튼, 前 주한미국대사)는 1992년 LA에서 발생한 폭동 이후 한국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1993년 단체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코리아 소사이어트에서는 한미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미래 지도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2010년부터는 매년 청소년 대사 방한을 추진해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국 문화 속에 불교가 어떤 위상인지 알 수 있는 자리였다”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한국문화 기반에 불교가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성호 선운사 템플스테이 팀장은 “우리 전통 곳곳에 스며있는 불교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불교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청소년 대사 일행은 이에 앞서 4월 3일 오전 전북도청과 전주 한옥마을을 둘러봤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 4기 출범

전북지역 청소년들이 생명평화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구성된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이 4기를 출범시켰다.

4월 4일 전북생명평화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4기 단원으로 참석한 40여 학생들을 비롯해 완주 송광사 회주 도영스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라은희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도영 스님은 격려사에서 ‘존해파평(尊海波平)’ 사자성어를 화두로 꺼내며 “바다도 존중받으면 파도도 평온해진다”며 생명평화 정신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발대식 후 단원 학생들은 전북학생해양수련원으로 이동해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개암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릴레이 연탄나눔 협약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는 4월 7일 진안군청 회의실서 진안군 일대 릴레이 연탄 나눔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에 맺은 협약 내용은 3년 동안 연 1회씩 마이사탑사서 4천장을 비롯해 종교단체, 일반단체, 개인 20팀이 2017년까지 총 2만1천장의 연탄을 불우 이웃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진안군은 마이산탑사 주지 진성 스님과 월동준비 차원에서 진안군관 11개 읍면에 4천장씩 자비의 연탄을 전달해 왔다. 이날 진안군 이항로 군수는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데 앞장서시는 마이산탑사 주지 진성스님을 비롯해 여러 단체 및 개인 후원자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릴레이 연탄나눔이 더욱 확산돼 소외 이웃들이 훈훈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

자연향을원료로하여제작한천연향초

쑥양초세트 · 밀납양초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지리산 토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 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전국 베트남 불자 모여 佛心으로 '힐링'

삼광사 4월 4일~5일 정진대법회 봉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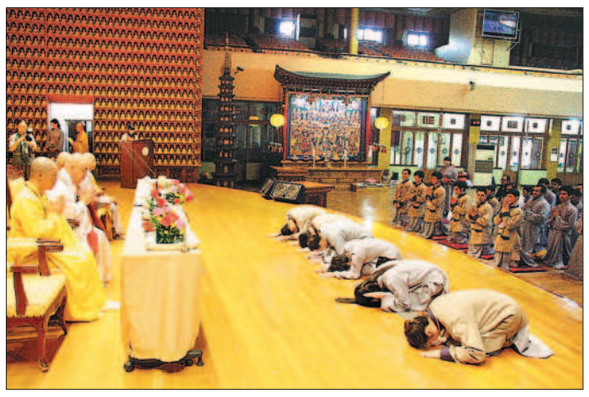
다문화 가정과 이주 노동자를 위해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힐링 사찰 삼광사(주지 무원)가 전국 베트남 불자들을 위한 특별 정진 대법회를 개최했다.

'등람코나우(Dung Lam Kho Nhau)-서로 힘들게 만들지 맙시다.' 라는 주제로 4월 4일~5일 삼광사 지관전서 열린 이번 법회에는 전국에 있는 결혼이민여성, 산업연수생 등 베트남 불자 7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법회에서는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의 법문 및 걷기 명상, 기도 정진 법회 등이 진행돼 베트남 불자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재가 불자들을 비롯해 참석한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마음의 힘을 잘 사용하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행복하게 된다. 이번 공부를 기회 삼아 주변을 더욱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법회에서는 베트남 비엑주웬두 사찰의 주지 틱티엔투안 스님과 핀란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엔 탐 사찰 주지 틱한바오 스님 등 베트남 불자들에게 정신적으로 존경받고 있는 스님들이 초대돼 눈길을 끌었다.

틱한바오 스님은 "주지 무원 스님께서 흔쾌히 초청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법회를 개최하게되어 감사드린다. 모든 인간관계는 사랑과 자비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이번 법회를 통해 계정혜를 닦아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광사가 전국 베트남 불자들을 위한 특별 정진 대법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은 걷기 명상 장면, 오른쪽은 베트남 불자들이 스님들께 3배를 올리는 장면.

틱티엔투안 · 틱한바오 스님 초청
서울 대구 등지서 700여 명 몰려
월1회 법회… 1년에 두 번 대법회

한국에서 베트남 불자 모임을 이끌고 있는 막티흰(35)씨는 "베트남에서 법문을 하면 2만명이 넘는 불자들이 모일 정도로 유명한 스님들인데 이렇게 한국에서 뵙게 되어 너무 영광스럽다. 이처럼 좋은 기회를 준 삼광사에 감사드린다"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이번 법회에서는 서울, 광주, 대구, 경주 등 전국 각지에 흩어진 베트남 불자들이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공유한 정보로 700여 베트남 불자들이 모인 점도 눈길을 끈다. 대구에서 온 노티탐(27)씨는 "한국에서 생활하면 많이 외롭고 힘이 드는데 5년만에 법회를 통해 도반들을 만났다. 이번 법회에 참석해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어 좋았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참석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으로 삼광사는 한국의 베트남 불자들과 연계해 회원 관리 및 연락망을 새롭게 구축하고 조직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달 1회 정기 법회를 열고 일 년에 두 차례씩 대법회를 봉행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의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노동자 포교를 위해 세계 음식 문화 축제 및 다문화 가족 이해하기 세미나, 다문화 가정 어린이 뮤지컬 공연 팀 구성 등의 기존 프로그램도 꾸준히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봉축 때는 특별히 통역도 배치해 외국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 스님 및 재가불자들은 5박 6일 동안 삼광사 극락전에 머무르며 삼광사 힐링문화열차 탐방 및 삼광사 정기법회 등에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연등축제조직위 봉축 일정 발표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2015 슬로건으로 확정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 2015년 부산연등축제조직위원회(이하 연등축제조직위)는 4월 4일 삼광사 금강불교대학 강의실에서 '부산연등축제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수불 스님, 부산불교연합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 사무총장 심산 스님 및 구군불교연합회, 신행단체 대표, 재부종단대표, 구군연합신도회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연등축제조직위는 "부산연등축제 슬로건을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으로 내걸고 장엄등 전시 일정을 5월 11일~17일에서 5월 1일~17일로 확대 변경했다. 장소는 기존 전시장인 용두산 공원의 공사 관계로 부산시민공원 송상현 광장으로 변경했음"을 밝혔다.

아울러 거리등도 2000개에서 3000개로 추가된다. 봉축탑 외 장엄등 수도 대폭 늘어나 축제의 열기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전통 창작등 공모대전 및 전시는 일정도 발표했다. 4월 29일~30일 연등축제위원회로 작품을 출품하며, 5월 1일~17일 전시를 거쳐 17일 시상식도 갖는다.

2015년 부산연등축제의 주된 무대 및 전시 장소는 부산시민공원 송상현 광장, 구덕운동장, 광복로이다.

부산불교연합회장 수불 스님은 "불자뿐 아니라 부산시민이 함께 하는 명실상부한 전통 축제로 발전시켜나가자"고 당부했다. (051)867-0501

하성미 기자

부산 연등축제 일정

행 사	날 짜	장 소	내 용
개막점등식	5월 1일 오후 7시	부산시민공원 송상현 광장	장엄등 점등 및 '탑돌이 소원행사'
전통 · 창작등 공모대전 및 전시	출품 4월29일~30일	연등축제위원회	전시 내용 • 우수작품, 봉축상징탑 등 • 연꽃등, 금강저등, 보살의화신등 50여점 • 전통복장을 한 어린이 등 • '영도다리와 자갈치시장'을 표현한 등
	전시 5월 1일~17일	부산시민공원 송상현 광장	
	시상식 5월 17일	구덕운동장 봉축연합대회	
시민 행사	5월 1일~3일	송상현 광장 체험존	전통문화체험한마당
봉축연합대회 및 연등행렬	5월 17일 오후 4시	구덕운동장	봉축연합대회 '연등행렬' -구덕종합운동장 출발 대청로, 국제시장, 광복로, 부산근대역사관 약 3km 구간 행진

대불련부산지부 제1회 금요법회 개최

부산교수불자연합회(회장 정태권)와 대불련부산지부(회장 정연민)는 4월 3일 '제1회 대학생 매월 금요법회'를 안국선원교육관에서 봉행했다.

'대학생 매월 금요법회'는 포교를 위해 부산교수불자연합에서 특별히 고안한 법회로 불자가 아닌 일반 대학생을 주 대상으로 삼는다.

법회에는 부산교수불자연합회 회장 정태권 교수, 전 회장 박영병 교수 및 부산대, 동아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등 10여개의 불교 동아리 신입생 및 대불련 학생 70여명이 참석했다.

정태권 교수는 "그동안 대불련 포교활동을 적극 지지해온 수불 스님을 초청해 법문을 청했다"며 "앞으로 부산 대학생 포교를 위해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수불 스님은 법문을 통해 "내면을 통찰하여 지혜의 눈을 밝히면 세상이 더 잘 보이고, 삶이 풍요로워지며 판단력이 넓고 깊어진다. 불교의 가치에 눈뜨는 좋은 기회를 가지라"고 말했다.

법회에 처음 참석한 손현재(동의과학대 전기과 · 21)학생은 "교수님과 친구들의 권유로 가입했는데 법회를 하며 마음이 고요해짐을 느낀다. 좋은 경험이었다"며 소감을 말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교수불자연합회와 대불련부산지부는 '제1회 대학생 매월 금요법회'를 열었다.

범어사 '3차원 정밀 측량' 업무 협약

범어사(주지 수불)와 대한지적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는 4월 9일 범어사 주지실에서 '3차원 정밀측량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적공사는 세계 최고의 3D 스캐닝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무인항공기(UAV)로 취득한 영상을 공간 정보로 융합하고 종합화하는 기술력을 자랑한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적공사는 오는 7월말까지 범어사 대웅전과 관음전, 삼층석탑, 일주문, 팔상전 등에 3차원 정밀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3차원 정밀측량 결과는 문화재의 관리와 복구, 안전진단 및 문화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범어사는 오래 된 역사성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재 보유지로 그 중요도를 인정받아 시범사업지로 선정됐으며 부산지역에서는 처음 실시된다.

하성미 기자

해인사, 4월 27일~28일 팔만대장경 법회

해인사가 4월 27일~28일 '2015호국 팔만대장경 대법회'를 해인사 일대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55회를 맞는 이 행사는 4월 27일 전야법회에서 해인사 율주 인신 종진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장 원철 스님, 백담사 선원장 영진 스님의 법문을 듣는다.

4월 28일에는 '국운 융창, 남북통일, 법륜상전'을 발원하는 행진을 진행한다. 특히, 참석자들이 대장경 경판을 머리에 이고 행진하는 모습은 대장경법회의 하이라이트로 일대 장관을 펼치게 된다.

해인사는 "자랑스러운 한국불교의 문화유산이자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지키고 인류의 평화 및 안정을 발원하는 법회다. 또한 사부대중의 수행 원력과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진정한 호국, 호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대법회가 될 것"이라며 취지를 전했다.

정혜숙 기자

부산 파라미타, '새학기 새 각오로 출발'

4월 4일 범어사에서 발대식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백명숙)는 4월 4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금정중, 해동중 등 20여 학교 500여 학생이 모여 '신입회원 환영회 및 발대식'을 봉행했다.


부산 파라미타 청소년 협회 '신입회원 환영회 및 발대식'

이 자리에는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총재 수불 스님, 부산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백명숙 협회장,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김석조 前 협회장을 비롯해 지도법사 및 각 학교 지도교사들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 날 행사는 개회선언, 신입생 선서, 재학생 환영사, 위촉장 수여, 장학금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신입생들은 선서를 통해 민족문화와 전통을 계승하며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창단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여 참된 인간형을 실현할 것을 다짐했다.

백명숙 회장은 "올해는 부산파라미타가 탄생한지 19년으로 성년을 맞은 나이이다.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파라미타 활동을 통해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밝은 생각, 밝은 행동으로 삶의 질을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석조 前협회장은 23명 학생에게 500여만원의 장학금을 희사하고 격려했다. 발대식 후 참가자들은 범어사에서 마련한 상설무대에서 다도와 단청체험, 초 만들기 등 전통문화 체험행사에 참여 했다.

이번 한해 동안 부산파라미타청소년 협회는 전국 규모의 '대한민국 청소년 합창대회', 문화재지킴이 활동, 해외문화탐방, 지역사회 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보련 기획

✓사찰 직거래 특가 판매 ✓다량 주문시 할인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불교용품 전문회사

| 초파일 용품 |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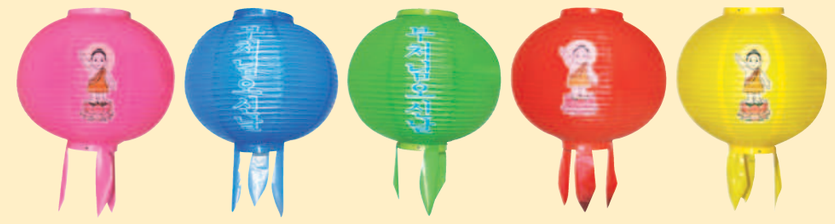
| 연등 자동 승강 장치 |




| 인등시공 |




만 월 등



공 단 등



황 금 등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BORYEON
H·P 010-9446-1862
TEL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교육

한국불교
승가교육 70년

전통 바탕한 승가교육 현대화…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라고 한다. 이는 '인천의 사표' 인 눈푸른 납자를 길러내는 승가교육도 마찬가지다. 시대에 맞는 수행자를 길러내지 못한다면 전법교화도 중생구제의 원력도 실현될 수 없다.

그래서 한국불교사에서 승가교육은 삼국시대부터 있어 왔다. 〈강원총람〉에 수록된 남도영 동국대 명예교수의 논문 '승가교육사와 강원' 에 따르면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유수의 기록에서 삼국시대에 불교교육이 실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숭유억불 정책으로 불교가 탄압되기는 했지만 임진왜란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져 17세기 초중반부터는 '사집-사교-대교' 로 이어지는 이력과목이 제정됐다는 기록도 발견된다.


청암사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이 아이패드를 통해 강의를 듣고 있다. 승가교육 환경과 교재는 시대맞게 변화하고 있다.

근대교육, 승가에도 영향

19세기 이후 서구 문물이 도입되면서 당시 한반도는 빠르게 근대화되어갔다. 근대화는 시대적 요청이었고, 불교계 역시 여러 분야에 걸쳐 개혁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한국불교 최초의 근대식 학교 명진학교의 설립이다. 1906년 설립된 명진학교는 '설립취지서' 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승려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세속의 진리를 배워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기술돼 있다. 이는 승려들이 세속 학문을 배워 세상으로 나아가서 대중을 교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30년대 들어서는 강원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됐지만 강사 자질부터 사회와의 괴리, 교과목 불일치 등의 문제점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후 해방이 이뤄졌지만 6.25 한국전쟁과 불교 내부의 정화운동 등으로 승가교육의 변화나 제도 개선이 진행되지는 못했다.

다만 한국 전쟁 등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일부 강원들이 자체적인 정비와 도제 양성에 힘을 쏟았던 것은 한국불교의 전통이 이어지게 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종단적 교육 토대는 만들었지만

승가교육이 종단적인 체계를 가지고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1962년 통합종단 조계종이 출범하면서부터다. 조계종 통합종단 출범 이래 오늘날까지 포교 · 역경 · 도제양성을 3대지표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1962년 12월 25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에서는 교육법이 처음으로 제정됐다. 이후 1964년 1월 제6회 중앙종회에서는 종비생 제도 시행과 관련된 의결을 했다. 의결 사항 중에는 기존 강원을 존속하고 승가대학 설립 이전까지 동국대가 현대적 교육을 담당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는 총림과 강원의 전통교육과 동국대 종비생의 현대교육으로, 승가교육의 이원화되는 원인이 됐다. 처음에는 '위탁교육' 으로 시작된 종비생 교육 시스템은 차츰 '전담교육' 으로 변화하는 폐해를 양산하기도 했다. 결국 전문적인 승가대학이 세워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교신문〉의 전신 〈대한불교〉 제256호(1968. 7. 14) 사설 '승가대학은 빨리 세워져야 한다' 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승가 교육도 재래식 강원 교육이 아니면 1년에 몇 사람씩 보낼 수 있는 동국대 종비생 정도의 교육을 가지고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중략〉 오늘날 승려는 질서가 확립되지 못하고 종단의 명령이 서지 못하는 것도 엄격히 따지고 보면 승려교육 제도가 실현되지 못한데 있다고 본다."

교육사 한획… 중앙승가대 설립

종단 차원의 승가대학 설립 추진은 1960~70년대를 통해서 이뤄지나 장소나 재정, 교육 방향 불일치 등 여러 이유로 쉽게 성사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원화된 승가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의 탄생은 의식있는 소장파 스님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범산 · 성문 · 화정 · 성우 · 평상 · 도윤 스님 등은

명진학교가 첫 근대적 교육기관
해방 이후 50년대까지 각자도생

조계종단 지표 중 하나로 '도제양성'
본격적인 승가교육 변화 시작돼

1994년 개혁 이후 교육원 별원
기본-전문-재교육 체계 갖춰
내 · 외전 겸비한 수행자 양성 노력
2010년 들어 교과목 일원화 추진
시대에 맞는 승가상 구현 매진

1979년 2월 24일 의정부 소재 쌍룡사에서의 '중앙불교승가학원 설립 발기 모임' 을 가지면서 현재의 중앙승가대학교는 시작된다. 이들은 '한국승가 전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기관을 설립하자' 고 발원했고, 바로 실행에 옮겼다. 같은 해 3월 18일 돈암동 소재 보현사를 학사로 하여 연수부 30명, 교양부 30명의 첫 입학생을 모집하면서 본격적인 학사행정이 시작했다.

1980년 교명을 '중앙승가대학' 으로 개칭하면서 석주 스님을 초대 학장으로 모셨으며, 12월에는 구의동 영화사로 학사를 이전했다. 다시 1981년 안암동 개운사로 학사를 이전했고, 이후 개운사는 20년간 한국 승가교육 중심도량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나가게 됐다.

설립 이후 10여 년 간 비인가 대학으로 존립하던 중앙승가대는 1989년 7월 11일 당시 문교부로부터 각종학교 인가를 취득했으며, 1996년 12월 11일 교육부로부터 정규대학의 인가를 취득하게 된다. 이와 함께 1995년에는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으로서의 인가도 받았다.

2001년 1월에는 김포학사를 완공하면서 본격적인 '김포학사 시대' 를 맞이하게 됐다. 총 대지 면적 53,000여 평에 7개 동의 건물이 들어선 김포학사는 승가인의 수행과 대학인의 교육공간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중앙승가대학교 설립에 대해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퇴휴 스님은 '한국 근현대 승가교육사 연구' 를 통해 "중앙승가대의 개교는 종단 차원에서 성사시킨 일이 아니었지만, 당시 상당수 종단 구성원들의 염원을 바탕하고 있었다" 면서 "중앙승가대의 설립과 성장은 현대승가교육사에 기념비적인 일" 이라고 평가했다.

강원을 지방 승가대학으로

1970~80년대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역사적 흐름이 이뤄지면서 승가교육도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한다. 특히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에 대한 고찰들이 이뤄졌다는 것은 의미를 가진다. 그 결실이 1981년 조계종 총무원이 발표한 '승가학원(강원) 설치령' 이다. 설치령에는 치문 · 사집 · 사교 · 대교과 등 전통강원의 교과과정에 불교사 및 선종사상사를 추가하고, 외국어와 인문학을 선택과목을 이수하도록 했다. 공식적으로 승가교육에서 전통과 현대의 접목을 시도했지만 당시 교육환경은 이를 충족시키에는 역부족이었다.

한국 승가교육의 일대 변화는 1994년 종단 개혁을 통해 이뤄진다. 개혁종단은 총무원의 일개 부서였던 교육부를 1995년 1월 교육원으로 별원해 승격시켰다.

별원화에 즈음해 선원법을 비롯해 △기초선원령 △학림령 △승가대학령 등이 제정됐으며, △교육법 △계단법 △사미.사미니 등의 의제에 관한 시행령 △승가고시법시행규정 △종비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급여규정 △해외유학승 장학금 지급 규정 등 법령과 규정이 개정됐다.

이를 통해 기본교육 4년 의무화와 구족계 이후 승랍 계산 등의 교육 종책이 마련됐다. 결국 기초- 기본-전문 · 특수교육-재교육으로 이어지는 승가교육 체계의 정비가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더욱이 실상사 화엄학림, 봉선사 능엄학림, 은해사 승가대학원, 운문사 비구니 승가대학원, 파계사 영산율원, 봉녕사 금강율원, 불교어산작법학교 등 전문 및 특수교육기관이 대거 설립돼 교육의 깊이를 더했다. 기초교육-기본교육-전문 특수교육-재교육으로 이어지는 승가교육 체계의 정비는 각 단계별 교육내용의 변화와 실행으로 이어졌다.

교육개혁불사, 변화의 시작

1994년 이후 조계종은 승가교육 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해 왔다. 그로 인해 강원이 중흥했고 중앙승가대가 자체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양적인 발전을 달성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중앙승가대, 강원, 동국대가 각기 다른 교육이 난립하면서 교육의 통일성이 완성되지 못했다.

2009년 이후 출범한 조계종 6, 7대 교육원 집행부는 승가교육의 변화를 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했다. 이는 승가교육과정 개편 공청회에서 현응 스님의 발표문에서도 잘 나타난다. 스님은 당시 공청회에서 △승가대학 커리큘럼의 현대화 △한문 위주의 교육에서 한글 중심의 교육을 주장했다. 두 가지 계획 모두 시대에 맞는 승가상을 구현하기 위한 고민의 발로였다.

이를 통해 조계종 교육원은 교재의 한글화, 전통과 현대를 안배한 통일교과과정을 도입하고 일부 강원을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면서, 기본교육 일원화를 상당부분 달성했다. 아울러 종단 차원의 교수아사리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世界佛教 法王廳

세계 곳곳에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국내를 비롯하여
지구촌 후진국 빈민촌의 어둠과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불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군소종단의 통합을 염원하며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하는 한국 군소종단들의 모임체

국제불교지도자협회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ION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상 군소종단들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바로 세우는 밑거름이 됩시다.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종단 지도자 여러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여기 저기 기웃거리다가 자신의 마음에 뜻이 같지 않으면 순식간에 등돌리고 무리져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부실종단 지도자들은 더 이상 먹물 옷을 욕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부실종단이 난립하니 승려의 자질과 역량이 사회와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수행자의 출현이 아쉽다는 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우려 아상과 독선, 옹고집 명예와 권력야욕 벗어 던져 버리고 이제는 초발심으로 돌아가 종단은 다르나 모임에는 통합되고 단결된 종단들이 되어 불교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각자의 본분을 충실히 다져야 합니다. 적으면 적은대로 불교에 누를 끼치는 종단에서 벗어나 불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주역이 됩시다. 가입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단 정식 법인 등록된 종단 및 단체가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대표전화 02)733-5665. 733-5670.
팩 스 02)733-5615. H.P : 011-229-6061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승려교육 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종단활동 지원 가사 통일
단일금강계단 설치하여 합동 품수식 및 합동 수계법회. 단일 합동 고시위원회 활성화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大韓佛教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教 宗團 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教 高僧長老團.
世界佛教 考試委員會. 大韓佛教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元老長老團. 韓國佛教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宗團 人權委員會. 국제붓다봉사단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그늘진 곳에
같이 웃고 같이 울며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하는
봉사단 불자를 모십니다.
불자라면 남,녀 누구나 환영합니다.

교육
한국불교 승가교육 70년

승가 교육환경 질적 변화 '성과'



1995년 1월 조계종 교육원 개원 모습. 94년 종단 개혁의 성과 중 하나였다.


1996년 정식 대학으로 승격된 후 가진 중앙승가대학교 현판식 모습. 한국 승가교육사의 중요한 순간이었다.


조계종 승가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평생교육이다. 이를 위해 교육원은 연수를 상설화 시켰다. 사진은 조계종 승려 연수 중 해외성지순례의 모습.



조계종 승가교육은 6대 교육원 집행부가 출범하며 달라진다. 사진은 조계종 학인들의 염불의례 실력을 키우기 위한 염불시연대회.

조계종 주요 승가교육 연혁

1960~70년대
1962년 4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개원식
1962년 12월 28일 제2회 중앙종회 교육원법 제정
1967년 12월 15일 해인총림 종단 종합수도원 입안
1968년 7월 10일 총무원, 승가대학 설립 간담회 개최
1971년 10월 7일 중앙교육원 개원
1979년 4월 14일 중앙불교승가학원 개강

1980년대
1980년 1월 10일 중앙불교승가학원, 중앙승가대학으로 개칭
1985년 9월 23일 제1회 승가고시 실시
1985년 11월 중앙승가대학, 개운학사 준공
1989년 7월 11일 학교법인 승가학원 설립 허가

1990년대
1990년 2월 27일 중앙승가대학교 각종학교 인가
1991년 3월 승가학원, 4년제 대학학력 인정
1991년 8월 36일 제1기 행자교육원 개원
1995년 1월 13일 교육원 개원
1995년 1월 25일 제1차 교육원 회의
1995년 9월 15일 중앙승가대학교 김포학사 기공식
1996년 11월 20일 제1차 기초교육개혁추진위원회 회의
1996년 12월 11일 중앙승가대학교 정규대학 승격
1998년 2월 10일 교육원 승가위계확립을 위한 담화문
1999년 8월 9일 제1차 행자교육원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2000년대
2000년 7월 18일 제1차 고시위원회 회의
2000년10월 24일 교육원, 강원 교과과정 개선안 확정
2001년 3월 13일 중앙승가대학교 김포학사 준공식
2001년 3월 22일 제1회 5급 승가고시 시행
2001년 3월 27일 제1회 외국인스님 불전의식 교육
2001년 4월 2일 제1회 4급 승가고시 시행
2001년 4월 12일 승가교육진흥위원회 발족
2001년10월 29일 제1회 3급 승가고시 산림
2002년10월 21일 제1회 외국인 승려 기초선원 교과 안거 시행
2003년 3월 3일 서울불교전문강당 개원
2004년 7월 1일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원회 구성
2005년 5월 4일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원회 제도 개선 공청회
2005년12월 9일 제1회 전국강원 학인논문 공모전 발표
2006년 9월 11일 사이버 불교대학 오픈
2010년 4월 5일 제1차 승가교육진흥위원회 회의
2010년 6월 28일 연수 강좌 주제 확대 시행
2010년 9월 28일 출가 사이트 오픈
2010년 11월 4일 제1회 2급 승가고시 시행
2011년 3월 4일 종단 교수아사리 위촉
2011년 3월 17일 제1회 외국인 행자교육원 운영
2011년 3월 25일 국제불교학교 개교
2011년 4월 27일 교육불사 후원의 밤 개최
2011년 9월 30일 직할교구 주지스님 연수교육
2012년 1월 18일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 개교
2012년 3월 1일 이러닝 동영상 강의 시작
2012년 5월 기본교육기관 한글염불의례 교육 첫 시행
2012년 7월1~9일 제1기 청년출가학교 개설
2013년 3월 20일 삼장원 · 염불원법 제정
2013년 6월 22일 제1차 교육아사리 포럼
2014년 7월 17일 조계종 학인염불대회 첫 개최
2014년 10월 10일 2급 승가고시 첫 설법 시연

를 위촉하고 종단 장학위원회를 통한 장학 특전을 대폭 확대하면서 학인들에게 양질의 수업환경을 제공하고, 종단의 목적사업에 활용할 인재 양성에 주력했다.

실제로 2011년부터 치문, 사집, 사교, 대교로 나눠진 강원 교과는 학년제 바뀌었고, 초기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불교와 동서철학, 영어, 컴퓨터, 인문 교양 등 교과목의 변화도 있었다. 모든 교재들은 한글 교재로 전환됐다.

이밖에도 △출가자 확대 위한 제도 개선 △행자교육 체계화 △승가고시 확대 추진 △연수교육 상설화로 평생교육 추진 등도 성과다.

현재 조계종 교육원은 원장 현응 스님의 재임으로 승가교육 혁신 사업의 심화 · 안정기에 들어갔다. 7대 교육원은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난 5년간 추진해온 승가교육 혁신 사업을 심화 · 확대시켜나간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교육원은 승가대학 표준교과과정을 36과목에서 34과목으로 조정하고, 동영상 교육 콘텐츠를 추가 제작한다. 또 교육행정 서류철을 간소화하고 연 2회 학장스님 간담회 및 워크숍을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종책에 반영한다. 교육기관 학점제도 추진된다. 그간 개별 교수사 스님들의 코멘트에 의존했던 평가가 아닌 학점제를 도입해 교육 평가의 내실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산화를 통한 행정 ·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사업도 진행된다. 교육원은 2016년부터 4급 승가고시를 전산화해 접수, 채점, 사정 등이 가능케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육원이 운영하고 있는 △출가 △연수 △이러닝 학습센터 사이트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인트로 페이지를 1월 중 개설한다.

지난해 종단 안팎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학인 염불시연대회는 격년으로 치르고, 올해는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스피치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 종단 사상 처음 열리는 학인 대상 외국어 스피치 경연대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5분간 설법이나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오는 10월 경 열린다.

현응 스님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난 5년 간 교육원이 추진한 각종 승가교육 사업이 현대적 승가상 구현에 있었다면 향후 5년간 열어가고자 하는 교육원의 사업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유지하고 심화 · 확대하는 데 있다"며 "각종 사업은 최종적으로 불교의 양대 덕목인 '지혜'와 '자비'로 회향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각 종단 도제 양성은?

태고종의 도제 양성 과정은 조계종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행자가 삭발 염의하고 오계 및 삼귀의계를 받으면 행자등록신고서를 작성하여 지방교구종무원를 경유해 교무부에 제출한다. 이후 행자는 정수원(행자교육원)에 들어가 교육 받는다. 이후 사미 · 사미니계를 받고 강원 등에서 수학한다. 태고종은 태고총림 선암사 강원과 동방불교대학을 운영하며 도제를 양성하고 있다.

천태종은 총본산인 구인사가 곧 종단 도제 양성의 모체이다. 천태종으로 출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산대기자가 돼 공양을 담당하는 배식부나 농장에서 종정 스님의 허가가 날 때까지 수행을 한다. 이후 입산 허가가 나면 행자가 돼 강원과 염불의식을 이수한다. 3년 과정을 마치면 종정 스님의 면담을 통해 최종 출가 여부가 결정되고 수계 교육 받은 후 법명과 도첩, 계첩, 가사, 법모를 받게 된다.

관음종은 교육체계는 득도 교육, 구족계교육, 정기교육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수립돼 있다. 기본교육과정은 행자 교육으로 본말사에서 수행 중이며 서울불교 문화대학의 불교학과 6개월 과정을 졸업해야 한다. 또한 정기 교육을 통해서 종단 스님들의 재교육의 장을 만들어 주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香 물들이는 사람 몸에 향기 배이듯…

원통문에 든 25성자 '수능엄경'에서 만나다

〈5〉 7대원통(七大圓通)-2

7대란 지 · 수 · 화 · 풍 · 공 · 견 · 식의 작용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갖가지 수행법이 다향히 제시된다. 6진, 6근, 6식, 7대 원통을 모두 들은 부처님은 문수보살에게 어떤 방편이 좋겠느냐며 물으시고, 방편법을 펼친다. 7대 원통을 살펴보고 세속의 오탁을 씻어내는 계기로 삼아봄이 어떨까. 〈편집자 주〉



그림 · 최주현

허공장 보살

허공장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예를 다하고 부처님께 사뢰었다.

虛空藏菩薩 卽從座起 頂禮佛足 而白佛言

저는 허공이 한량없음을 관하여 삼마지에 들어가 오묘한 힘이 원융하게 밝아지는 것을 수행의 계기로 삼는 것이 최상입니다.

저는 여래와 함께 정광불 처소에서 무변신을 얻었사옵니다. 그때 손에는 네 개의 큰 보배구슬을 들고, 시방의 먼지처럼 많은 부처님 세계를 비춰 밝히니, 모두 허공으로 변하였사옵니다. 또 제 마음에 크고 둥근 거울이 나타나서 열 가지 미묘한 보배광명을 비추고 시방의 온 허공의 경계를 두루 비추니, 모든 높이 솟은 세계들이 거울 속에 들어와서 제 몸으로 스며들었으나, 몸이 허공과 동일하여 서로 걸리거나 막히지 않았사옵니다. 이렇게 걸림 없는 몸으로 티끌처럼 많은 국토에 거침없이 들어가서 널리 불사佛事를 행하며 순조롭게 따르는 큰 능력을 얻을 수 있었사옵니다.

이 크고 신비한 힘은 제가 자세히 관찰하니 4대는 의지할 곳이 없고 허망한 생각으로 생멸할 뿐, 허공과 둘이 아니며 불국토도 예외가 아니었사옵니다. 동일한 이치를 밝혀서 무생법인을 얻었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로는 허공의 끝없는 이치를 관찰하여 삼마지에 들어가서 묘한 힘을 원만하게 밝히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옵니다.

我與如來 定光佛所 得無邊身 爾時手執四大寶珠 照明十方

微塵佛刹 化成虛空 又於自心 現大圓鏡 內放十種 微妙寶光

流灌十方 盡虛空際 諸幢王刹 來入鏡內 涉入我身 身同虛空

不相妨 u身能善入 微塵國土 廣行佛事 得大隨順 此大神力

由我諦觀 四大無依 妄想生滅 虛空無二 佛國本同 於同發明

得無生忍 佛問圓通 我以觀察 虛空無邊 入三摩地 妙力圓明

斯爲第一

미륵 보살

미륵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예를 다하고 부처님께 사뢰었다.

彌勒菩薩 卽從座起 頂禮佛足 而白佛言

저에게는 시방세계가 오직 유식을 관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식심이 원융하게 밝아져 분별과 망상이 소멸된 상태에서 드러나는, 있는 그대로의 청정한 모습에 들어가 온갖 분별에서 벗어나 무생인을 얻어 수행의 계기로 삼는 것이입니다.

저는 지난 옛 미진겁의 일을 생각해 보니, 일월등명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셨을 때, 저는 그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였으나, 마음에 세상의 명예를 중히 여겨 귀족들과 사귀기를 좋아하였사옵니다.

이때 그 세존께서는 저에게 '유심식정을 수행하여 삼마지에 들어가라' 고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여러 겁을 걸쳐 이 삼매를 닦으면서 항하의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을 모시는 사이에, 세상의 명예를 구하는 마음이 말끔히 사라져버렸사옵니다. 그러다가 연등불께서 세상에 나오셨을 때, 저는 비로소 무상한 묘원식심삼매를 성취하여, 온 허공과 여래와 국토의 깨끗함과 더러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모두 제 마음이 변화하여 나타난 경계임을 알았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와 같이 오직 심식뿐이기 때문에, 식의 성품이 한량없는 여래를 유출시키는 것을 알았사오며, 지금은 '다음 부처님의 자리를 이으리라' 는 수기도 받게 된 것이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로는 시방이 유식임을 자세히 관찰하여 심식이 일체법을 원만하게 밝히고, 원만하게 진실한 성품을 성취하여 의타기성과 변계소집성을 멀리 여의어 무생법인을 얻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옵니다.

我憶往昔經微塵劫 有佛出世名曰月燈明 我從彼佛 而得出家

心重世名 好遊族姓 爾時世尊 敎我修習 唯心識定 入三摩地

歷劫已來 以此三昧 事恒沙佛 求世名心 歇滅無有 至然燈佛

出現於世 我乃得成 無上妙圓 識心三昧 乃至盡空 如來國土

> "허공장 보살 '허공이 한량없음 관해'
> 미륵 보살 '유식을 관해 시공간 초월'
> 대세지 법왕자 '육근 취합, 청정 수행'"

淨穢有無 皆是我心 變化所現 世尊! 我了如是 唯心識故

識性流出 無量如來 今得授記 次補佛處 佛問圓通 我以諦觀

十方唯識 識心圓明 入圓成實 遠離依他 及遍計執 得無生忍

斯爲第一.

대세지 법왕자

대세지 법왕자가 그가 동반한 52위보살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大勢至法王子[菩薩] 與其同倫 五十二菩薩 卽從座起 頂禮佛足 而白佛言

저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육근 모두를 섭수하여 청정한 생각이 지속되어 삼마지에 드는 것을 수행의 계기로 삼는 것이 최상입니다.

저는 지난 옛 갠지스 강의 모래와 같은 겁의 일을 생각해 보니, 그때 무량광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을 때, 열 두 여래께서 1겁(劫)마다 나오셨사옵니다. 그 마지막 초일월광부처님께서 저에게 염불삼매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비유하면 한 사람은 오로지 기억하여 생각하는데 한 사람은 아득히 잊고 있다면, 이러한 두 사람은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니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두 사람이 서로 기억하여 기억하는 생각이 깊어야만 태어날 때마다, 형체를 그림자가 따르듯, 서로 어긋나지 않으리라. 시방 여래께서 중생을 생각하여 가엾게 여김은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같은데, 만일 자식이 달아나 버린다면, 생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머니를 생각하는 자식의 마음이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을 때, 어머니와 자식은 여러 생을 지날지라도 어기거나 멀어지지 않으리라.

만일 중생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여 염불한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을 뵙거나, 부처님과의 거리가 멀지 않으며, 방편을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 마음이 열리느니라. 마치 향을 물들이는 사람이 몸에 향기가 배이는 것과 같으니, 이를 향광엄장이라고 하느니라' 고 하셨사옵니다.

저는 본래 첫 수행할 때 염불하는 마음으로 무생법인에 들었사오며, 지금은 이 세계에서 염불하는 사람을 거두어 정토(淨土)로 돌아가도록 이끌고 있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로는 따로 고를 것 없이 여섯 감관을 모두 거둬들여 청정한 생각을 계속 이어 삼마지를 얻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옵니다.

我憶往昔 恒河沙劫 有佛出世 名無量光十二如來 相繼一劫

其最後佛名超日月光 彼佛敎我念佛三昧 譬如有人 一專爲憶

一人專忘 如是二人 若逢不逢 或見非見 二人相憶 二憶念深

如是乃至 從生至生 同於形影 不相乖異 十方如來 憐念衆生

如母憶子 若子逃逝 雖憶何爲 子若憶母 如母憶時 母子歷生

不相違遠 若衆生心 憶佛念佛 現前當來 必定見佛 去佛不遠

不假方便 自得心開 如染香人 身有香氣 此則名曰 香光莊嚴

我本因地 以念佛心 入無生忍 今於此界 攝念佛人 歸於淨土

佛問圓通 我無選擇[我以無擇]都攝六根 淨念相繼 得三摩地

斯爲第一

大佛頂萬行首楞嚴經卷第五

이 글은 최근 이수덕 박사가 〈세계와 중생이 생긴 내력을 말하다〉로 편역한 '수능엄경' 에서 발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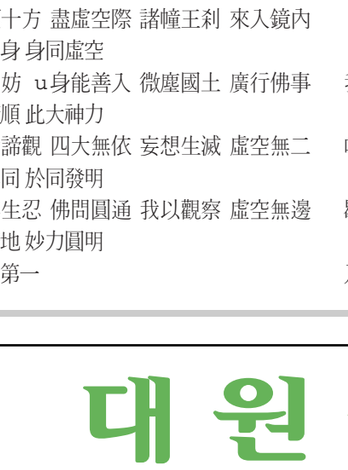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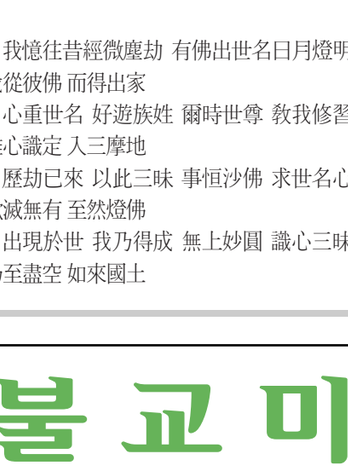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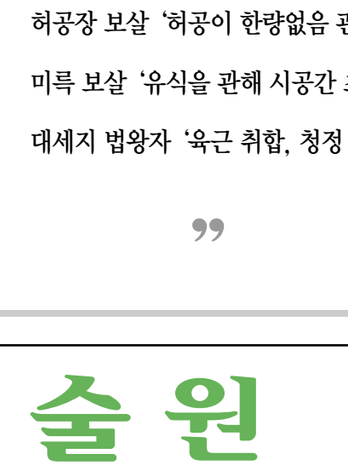
대원불교미술원

청동불사 조성(제작) 전문

청동불상, 개금, 탱화, 단청 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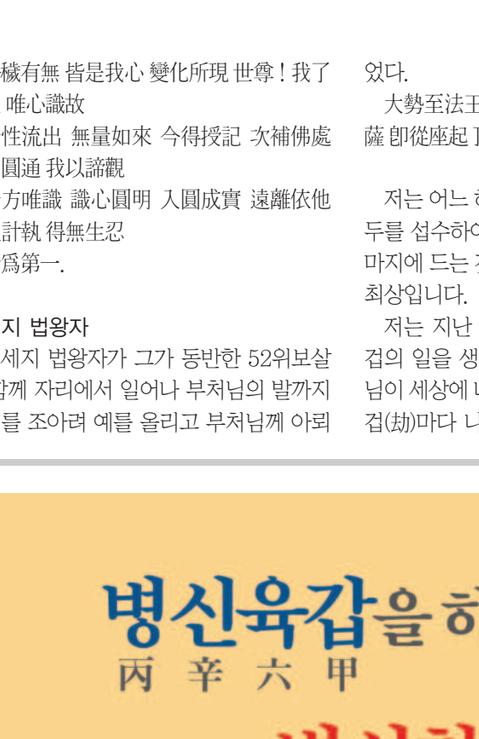
진실과 원칙, 최고의 재료로 부처님 조성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 많은 조언과 믿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스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 임영달 합장

경기 포천시 내촌면 진목 1리 915-14
전화 031)532-3722 | 010-7171-2636 | 팩스 031)533-3722
이메일 lyd5798@naver.com

병신육갑을 하면 천당 가고,
丙 辛 六 甲
병신칠갑을 하면 지옥간다.
病 神 漆 甲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한 필독서!
민족종교와 문화를 지키기 위한 필독서!
국가와 민족과 가정을 위한 필독서!

나 한사람의 방관도 깨닫고
다른 이웃의 방관을 깨닫게 합시다.

김종성 씀 / 값 17,000원(전면 칼라판)
불교서적 총판 운주사 (02-3672-7181) 서점에 있음. 다량주문(010-2465-1357)

고도의 비유, 부처님 가르침 이해를 높여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13. 비유(譬喩)에 대해서 ㊦

이해로 인도하기 위해서

붓다가 이러한 비유에서 기대한 역할(役割)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이며 붓다의 비유 가운데서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올바른 교법의 이해로 〈인도(引導)하는 것〉이란 역할이다. 예를 들면 앞서 말한 《전유경(箭喩經)》의 비유《포유경(布喩經)》의 비유는 모두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예를 들면《전유경》에서 독시(毒矢)의 비유로써 인도를 받은 마룽규야(마라가)는 철학을 좋아하는 제자였으며 여러 가지의 철학적 과제(課題)에 흥미가 많았다. 그에게 대해서 이 스승은 이렇게 말하였다.

"마룽구야여, 여기에 어떠한 사람이 있어서, 독화살을 맞았다고 하자. 그의 친구는 그를 위해서 의사(醫師)를 불러오리라. 그러나 그는 나를 쏜 자는 누구인가. 활은 어떠한 활인가. 그 화살 자루는 어떠하며 화살의 날개는 어떠하며 화살의 끝 모양은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것을 모두 알기 전에는, 이 화살을 뽑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아마 그러한 것을 모두 알기도 전에 생명은 끊어지고 말리라."

이 비유설법에 의해서 그는 무엇이 출가본래(出家本來)의 목표였던가를 생각하며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다. 여러 가지의 철학적 과제에 흥미를 갖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수고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사제설법을 전심(專心)으로 받들며, 전심으로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

붓다는 자주 그러한 역할을 비유에 두었다. 이때까지의 입장을 떠나서 새로운 입장을 지킨다. 오래된 견해를 버리고 새로운 견해를 취한다.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그러한 입장의 전환이다. 바깥으로 향한 눈을 내 안쪽으로 전환한다. 생천(生天)의 소원에 잡혀있던 마음을 인간완성의 소원으로 돌린다. 욕망의 끝없는 충족으로 향하였던 생활을 전화하여 정법수순(正法隨順)의 생활로 향하게 한다.

이러한 전환은 쉽게 행하기가 어렵다. 그 지극히 어려운 전환의 인도(引導)가 자주 비유의 역할로써 쓰인 것이다.

힘을 주기 위해서

또 하나 비유의 역할은 '올바른 교법의 증득(證得)을 위해서 힘을 준다' 는 점이다. 무상(無常)이란 것은 이 스승에 의해서 끊임없이 설교된 것 가운데 하나이다. 무아(無我)라는 설법도 이제는 귀가 아플 정도로 들어온 것이다.

혹은 또 욕망의 무서움에 대해서도 이제는 너무 들어서 듣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결코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지 그러한 것들이 아직도 몸에 익숙하게 붙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한 심경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잘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때 비구들에게 힘을 주며 백척간두(百尺竿頭)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힘을 주는 것으로써는 먼저 이 스승의 솔선수범(率先垂範)이 있다. 비구들은 스승의 수범을 우러러보며 이 스승을 생각함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착한 친구 선지식(善知識)의 격려가 있었으며, 세 번째로는, 교법의 억념(憶念)이 있었다.

그리고 이 스승은 또한 여러 곳에서 교묘한 비유(譬喩)를 즐겨 말함으로써 우리들에게 그가 가르치는 바를 더욱 인상 깊게 하였으며 그 제자들의 전인격(全人格)을 흔들며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도록 하였다.

무상의 이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손톱 위에 올린 흙을 가리키면서 또 다시 한번 그 이치를 설명하였을 때 그들은 새로운 생각으로 그 이치를 본 것이 아닐까. 무아(無我)의 이치도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파초의 비유로써 다시 또 한 번 그것이 설명되었을 때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이해가 얼마나 피상적(皮相的)인 것이었는가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스승의 비유에는 언제나 이러한 역할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우리들도 또한 이러한 생각으로 이 스승의 비유를 읽으며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상을 비유적으로 말하다

그러나, 여기에 덧붙여서 매우 중요한 점을 하나 더 지적하고 싶다. 그것은 이 스승의 가르침을 구성하는 중심관념(中心觀念)이 심히 자주 반복하여, 비유로써 표현되었다는 사실에 관해서이다.

열반(涅槃, Nirvana)이란 말도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이다. 피안(彼岸, para)이란 말도 그러한 낱말에 속한다. 열반이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불이 꺼진 상태로서 비유적으로 표현된 인간의 구극(究極) 이상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피안이란 이상의 경지를 무지(無知)와 악업(惡業)에 빠져있는 일상성(日常性)의 저 멀리에 있는 대안(對岸)에 정(定)하면서 저 언덕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었다.

《목우자소경(牧牛者小經)》이라는 제목의 경전은, 갠지스의 강둑에 서있던 붓다가 소떼를 몰고 강을 건너는 목동을 비유로 하여, 어떻게 하여 이상의 대안(對岸)에 도달할 수 있을까를 설명하고 있는 아름다운 경전이다. 거기에서 차안(此岸)이란, 글씨 그대로 지금 그가 서있는 이 언덕이며 피안(彼岸)이란 명백히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저 쪽의 언덕으로서 그들의 이상의 피안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찌하여 이러한 중요한 관념을 비유로써 표현한 것일까. 그 이유는 먼저 이러한 관념의 본질 그 자체 속에 있었다. 그러한 관념은 우리들의 일상성(日常性)을 훨씬 너머서 저쪽에 있다. 그것들은 아직도 우리들에게는 실현되지 않는 이상의 세계이다. 이러한 관념을 규정하는데 있어 만일 우리들의 일상성에서 때 묻은 말로써 표현한다면 어떠할까.

예를 들면 열반을 규정하는데 있어 자유(自由)라는 말을 쓸 수도 있다. 혹은 피안의 생활을 규정하여 안락(安樂)이란 말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일상성의 자유이며 타락(墮落)한 안락이 아님을 누가 어떻게 하여 보증할 수 있겠는가.

그 위험을 피하면서 능히 이상의 당체(當體)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먼저 소극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말하며 일상성(日常性)의 더러운 때를 씻어내는 일이고, 더 적극적으로는,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새로운 이념의 형성을 유도(誘導)하는 일인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까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관념이 비유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관념을 표현하는 술어는 어디까지나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그치는 것이며, 환상(幻想)또는 망상(妄想)을 그리며 보여주는 말이 아님을 주목하여야 할 줄 안다. 예를 들면 고대 인도의 종교에 있어서 '생천(生天)' 을 말할 때, 그 천(天)은 그들의 환상 속에 있으며 결코 비유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 또 예를 들면 구라파의 종교에 있어서 '신(神)의 나라' 라는 것이 있으며 '천사(天使)' 가 이야기될 때, 그런 것은 단순히 비유적으로 말한 것은 아닐 것이다.

환상에 의해서 말하며 망상에 의해서 인도(引導)하는 것은 종교가 가끔 빠져 들어가는 폐단(弊端)이다. 후세의 불교인들도 가끔 이러한 폐단을 범했다.

그러나 붓다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인간 이상의 경지가 어디까지나 부정적으로 말해지며 분명히 비유적으로 지적되며 제시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또한 불교라는 위대한 가르침의 성격에 퍽 어울리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부처님에게 설법을 듣고 제자가 된 다섯 비구가 법륜에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비유는 부처님 설법에 중요한 수단이다.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함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선 · 악행이 순간에 그치는가

문 그대의 말이 진실로 나를 격발하였다. 그러나 착함을 행하고, 악함을 행함이 어찌 여기에 그칠 뿐이겠는가

답 〈응험록(應驗綠)〉에 말하였다.

근세(近世)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일찍이 부모를 잃고 오직 숙부(叔父)만 계셨다. 숙부에게는 일곱 아들이 있었는데, 관례(冠禮)를 행함에 미쳐 숙부가 조카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전답의 문서를 나누어 줘야겠다."

조카가 말하였다. "그 산업(産業)을 어떻게 처리 하시렵니까. 여덟으로 나누어 모든 형제가 함께 일분(一分)씩 해야 됩니다. 만일 나누어 둘로 한다면 진실로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다."

숙부가 굳이 사양해도 조카가 애써 그렇게 하여 마침내 8등분했다. 겨우 열일곱 살이 되자 지방 수령의 추천에 끼여 경사(京師)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때에 여관(旅館)을 함께 한 자가 이십 여 무리가 되었다. 어떤 술사(術士)가 두루 보면서 말하였다. "남궁(南宮)의 높은 급제(及第)는 오직 이 소년뿐이다."

모든 공사(貢士)들이 다 술사를 배척하며 말하였다. "너는 왜 잘못을 저지르는가. 우리들은 다 큰 솜씨로 오랫동안 시험장을 경유했는데, 어찌 한 젖비린내 나는 아이만 같지 못하겠는가."

술자가 말하였다. "문장은 내가 알 바 아니다. 다만 이 소년은 음덕(陰德)의 기운이 얼굴에 가득하니 반드시 적선(積善)의 소치일 것이다. 합격자를 발표한 방(?)을 내거는데 미쳐서는 과연 홀로 이름을 이루었고, 나머지는 다 낙제(落第)를 하였다 했는데, 겸양이 이익을 받은 까닭이다"고 하였다.

달을 넘기고 다시 당도해 보니 또한 여전하므로 위가 칭찬하고 그에게 상을 내렸다. 뒷날 다시 왔는데 곧 낭자함만 보이고 목욕물을 찾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얻을 수 없으므로 성질을 내며 주원승(主院僧)을 꾸짖어 말하였다. "지난날 왔을 때는 그 수고로움이 저와 같더니, 지금에 와서는 어찌 그 태만함이 이와 갔은가"

스님이 말하였다. "지난날 위께서 오실 때는 제가 미리 꿈을 꾸었는데 흰 옷을 입은 신인(神人)이 아뢰어 말하기를 '다음날 상공(相公)이 이를 것이다' 하므로 목욕물을 준비하였습니다만 금일 위께서 오실 때는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낭자한 것이지 감히 태만한 것은 아닙니다."

위가 그 신의 형상을 물으니 곧 본청(本廳)의 토지신(土地神)이므로 즉시 스님의 말을 취하여 본청으로 돌아가 장소(章疎)를 갖추어 상제(上帝)에게 아뢰어 말하였다.

"모(某)가 과연 재상의 위(相位)가 있다면 차례로 삼회(三回)를 하였는데 어찌 보답하지 않으시며, 모가 과연 재상의 위가 없다면 신이 합당히 나를 속이고 사람을 현혹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장소를 아직 아뢰지 않고 문득 잠이 들어 또 꿈을 꾸었는데 그 신이 말하였다.

"그윽이 상제(上帝)의 녹적(錄籍)을 엿보고 위가 상공이 될 분수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문서를 조사하여 아뢴 것입니다. 위가 근래에 잘못된 법으로 거느리며 평인(平人)을 장살(將殺)하여 음덕(陰德)을 손해함으로서 녹적(錄籍)을 담당한 자가 천명(天命)을 받들어 이미 상위(相位)를 삭제해 버렸으니, 마땅히 보고 살피시어 부질없이 나를 허물하고 장주(章奏)를 일삼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는 가득차면 손해를 부르는 까닭이다. 또한 더구나 은혜를 잊고 저민 고기를 받음으로써 두 팔이 떨어짐이 곰이 찍은 것이 아니며, 의(義)를 등지고 삶을 잔해함으로써 창자와 밥통이 함께 무너짐을 어찌 사슴이 한 바라 하겠는가. 이는 다 명명(冥冥)한 감응(感應)의 필연적인 것이라 하겠다.

곡식 다섯 알을 도적질함으로써 해서 일세(一世)동안 소가 되었으며, 황금 열냥을 받음으로 해서 녹(祿)이 끊어진 지가 여러 해가 되었으니 악이 비록 적지만 방종해서야 되겠는가.

세상에 부귀의 위치에 처한 자가 문득 말하기를 '분수로 정해진 것이다' 하고 의리를 따르지 않으니, 자못 화복이 마음을 따라 번역하여 오랫동안 보존하기 어려움을 알지 못함이로다. 슬프다 삼가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 '운명은 정해졌다' 여겨 의리 따르지 않으니 통탄할 따름

디자인 등록원

장인이 만든 명품 청동 촛대세트

현 불 샵 단독입점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cm×21cm (中) 41cm×21cm (小) 35cm×21cm
	거북이	(中) 41cm×21cm (小) 35cm×21cm
향로	거북 용두	(大) 28.5cm×34cm (中) Ⓐ 21.5cm×29cm (中) Ⓑ 18.5cm×23cm (小) 15.5cm×18cm
다기	다기	(大) 26cm×20cm (中) Ⓐ 22cm×14cm (中) Ⓑ 20cm×13cm (小) 17cm×12cm
향통	원형	(大) 15.5cm×7.5cm (小) 11.7cm×5cm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부산불교 전법의 영원한 현역…

현익채 법사 (前 금정중학교장)



현익채(無心) 법사는 … 1971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장을 맡아 청년 포교 활동에 힘써왔다. 부산불교홍법회 회장, 부산 최초의 부산어린이회인 법륜불교어린이회 조직, 부산불교지도위원 회장 등을 역임했다. 조계종립학교인 금정중학교에서 37년간 재직하며 교법사 및 교장으로 재직했으며, 부산불교 교육대학 총무처장 및 운영위원장, 부산불교신도회 임원, 재단법인불심홍법원 사무국장 중요단체의 실무를 맡아 부산불교 대중화에 헌신하기도 했다. 이후 13개 불교신행 단체 창립에 산파 역할을 담당했다. 〈부산불교총람〉 등 16권의 저서를 냈으며 최근에는 〈부산불교 100년의 발자취〉를 정리해 부산불교 역사와 현황 파악에 큰 업적을 남겼다. 부산불교인 대상, 홍법대상, 조계종 포교대상(원력상),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상 등을 수상했다.

'걸어 다니는 부산불교 백과사전' 이라 불리는 현익채 법사(前 금정중학교 교장 · 65)를 4월 2일 부산 금정산 법해사에서 만났다. 부산대 재학시절 대학생 불교연합회 활동으로 시작해 13개 불교단체 창립을 주도하는 것은 물론, 16권의 저술활동 등으로 부산 불교의 역사를 총망라해온 그는 46년 오직 전법의 길을 걸어왔다. 학교 업무를 마치고도 하루에 두 개 이상의 단체를 돌보며 소임을 다해온 그의 삶은 불교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그저 좋아서였다고 한다. 생사를 가르는 병마의 고통을 이겨내면서도 꿋꿋이 전법의 길을 걸어온 현익채 법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부산 불교의 역사를 정리하다

현 법사의 적지않은 포교 인생 중에 가장 큰 업적을 꼽으라고 하면 부산 불교의 역사를 정리한 저술활동을 들 수 있다. 1975년부터 현 법사는 〈부산시대 대학생불교연합회 10년사〉 〈부산불교안내〉 〈부산불교총람〉 〈간추린 부산불교50년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 40년의 발자취〉 〈금정중학교 100년사〉 〈백년의 숨결 천년의 향기〉 〈정진 30년〉 〈교육의 길 전법의 길〉 〈부산불교 100년의 발자취〉 등을 발간했다.

"1971년 기본 예불문과 불교 상식이 포함된 대불련 회원 수첩을 처음 만들었어요. 반야심경 등이 포함되어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책이었죠. 이후 고우익 법사와 함께 펴낸 〈불자 신행의 길잡이〉 〈부처님 만남은 기쁨이어라〉 등의 공저를 포함해 16권의 책을 내게 되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부산불교총람〉이에요. 당시, 여러 단체의 일을 맡다보니 행사가 많았어요. 안내서 발송을 해야 하는데 정리된 파일이 전혀 없었죠. 매년마다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행사계획서와 문서 발송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해보자는 의도에서 〈부산불교총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 발간한 〈부산불교총람〉은 사찰은 물론 불교용품점까지 불교와 관련된 사찰과 단체를 총망라했다. 부산 시내 748개의 사암과 431개의 불교단체 현황을 정리한 이 책은 부산 불교 단체의 임원 법회 현황 연락처 등을 총정리한 부산불교의 현주소를 집대성한 자료집이었다.

"사찰마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 자료를 요청했어요. 물론 안면이 있는 사찰에서는 자료를 주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훨씬 더 많았죠. 서적 외판원 취급을 받고 쫓겨나기 십상이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간판에 적혀 있는 상호와 전화번호를 적으며 포기하지 않았죠. 책이 나온 후 불교 용품점에 발간된 책을 보시하니 상인들 대부분이 오해했다며 사과의 인사를 했죠."

그렇다면 그는 이런 수모를 감당하면서까지 왜 기록에 매달렸을까? "불교 중흥을 위해서죠. 포교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모으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면 곳곳에 숨어 있는 정보도 찾아낼 수 있었고 어떤 냉대도 감내할 수 있게 되죠. 곳곳을 찾아다니며 확인하고 기록하고 정리했어요."

검박한 성격인 그는 평생 그 흔한 자가용도 갖지 않았다. 버스와 지하철 혹은 도보로 대여섯번씩 방문해 정보를 확인했다. "정보가 없는 곳은 재차 확인하기도 했고 알음알음으로 물어 역사를 정리해 분류하고 정리했어요."

지금도 그의 자료는 정확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시중에 떠도는 정보를 그대로 믿지 않고 눈으로 반복해 확인했기 때문이다. "글재주도 시원찮고 여러모로 수행도 부족한데 원력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책을 낼 수 있었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의 화두는 '부산불교중흥' 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불법 홍포에 기여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죠."

병중에도 불사를 잊지 않았다

그의 인생에도 큰 시련이 있었다. 1994년 건강이 극심하게 나빠지더니 급기야 피를 토했다. 위암이었다. 정신없이 책출간에만 몰두하다보니 건강을 살피지 못했던 것이다. 다행히 수술은 잘되어 완쾌했으나 몸무게가 15kg이나 빠졌다.

대불련 시절 범어사 수련회 예불서 발심
전법의 길 발원… 졸업 후 '홍법회' 만들어
1997년 부산 최초 '법륜어린이법회' 조직
어린이 포교 교재인 〈법회교본〉도 발간

직장직능 불교단체 13개 창립 산파 역할
부산불교역사 정리 정념… 16개 저서 발간
동산대종사 50주기 추모집 발간 편집위원

"밤늦게까지 불교 일에 매달렸고 너무 골몰한 탓에 병이 난 거죠. 처음 병이 나서 수술하고 입원해서는 도반들 300여 명이 병문안을 왔어요. 도반들이 완쾌를 기원하는 법회를 열어 줄 정도로 많은 격려를 해줬어요. 하지만 이후로 17년간 잘 지내다가 금정중 교장 재직시 여러번 생사를 넘는 병마의 고통을 겪으며 네 번의 장폐색으로 입원도 하며 병원신세를 졌어요. 하지만 자식들한테도 알리지 않을 만큼 조용히 치료를 받았어요. 첫 번째 수술은 본의 아니게 많이 알려져 위로를 받았지만 여러번 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물론 수술을 하고 병이 재발할 때마다 두려움이 일어났다. 그럴 때마다 병원 법당에서 108배 기도를 하며 번뇌를 잠재웠다. "기도 정진 덕분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 탓인지 수술 후 회복도 빨랐어요. 위암 수술 일주일만에 밥 한 그릇을 다 비우니 주치의가 놀랄 정도였죠. 아프다고 쉬지 않았어요. 제 소임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주어진 일들을 계속 이어나갔죠."

물론 그의 병은 아직 완쾌는 되지 않았다. "오장육부가 성치 않아요. 식사나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수시로 검진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삶은 덤이라 생각해요. 아직 불교를 위해 더 일하라는 의미로 알고 기꺼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 부산불교 100년의 발자취 〈물처럼 살거래이〉의 발간은 그의 이런 의지를 잘 보여준다. 1913년부터 2013년까지 부산불교의 역사와 사진, 스님과 재가자들의 활동, 불교 신행 단체와 봉사 단체의 활동 내용을 361페이지의 책에 꼼꼼히 기록했다. 정금강행 보살의 뜻을 계승하고 정관 대종사의 보살핌이 있었지만 이 책은 현 법사였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청년 현익채 불교를 만나다

현 법사와 불교의 만남은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대 불교학생회에 참석하게 된 그는 매주 법회와 수련대회에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범어사 새벽 예불의 감동은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당시, 범어사로 수련회를 가서 성수 스님, 고산 스님, 양국 스님, 성우 스님 등의 열강을 들었죠. 무엇보다 대중스님들과 새벽 예불을 드리며 느꼈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목탁소리 범종소리, 그리고 스님들과 함께했던 예불. 심장이 뜨거워졌죠.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이후 그는 대불련 부산지부 총무 소임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불교계 일을 시작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련회는 1970년 해인사 대불련 부산지부 제 4차 수련대회였다고. "수련회를 계획하면서 당시 해인사 주지였던 지관 스님께 협조 공문을 보냈어요. 지관 스님이 친서로 환영의 회신을 보내주어 수련대회를 갈 수 있었어요. 고암 스님의 법어와 수계증 수여, 성철 방장스님 친견, 일타 스님, 지월 스님, 지관 스님, 홍교 스님, 수산 스님의 설법을 들을 수 있는 생애 최대의 행운을 얻었죠."

아직도 성철 스님의 법문은 그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고. "용서와 감사의 차이에 대한 법문이었죠. 불교에서는 용서라는 말이 없다고 하셨어요. 상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다는 말인데 이는 상대의 인격에 대한 모독이라 하셨어요. 불교에서는 모두를 부처님처럼 존경해야 한다며 일체만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셨죠. 당시의 법문은 늘 제 가슴속에 남아 일상을 살아가는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그는 1971년제 13대 부산대불련 부산지부장 소임을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간다. "당시는 대불련의 전성기라 할 수 있을 만큼 젊은 재가자들의 활동이 컸어요.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불교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던 때였죠. 1975년 경에는 부산 시내 대부분의 대학에 불교학생회가 조직되었는데 회원이 1043명이었죠. 대불련 활동을 하다 출가를 하는 학생도 많았어요. 물론 저는 외아들이라 출가할 엄두는 못냈죠. 재가자로서 불교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었어요."

청소년 포교의 원력을 세우다

대학교를 졸업한 현 법사는 '홍법회' 를 창립 불자

방수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방수연등전선 전문 KS정품 생산업체인
(주)삼정전기와 계약 체결로 연등전선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 Made in Korea -

색상 : 회색선
선굵기 : 1.5㎜

• 2줄 이상일때 한줄당 가격입니다.
• 22cm, 23cm, 25cm (50구) @65,000 (2줄이상)
• 30cm (50구) @65,000 (2줄이상)
• 35cm (50구) @70,000 (2줄이상)
• 40cm (50구) @73,000 (2줄이상)
• 50cm (50구) @75,000 (2줄이상)
• 1m (50구) @90,000 (2줄이상)
• 2m (25구) @80,000 (2줄이상)

＊국산LED전구 (50개)
＊ @90,000 〈개당 1,800원





바림등(6cm) @2,500원(60개이상)
바림등(8cm) @3,000원(30개이상)



일반연잎 6,000 일반연잎大 6,000 바림연잎 7,500 한지바림연잎 천바림바림연잎 30,000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10-2094-2991-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부산불교중흥 평생 화두”


2006년 금정중 수계식. 금정중 교장 시절 학생 60% 이상을 수계를 받게 했다.



1990년 문경 김용사 부산불교중학생 연합회 합동수련회 개최 장면


부산 최초 불교어린이회인 법륜의 창립법회


조계종 전법사 품수 기념 사진


1983년 〈부산불교안내〉 발간 후 영주암에서 경과보고를 하는 현 법사

후배 양성의 원력을 세우고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청소년 불자 양성을 위해 대불련 및 고등학생을 위한 불서 보시, 대불련 간사단 선임 후배 육성 등에 정성을 기울였다. 또한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한 부산불교학생회 간부수련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홍법회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포교 활동에 선구적 역할을 담당해 주목을 받았다. 1977년 5월 21일 법륜사에서 부산 최초로 이미애 선생과 함께 ‘법륜불교어린이회’를 창립하고 어린이 포교를 위한 〈법회 교본〉을 발간했다.

1980년대부터 청소년 법회가 봇물처럼 일어났다. 이후 1984년 전국 최초로 불교중학생불교연합회인 부산불교중학생연합회를 창립 중학생 포교에 앞장섰는데 이는 현재의 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회의 모태가 되었다.

그의 활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2006년에는 재직중이던 조계종립 금정중학교 교장으로 취임하면서 전교생 중 60%가 수계를 받게 했다. 또한 종교수업, 신앙조례, 반야원 법당 설립 등으로 교직원 신행 활동을 독려했다. 특히 학부모 모임 ‘금정반야불자회’를 결성 지금까지 매월 법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교사들을 위한 부산중등교원불자회, 부산개인택시불자회, 부산교육경영직불자회 등 불교관련단체 13개를 창립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45년간 불교활동을 해오면서 부처님 법 만난 이 기쁨을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부산불교신도회에서 총무로 재직할 때 함께 힘을 모아 부산불교운전기사회를 창립했어요. 이후 ‘부산개인택시불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반야회, 법륜회, 보현회, 정각회, 우리는 선우 등 6개의 운전기사 불자모임으로 가지를 뻗을 수 있도록 도와줬죠.”

부산불교 곳곳에서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그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부산불교가 전성기만 못하다는 것이다. “어린이회, 중고등학생회, 대불련, 청년회는 전성기에 비하면 10분의 1로 줄었다고 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100명이 모여 법회를 하던 사찰은 이제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죠. 교계에서는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불자 1명이 1년에 한명 이상에게 전법할 수 있는 포교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왜 이 좋은 법을 혼자만 알고 있습니까? 함께 나눠야죠.”

현 법사는 불교단체나 활동가를 지원해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산 전법단 발족과 연구원을 설립해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다양화를 꾀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밖에도 인터넷 포교 활성화, 보시 운동, 부산불교 연합단체의 단결 등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금정중학교 교장직을 퇴임한 현 법사는 학교 재직 시절보다 더 바쁘다고 한다. 가장 큰 소임은 동산대종사 50주기를 추모하는 화보집 발간과 사진 전시회를 위한 편집위원 활동이다. 어디 이뿐인가? 부산파라미타청소년 협회 운영위원, 대불련 동문회 자문위원, 사회복지법인 해월 이사, 부산불교거사림 이사, 최근 발족한 화엄승가회 자문위원 등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그러니 그에게 하루가 부족하다. 새벽 1시 전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니 65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다.

이제 그는 못다한 불교 공부도 하고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싶다고 한다. “제가 불교일 하느라 가족들에게는 빵점 남편이에요. 다행히 아내가 대불련 출신이라 많이 이해를 해주었지만 참 미안합니다. 이제는 여행도 다니고 책도 읽고 법회도 다니며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제2의 불교 중흥이 찾아와 그가 가볍게 여행하며 공부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전법일기

기도 공덕, 신도에게 배우다

1명 신도와 사시기도

올 1월 일찌감치 찾아온 엄동설한에 올겨울 추위가 더욱 지독하게 느껴지는 1월이었다. 아침공양을 하고 기도법사스님이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가야 했다. 그날 사시기도 집전은 내가 해야 했다. 오전 10시, 불보살님 전에 다기(茶器)에 청정수 공양을 올리려 법당에 들어가니 시베리아에 왔나 싶을 정도로 법당 안은 추웠다.

법당 안에 전기온풍기가 비치되어 있긴 했지만 엄동설한 동장군의 맹위에는 역부족이었다.

얼어붙은 법당 문고리를 열고 법당에 들어서니 날이 추워서인지 안에는 기도하러 오신 신도들이 없었다. 나도 사람이다. 순간 ‘오늘은 부처님께서 자비를 나에게 베푸시는구나. 너무 추우니 사시기도에 죽비 3타만 올리라는 말씀인가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수행자로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얼굴에 미소가 가득 했다.

곧이어 죽비가 내 눈에 들어오고 세상을 다 얻은 듯 마음으로 날도 추운데 빨리 죽비 삼배 올리고 따뜻한 방에 들어가서 쉬어야지 생각뿐이었다.

기쁨 마음으로 불보살님 전에 탁, 탁, 탁 죽비 3타 삼배를 올리는 그 순간 법당 안으로 찬 바람과 함께 신도 1명이 들어왔다. 이 추운 날 사시기도에 동참 하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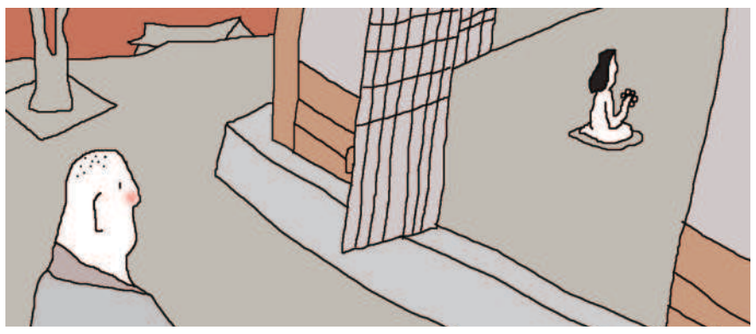
그래도 “내심 부처님께 삼배만 하고 가겠지. 보살님이 절을 하고 나가면 나 역시 함께 가야겠다”는 못된 기대를 져버리지 않고 있었다. 헌데 보살님께서 내 마음을 아셨을까. 이렇게 말했다. “스님, 기도는 저 혼자해도 되니 추운데 들어가서 쉬세요.”

보살님의 말을 드는 순간 나는 부처님께 즉심 참회를 드렸다. 춥다는 핑계로 사시기도에 죽비 삼배로 예불을 대신하려 했던 수행자의 본분을 망각한 어리석은 생각에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은 느낌이었고, 보살님한테도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추운 날에 절에 기도하러 오신 보살님의 불심과 정성이 흐트러졌던 내 마음을 바로 잡아주었다.

나는 보살님한테 이렇게 추운데 무슨 사연이 있어 기도를 오셨는지 물어 보았다. 보살님은 내 물음에 수줍어하면서 오늘 자녀가 1차 실기 시험을 보는 날이라고 한다.

“혹시 축원 카드 등록 했어요” 물어보니 보살님은 아직 사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한다. 새내기 불자였던 것이다. 나는 곧바로 종무소에 들어가서 1차 실기 시험 합격 발원 축원문을 작성했다. 작성이 끝나자 보살님은 기도비를 건넸다. 하지만 기도비를 받지 않았다. 이미 큰 기도비를 받았기 때문이다.

“보살님 덕분에 오늘 내가 큰 공부를 했는데 어찌 감히 기도비를 받겠습니까”라고 당황해하던 신도에게 설명했다.


그림 · 박구원

그리고 법당으로 가서 죽비를 내려놓고 다시 목탁을 들었다. ‘부처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라는 참회 속에 한 시간 넘도록 보살님과 정성스레 사시기도를 올리고 1차 실기 시험 합격 소원성취 축원 발원도 올렸다.

나와 보살님과 둘이서 불보살님께 드렸던 사시기도 시간은 엄동설한에도 남국(南國)에 와 있는 듯 따뜻했다. 그 뒤로도 보살님은 꾸준하게 기도에 동참했고 공덕때문인지 몰라도 자녀가 최종 시험에도 합격을 했다.

불교 교리 중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훈이 있다. 자리이타(自利利他) 남도 이롭게 하면서 자기 자신도 이롭게 한다는 교훈이다. 타인에게 있어 진정한 도움, 진정한 자비를 주는 마음이 곧 부처 일 것이다.

그날의 보살님이 기도 원력은 나에게 바른 깨우침을 주는 스승이었다. 매일이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연호 스님 (서울 원각사 주지)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DIY형 모듈 온수난방 시스템 www.junheating.co.kr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1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2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3
D.I.Y 시공 가능 04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 설치장소 ■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서울 : 010-5097-8291 수원 : 010-5211-7260 남양주 : 010-9183-9729
평창 : 010-6433-8612 서산 : 010-7301-5854 양산 : 010-6294-6126
김천 : 010-9091-4583 진주 : 010-3583-7139 울산 : 010-4597-5577
북광주 : 010-3641-0605 서광주 : 010-6890-0365 익산 : 010-6610-2337
여수 : 010-3612-7784 고성 : 010-4578-0961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격: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고추구 12E 3구 인지구 26E 4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연분홍 백색 금색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버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이스탄불 캠퍼스에 불교 사원 세워달라”

터키 대학생 3만여명 ‘불교사원’ 짓기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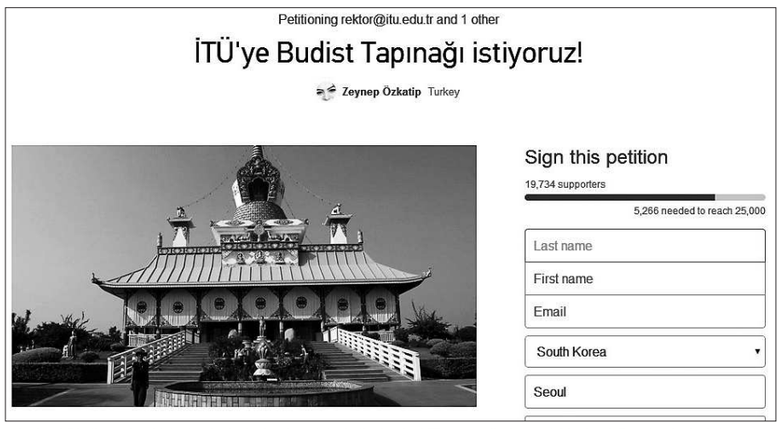
터키의 대학생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회교 부양책’에 반기를 들고 나선 가운데 ‘캠퍼스에 회교 사원만 세울 게 아니라 불교 사원도 세우자’는 온라인 캠페인이 전개되어 주목된다.

〈Daily News〉 지는 4월 6일(현지시간) “인구의 95% 이상이 회교도인 터키에서 ‘대학 캠퍼스에 불교 사원을 세우자’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터키의 명문 이스탄불기술대학(Istanbul Technical University)에서 시작된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터키 사회의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Daily News〉 지에 따르면, 이스탄불기술대학에서의 ‘불교 사원 건축 캠페인’은 지난 3월 중순 “대학 내 회교 사원이 세워질 것이다. 신축되는 사원은 지역 사회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대학 운영위원회의 발표가 단초가 되었다.

이스탄불 기술대학 운영위원장 메흐멧 카라카(Mehmet Karaca) 교수는 ‘회교 사원 신축’ 발표와 함께 터키의 온라인 캠페인 전문 사이트 ‘change.org’를 통해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주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학 재학생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재학생 대부분 대학 운영위원회가 ‘종교적 포퓰리즘’에 빠져 연구 풍토를 개선하고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일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터키 대학생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회교 부양책에 반기를 들고 “회교 사원만 세울 게 아니라 불교 사원도 세우자”며 ‘change.org’에 불교사원 짓기 투표 캠페인을 벌였다.

회교사원 지으려 하자 ‘불교사원’도
온라인 사이트서 3만5천명 찬성 투표
터키 정부 80여 대학 사원 건축 진행
학생들 “연구 풍토 개선 주력할 때”

이와 함께 재학생들은 change.org에서 ‘불교 사원을 세우자’는 또 다른 캠페인을 전개, 이스탄불 기술대학의 캠페인에 맞불을 놓았다. ‘change.org’에 따르면 현재까지 ‘불교 사원을 세우자’는 캠페인에 찬성표를 던진 재학생의 수는 3만 5천여 명에 이른다.

온라인 캠페인 전문 사이트 ‘change.org’에 ‘불교 사원을 세우자’는 캠페인을 처음 제안한 제이넵 오즈카팁(Zeynep Ozkatip · 3학년)은 “터키 헌법은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스탄불 기술대학의 운영위원회는 재학생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즈카팁은 “‘change.org’에 캠페인을 처음 제안했다는 이유로 ‘위협’을 당하기도 했다”며 “이슬람교는 다른 종교에 대해 관용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오즈카팁의 제안에 찬성표를 던진 우트쿠 구르카그 보라텍(Utku Gurcag Boratac · 2학년)은 “캠퍼스에서 가장 가까운 불교 사원은 2,000㎞ 떨어져 있어 내 종교에 충실할 수가 없다”며 “나는 점심시간에 짬을 내 법당을 찾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Daily News〉 지는 “이스탄불 기술대학 재학생의 ‘불교 사원을 세우자’는 캠페인에는 건축 기금도 함께 조성되고 있어, 터키의 대학 캠퍼스에서 첫 불교 사원이 세워질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Daily News〉 지는 “터키 정부는 지금까지 80여 곳의 대학 캠퍼스에 회교 사원을 짓고 있다”며 “이는 대학의 다양성을 역행하는 정책이며 다른 종교를 믿는 대학생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터키 정부의 행정 수뇌부는 ‘수니파’ 중심 체제로 알려져 있다.

터키는 헌법상 국교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 국민의 약 95% 이상이 이슬람교 수니파다. 따라서 터키의 법률이나 사회 조직이 이슬람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슬람의 전통과 관행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이번 학생들의 캠페인은 터키 대학에서의 ‘민주성’에 대해 자문하는 성격이 짙다”고 전제한 〈Daily News〉 지는 “터키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보장한 만큼 대학 지원 정책을 종교 중심에서 연구 중심을 이동해야 해야 하고, 대학 내 종교 지원도 형평성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中 용천사, 애니메이션으로 불법 전한다

좌충우돌 행자스님 만화 인기… 팔로워 30만 명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용천사(龍泉寺)는 애니메이션을 통한 불법 홍포에 나서 젊은 층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사찰순례 등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던 과거 신행방법에서 벗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쉽게 불교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이다.

1500년 된 용천사는 2011년 ‘용천 만화애니메이션 그룹(Longquan Comic and Animation Group, 이하 LCAG)’을 설립하고 불교 교리를 담은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왔다. 스님들과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 쉽고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 웨이보 · 위챗 등 SNS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보통 1~3분짜리 내용으로 구성되는 애니메이션들은 일반 대중들에게 삶의 지침을 가르쳐주며,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인도하는 내용을 주로 다룬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은 샨얼이라는 승려가 등장 스탑모션 애니메이션(stop-motion animation, 정지하고 있는 물체를 조금씩 이동하면서 카메라로 촬영하여 마치 물체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영화 촬영 기술)이다. 통통한 체구에 천진난만한 행자 스님인 샨얼 스님이 스승에게 혼나기도 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깨달아가는 과정은 보는 이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준다는 평을 얻고 있다.

용천사 주지 쉐청 스님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목적은 부처님 가르침을 불자들에게 더욱 쉽고 가깝게 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교의 핵심은 경전을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다.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해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1500년 된 용천사는 2011년 ‘용천 만화애니메이션 그룹(Longquan Comic and Animation Group, 이하 LCAG)’을 설립하고 불교 교리를 담은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왔다. 사진은 만화애니메이션그룹에서 제작한 샨얼 승려 애니메이션의 캡쳐 화면.

쉐청 스님이 직접 운영하며 매일 애니메이션을 제공하고 있는 웨이보 계정은 3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웨이보나 위챗은 오늘날 불교를 젊은 세대에게 전파하고 공유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라며 “사찰순례 등 전통적으로 이어온 신행방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소통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광동지역신문 남방일보(南方日報)는 2012년 “수도문화가 아시아 전역에서 감소를 나타내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 불자의 수는 오름세를 나타냈다”며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포교방식은 중국 불교 부흥의 새로운 방편을 마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이에 LCAG의 제작자인 리우펜은 “불교를 부흥시키는 데는 형식상 한계가 없다”며 “젊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와 접근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교는 그들에게서 외면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아름 수습기자

美 중국인 유학생 불교 의학 시원 추적

고승전을 중심으로 의승 행적 연구…IT 기술로 맵핑

송고승전에 등장하는 6명의 의승(醫僧)의 여정이 IT 기술과 만나 맵핑(지도화) 과정을 거쳐 시각화 작업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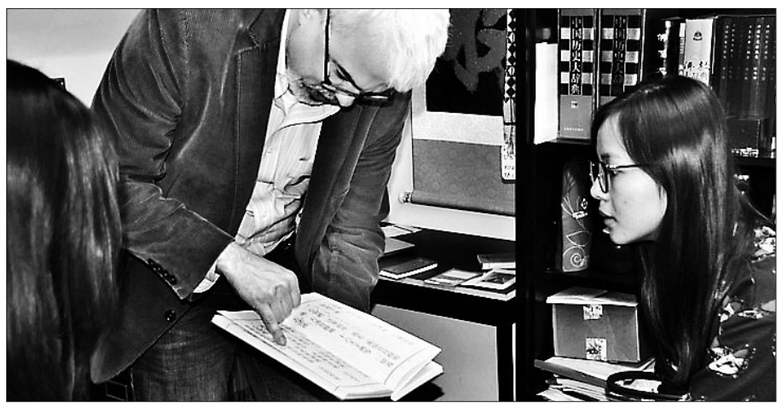
〈Penn State〉 지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에빙톤 분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3명이 고승전(Memoirs of Eminent Monks)에 등장하는 6명의 의승(醫僧)을 추적하고, 행장을 정리하는 한편 IT 기술을 접목, 데이터 맵핑 과정을 거쳐 시각화 작업에 들어갔다”며 “이번 연구는 아시아 유학생의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에빙턴 대학 연구 프로젝트(Abington College Undergraduate Research Activities project)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에빙톤 분교에서 ‘아시아 문화 · 종교’ 연구 과정을 밟고 있는 메이지 첸(Meizi Chen), 겔윤 황(Kaiyuan Huang), 웰퀴안 셩(Weiqian Sheng) 등이 참여했다. 이들의 연구 지도는 피어스 셀그레오(C. Pierce Salguero) 교수가 맡았다.

“3명의 연구자들이 중국인 유학생이기는 하지만 고대 불교 전적의 불교 용어나 용례를 올바르게 읽고 번역해야 하는 연구는 결코 녹녹하지 않다”고 말한 셀그레오 교수는 “이들은 노력이 관련 학계의 연구 자료로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첸 연구원은 “고대 중국어 보다는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하는 과정이 힘들었다”며 “고승전에서 6~10세기 경에 활동했던 의승을 추적하고, 그들의 행장을 통해 활동했던 지역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황 연구원은 “불교 의학의 형상과 발전을 볼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라며 “6명의 의승들이 활동했던 지역은 수행과 신행의 클러스터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IT 기술을 접목한 맵핑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불교 의학의 확산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에빙톤 분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3명이 고승전(Memoirs of Eminent Monks)에 등장하는 6명의 의승(醫僧)을 추적하고, 행장을 정리하는 한편 IT 기술을 접목, 데이터 맵핑 과정을 거쳐 시각화 작업에 들어갔다.

오종욱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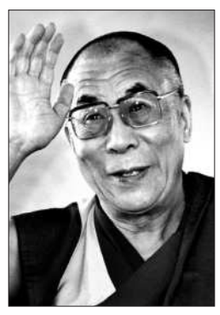
달라이라마, 티베트 자치 촉구

일본 언론인터뷰서 언급해

일본에서 열리는 불교 심포지엄에 참석차 지난 2일부터 일본을 방문 중인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사진〉가 티베트의 자치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4월 5일 달라이라마는 인터뷰를 통해 “티베트 불교를 보존하는 것은 티베트인뿐 아니라 모든 중국인의 관심사”라며 티베트에 대한 ‘고도의 자치’를 촉구했다.

‘고도의 자치’는 티베트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망명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중국 헌법 안에서 종교, 문화, 교육, 경제 등 외교 · 안보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티베트인에 의한 실질적인 자치를 의미한다.



달라이 라마는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언어와 불교지식, 문화 · 생태를 포함한 티베트의 문화를 보존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전통적인 불교국가로서 그중 많은 사람이 티베트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대화를 원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물음에 “물론이다”고 답한 달라이 라마는 그러나 “나는 정치적 책무에서 은퇴했다”고 덧붙였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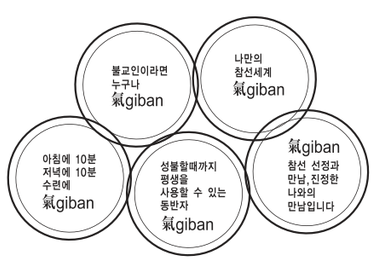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2set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불경 라디오 成佛

디자인,구성 upgade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제품구성 성불라디오 (가로12cm × 세로5.7cm × 두께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베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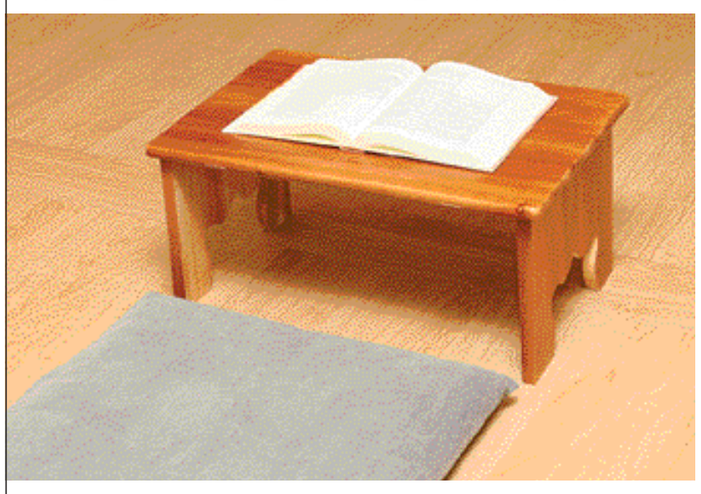
현 불 샵 특가판매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 (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재 질 : **편백나무**
- 크 기 : W60㎝ × D40㎝ × H28㎝
- 특 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 격 : 개당 6만원
- 주 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편백나무 경상


▶ 접은 상태


▶ 접이식 고급 경첩

생활밀착형 온라인 쇼핑몰 **무료배송**

칠성상회

02-879-2007

상품 문의 및 기타 사항
02-879-2007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금계좌 안내 :
신한 100-023-357023 (주)한메소프트



교세라 복사기(중고)
A3~A6용지 사용가능
팩스,복사,프린트 모두가능
금액: 950,000원



수행 중 찾아오는 피로와
손발의부기,냉기 예방에 탁월한
아시혈 패치(30매)
금액 : 33,000원



수행에 지친 분들의 원기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리산 더솔기력가스
한달분(80ml/60팩)
금액 : 115,000원



멀리 있어도 함께하며
마음과 진심을 전달합니다.
3단 근조 화환
(리본 글씨시간에 맞춰가능)
금액 : 100,000원



5차 제일고등학교 인기 상품
을 거울 띄듯이게 준비하세요.
겨성 온수피아 카페트 매트
금액 : 330,000원



풍수총론(風水總論)
이산 장해상선생님의 한공풍수학
연구의 결정 (무료배송)
금액 : 35,000원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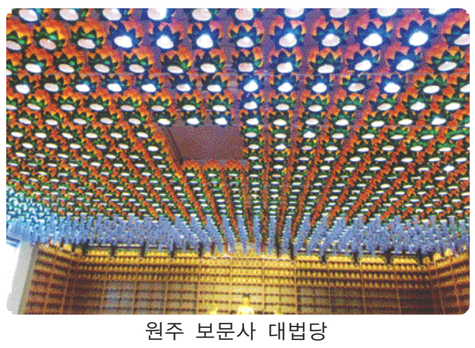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20년의 경력

사찰불사! 정우불교예술원이 함께합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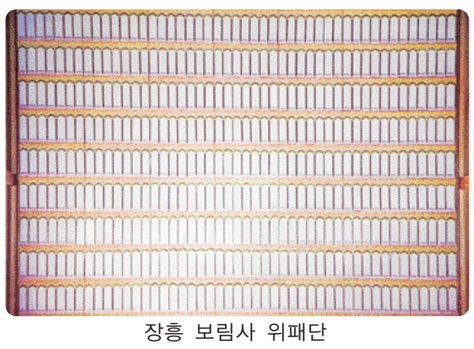

원주 보문사 대법당


월출산 무위사 대법당

영가 위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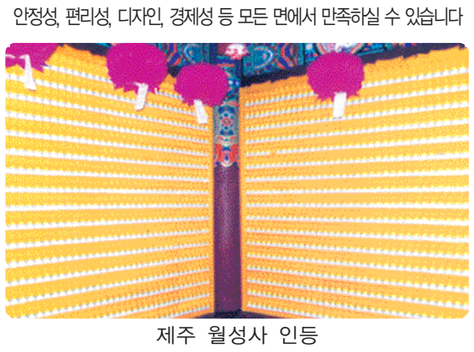
(실용신안 제20-0439285 / 디자인등록 제30-0477206)


제주 월성사 위패단


장흥 보림사 위패단

인 등

(실용신안 제20-0439286 / 디자인등록 제30-0477201)
안정성, 편리성, 디자인,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월성사 인등


각종 인등 견본


대나무 숯 부처님
(동불, 특수불, 각종 불상)

연 등



* 전문 기술진이 완벽하게 시공해 드립니다. *

정우불교예술원 www.jeongwoo.info
전화 : 010-3724-0455, 031)969-6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100번

禪墨一如 정신 담아 지구촌 어린이에게 자비를…

〈선묵일여〉

동남아 오지 학교건립을 위한 월서 스님 서예전



월서 스님(천호월서희망재단 이사장 · 조계종 원로의원 · 사진)이 동남아 오지 학교건립과 장학금 조성을 위한 서예전을 연다. '천호월서선사 산수전' 이 4월 29일~5월 5일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근 · 현대 선지식 스님들의 오도송과 열반송, 경전을 옮긴 400여 작품이 선보인다.

원효성사, 함허득통선사, 무학대사, 나옹화상, 원광경봉선사, 무염국사, 동산양개선사 등 고승과 근현대 선지식 스님들의 오도송과 열반송은 삼라만상의 진실을 깨닫고 속박과 번뇌, 미망과 아집에서 벗어난 적멸의 순간을 직접 친견하는 느낌을 갖게 할 것이다.

월서 스님은 작품을 통해 '마음의 때' 를 벗길 것을 강조한다. "육신의 때를 벗기는 곳이 목욕탕이라면 마음의 때를 벗기는 곳이 바로 절입니다. 절을 찾는 것은 바로 스스로 마음에 묻은 때를 씻기 위해서죠. 아무리 현명하다, 지식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도 마음에 때가 끼면 안개가 낀 듯해 참모습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 참 마음을 깨치고 본마음을 항상 여여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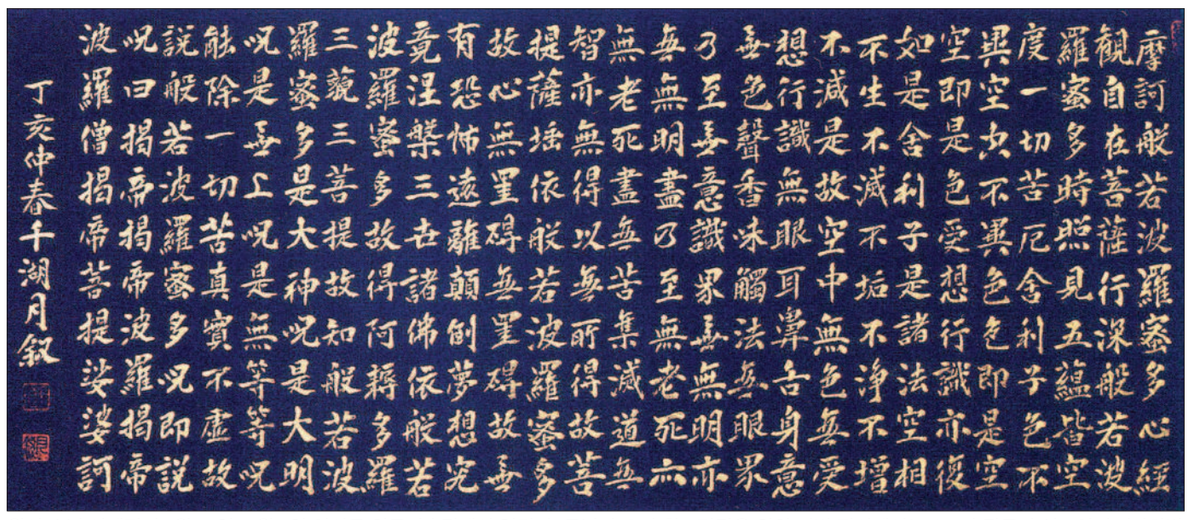
또한 웅혼한 필치의 금강경, 화엄경약찬게, 반야심경 등 경전 작품도 감동으로 다가온다. 한 자라도 틀리면 다시 작업해야 했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고. 스님은 서예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선묵일여(禪墨一如)라고 했습니다. '선' 수행은 고요함이요 지혜의 빛이죠. '묵' 에 임할 때는 번뇌 망상을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선묵은 하나인 것입니다. 선과 서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행과 연습에 고비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고비 고비마다 뛰어넘고, 수행과 정진을 이어가야 비로소 맑고 고요함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월서 스님은 서예를 하면서 임서(臨書)에 매진했다. 여러 사람의 글씨를 보고 배우면서 그 본체를 알고, 자신의 필체를 완성해 나간 것이다. 특히, 스님의 글씨에는 추사의 기상이 서려 있다고 평가받는다. 서예가 구당 여원구 선생은 "스님은 추사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힘찬 종획, 단호하면서도 절도 있는 전절(轉折), 힘찬 글씨의 근본이 되는 역입(逆入) 등 스님의 작품에서 강철 같은 골기를 느낄 수 있으며 무한한 품격이 뿜어져 나온다. 그래서 스님의 글씨를 통해 무한한 기쁨을 느낀다"고 평했다.



월서 스님 作 '불심'

선지식들의 오도송 · 열반송 · 경전 등
혼신 다한 서예작품 400여 점 전시
구산 · 범룡 스님의 작품도 공개
한국미술관서 4월 29일~5월 5일



월서 스님 서예전이 4월 29일~5월 5일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열린다. 동남아 오지 학교건립을 위한 이번 전시에서는 400여 작품이 선보인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이번 전시작품은 다양한 색지, 문양지에 작업해 강렬하면서도 이색적인 느낌을 주며 청 · 녹 · 금 · 은 등의 색채가 다채롭게 구사되었다. 올해 세수 82세에 이른 스님은 육신이 허락하는 날까지 공덕을 베풀겠다는 간절한 기원을 담아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 "어쩌면 이번 전시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동남아 오지 교육불사의 대업을 위한 작품전시라는 측면에서 정신을 가다듬지 않을 수 없었죠."

이밖에도 큰스님들의 작품과 유명 화가와 서예가 등의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스님이 소장해오던 서암 스님, 벽안 스님, 구산 스님, 월하 스님, 청하 스님, 일타 스님, 범룡 스님, 김창환 등의 작품 27점의 작품들이 공개된다.

한편, 월서 스님은 경주 분황사 주지를 역임했고 1974년부터 제4~8대 · 10대 · 12대 중앙 종회의원을 지냈다. 제8대 중앙종회 의장, 호계원장 등을 거쳐, 1999년부터 현재까지 조계종 직할교구 봉국사 주지를 맡고 있다. 2007년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회의 원로의원에 선출되었고, 2008년 해인사에서 조계종 최고 품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서받았다.

특히, 국제구호 봉사단체인 '천호월서희망재단' 을 창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네팔 등의 오지를 찾아다니며, 학교를 건립하고 교육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북한동포와 외국인 노동자 돕기 운동 등도 전개하고 있다. 2007년 '북한동포와 외국인 노동자 돕기 첫서예전' 을 열었으며,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 수익금은 미얀마 바간 인근의 학교 건립에 쓰여질 예정이다. (02)720-116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온 우주가 나를 돕고 있고 모두가 동행자임을 기억하세요"

불교TV, 4월 3일 개국 20주년 기념
정목스님 '나무아래…' 대구 공개방송 인기



"당신의 인생길을 함께 걷는 이는 누구입니까? 그가 힘들고 지칠 때 당신은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있는지요? 법을 함께 구하는 벗을 도반이라 하듯 인생의 거친 길을 함께 걷는 소중한 반려자가 있다면 삶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한 우리,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어 당신의 손을 맞잡고 함께 걷겠습니다."

정목 스님〈왼쪽 사진〉이 대구 시민들과 함께 동행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했다. BTN불교TV(대표 구본일)는 4월 3일 대구 학생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국 20주년기념 '정목 스님 나무 아래 앉아서' 공개방송(담당 전지연 PD)을 개최했다. '동행–함께 걷는 세상이 아름다워요' 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공개방송은 대구지역 케이블 방송사인 푸른방송(대표 조강래) 창사 21주년을 겸해 열렸으며, 대구 · 경북 지역 시민과 불자 1500여명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BTN은 올해 20주년을 맞아 정목 스님의 '나무 아래 앉아서' 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4대 도시 투어 공개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 동참한 불자들은 연주자 오리엔탱고의 감미로운 재즈 선율과 정목 스님의 감동적인 힐링토크에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사부대중 1500여 명 참석 성황
'동행' 의미 일깨우며 佛心 사로잡아
4월 23일 '배려' 주제로 대전 찾아

행사 시작 전 정목 스님은 "불교TV가 우리곁에 온지 20주년이 됐다 외환위기시절 문을 닫을 위기가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며 동참한 관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다.

스님은 강연이 시작되자 "우리가 이미 갖춘 인생임을 모르고 힘들다 고통스럽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시민들을 위로했다.

스님은 또한 먼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결코 인생이 혼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한 개의 과일이 결실을 이루기까지 비바람에 시달리는 날들도 많았지만 그 비와 바람과 햇빛을 받으며 익어온 날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온 우주가 나를 돕고 있음을 세상 모든 이가 나의 동행자임을 기억하세요."

BTN 전지연 PD는 "대구지역의 유선방송인 푸른방송과 함께 했기 때문에 불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많이 와서 더욱 풍성했던 자리였다. 정목 스님이 어색한 대구 사투리로 정감 있는 이야기를 이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다. 주제인 '동행' 에 맞춰 김성수의 노래 동행을 다 같이 부를 때는 모두가 하나가 된 듯한 일체감을 형성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BTN불교TV는 4월 3일 대구 학생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국 20주년기념 '정목 스님 나무 아래 앉아서' 공개방송을 개최했다.

방송은 5월 7일 목요일 오전8시 · 오후2시이며 재방송은 5월 10일 오후 4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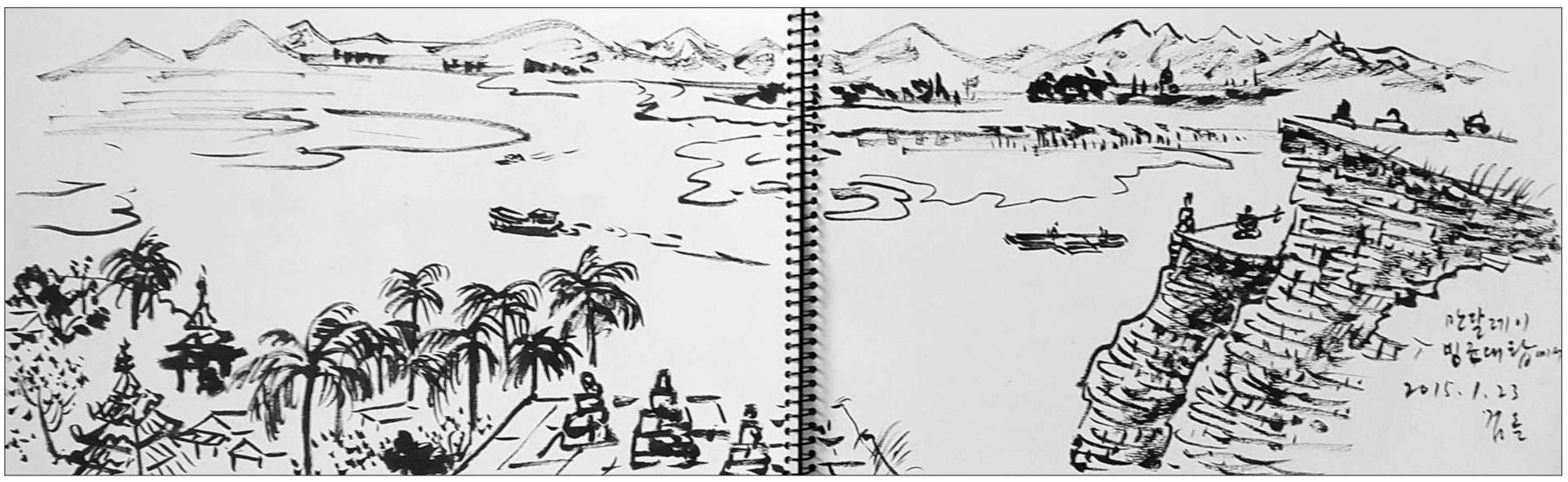
한편, 정목 스님의 '나무 아래 앉아서' 는 4월 23일 오후 2시 '배려' 를 주제로 대전 충남대 정심화 국제문화회관에서 기타리스트 권정구와 함께 네 번째 만남을 갖는다. (02)3270-3402 신성민 · 정혜숙 기자



황금부처님의 나라를 가다 ③

그림 이호신·글 이종성 작가

무너진 곳에서 새로운 길을 보다



부처의 몸 진신을 만지다

마하무니 사원에 도착한다. 황금 4톤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이 실감 난다. 마하는 위대한, 큰 등의 뜻이 있다. 순일하고 순수한 일심만이 진여의 몸체가 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자는 불상 앞 일정 거리를 둔 곳까지만 접근이 가능하고, 부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없다. 살아계신 부처님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얼굴을 제외하곤 본디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참배하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금박을 입히고 있다. 매일 새벽 4시에 세안 의식을 갖고, 매년 개금(蓋金)을 하는데 2.7kg의 금분이 소요된다고 한다. 아쉬워할 아내를 생각하여 부처님의 진신에 손을 대고 기도한 손을 아내의 얼굴에 댄다. 영험한 기운과 자비로 늘 건강하기를 바라며. 본당을 나와 뒤쪽에 있는 건물로 들어간다. 이 마하무니 사원을 일으킨 '예로세아도' 큰스님이 모셔져 있다. 해탈한 고승의 눈매가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깊다. 경건함 속에서 세상의 속기들이 있을 곳이 없다. 이어 경내의 박물관으로 들어간다. 몇 기(基)의 캄보디아 불교 동상(銅像)이 있다. 약탈해온 것으로 30여기가 있었는데 티보왕 때 대영항쟁 당시 대포로 만들어 사용했다고 한다. 특이한 점은 동상의 배와 무릎 부분이 반질반질하다. 아픈 부위를 문지르며 낫게 해달라는 소원의 손길에 의한 것이라고 하니 무심히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운 것이다. 잠시 쉴 겸 사원의 기둥에 등대고 앉는다. 샘물처럼 솟아서 흐르는 평화로운 독경소리, 나는 잠시 세상의 과녁으로부터 벗어난다. 바로 위에 앉은 비둘기가 똥을 싸도 비켜 떨어진다.

무너진 곳이 길이 되다

사원을 나와 이라와디 강으로 내려가 배를 타고 이동한다. 미완성의 민군 대탑을 보러가는 길이다. 비스듬한 선상의 의자에 반쯤 누워 강물에 몸을 싣는다. 바람에 마음을 맡긴다. 파랑에 깎이고 물살에 닦이는 시간들, 마음이 반짝거린다. 미풍을 받으며 즐기는 선상유람, 세상에는 영원한 것들이 있다고 누군가 속삭여온다. 강가에 쌓인 흰 모래톱과 사람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모습 속에 근심이 없다. 목재를 실은 대형 바지선 옆을 지나간다. 한 시간 넘게 물살을 거슬러 목적지에 도착할 무렵 강 건너 거대한 대탑의 위용이 드러난다. 얼굴이 까만 아이들은 손에 그 나름대로의 물건을 들고 기다렸던 관광객들에게 원 달러를 말하며 달라붙는다. 어떤 아이들은 손을 잡아끌며 앞장서서 탑으로 안내한다. 풍부한 자원과 넓은 국토면적을 갖고 있는 나라이면서 경제발전의 수준은 우리나라 칠십년 대에 머물러 있다. 아이들은 순박하다. 어떤 작은 물건이나 긍정적 행위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 구걸하지 않는다. 유럽인들은 냉철하고 이성적이어서일까. 그들에게 절대로 무엇을 주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들과 같은 어려운 시절과 궁핍의 시기를 경험해보았고, 정이 많은 민족이어서 잘 뿌리치지를 못한다. 이미 누군가는 딸을 삼고 동행한다.

가로 백사십 미터 높이 오십 미터의 벽돌로 만든 전탑의 형태로 그 규모가 장대하다. 1790년 마지막 왕조인 공파웅 왕조의 보다우파야왕 때 전쟁포로와 노예와 노동자들이 대거 투입되었으나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재정 및 노동력 등의 문제로 중단되어 미완성으로 남은 탑이다. 또한 그때 당시 강제노역에 동원된 노예들이 도망가다 인도 국경을 침범하는 바람에 영국군의 미얀마 침략의 빌미가 되었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1838년 대지진으로 탑이 훼손되어 균열이 깊다. 참배를 하고 탑의 꼭대기로 난 계단을 통해 오른다. 계단이 무척 가파르다. 정상부에 올라선다. 아름다운 이라와디강을 배경으로 왼쪽 아래로 흰색의 신뿌미 사원과 열대의 나무들이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이 장관이다. 갈라진 틈새를 조심스럽게 건너며 한 바퀴 돈다. 사방팔방 막힌 곳이 없는 시원한 조망으로 마음의 지평이 열린다.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불탑들, 저 불탑들은 어느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일까. 그 마음이 밀고 간 세계는 우리가

황금 4톤의 마하무니 사원 매년 개금
미완성으로 남은 민군 대탑 장관 이뤄
청동대종 그 모양과 소리가 인상적
마지막 왕조 만달레이 왕궁 규모 장대



90톤에 달하는 청동대종 '민군범종'



미얀마 마지막 왕조인 공파웅 왕조의 만달레이 왕궁

내선 비행기를 타고 헤호로 향한다. 비행기가 산악지대로 접어들며 고도를 높인다. 오름을 닮은 산들의 군집이 웅장하다. 헤호는 해발 고도가 1328미터에 이르는 고원지대다. 산맥을 넘어가는 비행기 아래로 산비탈에 펼쳐진 밭들이 장관이다. 붉은 황토색의 밭들이 무수한 색색의 조각보를 오려서 이어놓은 모습이 만다라 같다. 그 사이로 난 기다란 길과 금빛으로 빛나는 작은 호수가 아름답다.

공항은 우리나라 시골 정거장의 분위기다. 기후는 서늘하여 초가을 날씨를 연상케 한다. 고산지대에서 재배한 옥수수와 팔기 등을 팔고 있는 사람들, 작은 것에도 진정 기뻐하는 모습이 행복해 보인다. 입이 귀에 걸리는 초승달의 미소가 그것을 말해준다. 헤호는 샨스테이트주의 샨족이 주류를 이루고 그 다음으로는 목에 동으로 만든 링을 감고 사는 빠오족이며, 주도는 따운지('따운' 은 산, '지' 는 크다는 뜻)라고 한다. 버스를 타고 산 아래로 이어진 굽이진 비탈길을 내려간다. 중국의 운남으로 이어진 도로라고 한다. 미얀마는 세계 최대의 불교국가이지만 불교가 국교는 아니다. 버마족, 샨족, 카렌족, 몬족 등 13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버마족이 주류를 차지하고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 과거 버마로 불렸으나 소수민족의 저항을 수용하고 아우르는 차원에서 7개의 주로 구성된 미얀마연방공화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도는 현재 네피도이다.

인타족이 살고 있는 인레호수로 가기 위해 입장권을 구입하고 호수로 들어선다. '인타' 는 '호수의 아들' 이라는 뜻이다. 모터보트는 다섯 명씩 탈 수 있다. 폭은 좁고 길어 강낭콩 꼬투리 속에 나란히 들어앉은 느낌이다. 햇빛과 바람과 튀는 물방울을 막기 위해 우산이 의자 옆에 하나씩 준비되어 있다. 물론 구명조끼도 착용한다. 바람을 가르며 물살을 헤치고 정박지를 빠르게 벗어난다. 좌우로 길게 수상가옥들이 늘어서 있다. 처음 들어선 호수의 물빛은 탁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호수 안으로 들어갈수록 물빛은 푸르기 그지없다. 가도 가도 그 자리인 느낌이 들만큼 호수는 넓다. 남북으로 길게 장장 이십이 킬로미터에 걸쳐있고 폭이 십일 킬로미터에 이른다니 바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레옥잠은 여기저기 작은 섬처럼 떠있다. 뿌리로 질소, 인 등을 흡수하여 수질을 정화하는 수경식물이다. 1ha의 면적에 연간 1,700kg의 질소와 300kg의 인을 흡수 할 만큼 수질정화 능력이 뛰어나다. 이는 오백 명 정도의 사람이 배출한 오수를 정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인레호수의 청정 수질이 유지되는 비결이 이 부레옥잠에 있었던 것이다. 망망한 호수를 달린다. 자맥질을 하며 물고기를 잡는 가마우지가 심심찮게 보인다. 그물을 던지거나 외발로 노를 저으며 물고기를 잡는 풍경들은 문명의 대도시 속에 살아온 눈으로는 도무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호수에서 나서 호수에 살다 호수로 돌아가는 사람들, 인타족은 물에 오르면 멀미를 한다고 한다. 그만큼 호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한 시간 가까이 달려 선착장에 닿는다. 옛 그림에서 보았던 파초가 무성하다. 먼저 여장을 풀기 위해 숙소인 호텔로 간다. 깨끗하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별리의 세계다. 입구의 동백꽃을 닮은 립바꽃이 붉다.

인레호수에 빛나는 원시의 비장미

아침 일찍 숙소를 떠나며 미얀마 마지막 왕조인 공파웅 왕조의 만달레이 왕궁을 잠깐 살펴본다. 왕궁을 둘러친 해자(垓子)가 인상적이다. 폭 칠십 미터 물의 깊이는 삼 미터이고 담장의 높이는 팔 미터에 달한다는 그 규모가 장대하다. 공항으로 이동하여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헤호로 향한다. 비행기가 산악지대로 접어들며 고도를 높인다. 오름을 닮은 산들의 군집이 웅장하다. 헤호는 해발 고도가 1328미터에 이르는 고원지대다. 산맥을 넘어가는 비행기 아래로 산비탈에 펼쳐진 밭들이 장관이다. 붉은 황토색의 밭들이 무수한 색색의 조각보를 오려서 이어놓은 모습이 만다라 같다. 그 사이로 난 기다란 길과 금빛으로 빛나는 작은 호수가 아름답다.

공항은 우리나라 시골 정거장의 분위기다. 기후는 서늘하여 초가을 날씨를 연상케 한다. 고산지대에서 재배한 옥수수와 팔기 등을 팔고 있는 사람들, 작은 것에도 진정 기뻐하는 모습이 행복해 보인다. 입이 귀에 걸리는 초승달의 미소가 그것을 말해준다. 헤호는 샨스테이트주의 샨족이 주류를 이루고 그 다음으로는 목에 동으로 만든 링을 감고 사는 빠오족이며, 주도는 따운지('따운' 은 산, '지' 는 크다는 뜻)라고 한다. 버스를 타고 산 아래로 이어진 굽이진 비탈길을 내려간다. 중국의 운남으로 이어진 도로라고 한다. 미얀마는 세계 최대의 불교국가이지만 불교가 국교는 아니다. 버마족, 샨족, 카렌족, 몬족 등 13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버마족이 주류를 차지하고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 과거 버마로 불렸으나 소수민족의 저항을 수용하고 아우르는 차원에서 7개의 주로 구성된 미얀마연방공화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도는 현재 네피도이다.

인타족이 살고 있는 인레호수로 가기 위해 입장권을 구입하고 호수로 들어선다. '인타' 는 '호수의 아들' 이라는 뜻이다. 모터보트는 다섯 명씩 탈 수 있다. 폭은 좁고 길어 강낭콩 꼬투리 속에 나란히 들어앉은 느낌이다. 햇빛과 바람과 튀는 물방울을 막기 위해 우산이 의자 옆에 하나씩 준비되어 있다. 물론 구명조끼도 착용한다. 바람을 가르며 물살을 헤치고 정박지를 빠르게 벗어난다. 좌우로 길게 수상가옥들이 늘어서 있다. 처음 들어선 호수의 물빛은 탁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호수 안으로 들어갈수록 물빛은 푸르기 그지없다. 가도 가도 그 자리인 느낌이 들만큼 호수는 넓다. 남북으로 길게 장장 이십이 킬로미터에 걸쳐있고 폭이 십일 킬로미터에 이른다니 바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레옥잠은 여기저기 작은 섬처럼 떠있다. 뿌리로 질소, 인 등을 흡수하여 수질을 정화하는 수경식물이다. 1ha의 면적에 연간 1,700kg의 질소와 300kg의 인을 흡수 할 만큼 수질정화 능력이 뛰어나다. 이는 오백 명 정도의 사람이 배출한 오수를 정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인레호수의 청정 수질이 유지되는 비결이 이 부레옥잠에 있었던 것이다. 망망한 호수를 달린다. 자맥질을 하며 물고기를 잡는 가마우지가 심심찮게 보인다. 그물을 던지거나 외발로 노를 저으며 물고기를 잡는 풍경들은 문명의 대도시 속에 살아온 눈으로는 도무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호수에서 나서 호수에 살다 호수로 돌아가는 사람들, 인타족은 물에 오르면 멀미를 한다고 한다. 그만큼 호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한 시간 가까이 달려 선착장에 닿는다. 옛 그림에서 보았던 파초가 무성하다. 먼저 여장을 풀기 위해 숙소인 호텔로 간다. 깨끗하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별리의 세계다. 입구의 동백꽃을 닮은 립바꽃이 붉다.

2559년
석가탄신기념
특별한정판 출시

능인향당에서는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를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능인계향을 출시합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능인계향은 초파일까지만 특별 한정판으로 생산되며
주문에 의해서 사찰에만 공급합니다.
■ 가격 : 15,000원 (초파일 이후 현지 사정에 의해 단종되거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www.nihwa.com
02)3663-6777



능인향당

사찰 건축

천년 가람을 이루는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신스틸공법 시공 / 대웅전 / 요사채 / 산신각 / 전문시공





스틸한옥의 장점
◆ 단열효과가 높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 층수에 관계없이 고층 시공이 가능함. 한옥빌라, 한옥빌딩, 한옥아파트 등
◆ 스틸구조에 의해 디자인 면에서도 한옥의 선을 맘껏 살릴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 한옥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주)만성기업 한중열 합장
부산 사상구 강선로 11번지 / 010-4245-1335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1 ~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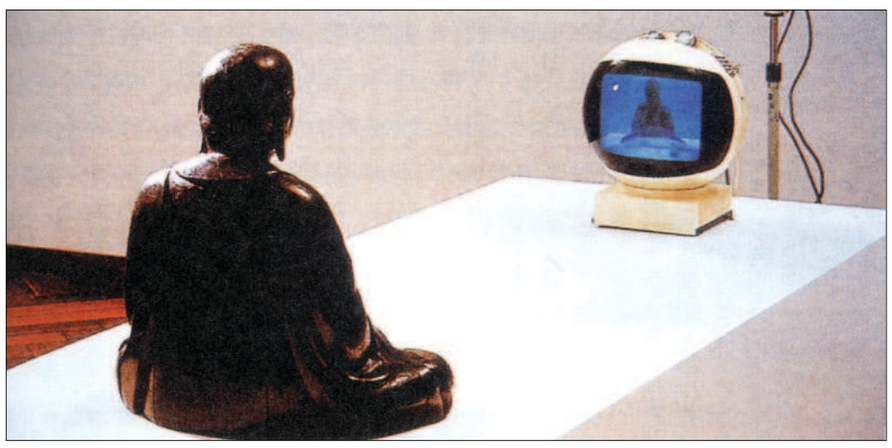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지금 여기 깨어있기	법륜스님	정토
2	꽃잎이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네	법정스님,최인호	여백
3	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	지승호	운주사
4	숨만 제대로 쉬면 무병장수 문제없다	수신오도	사유수
5	검색의 시대, 사유의 회복	법인스님	불광출판사
6	오직 즐거움뿐 (컬러링북)	박혜상	이층버스
7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	이제열	모과나무
8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9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월호스님,배종훈	민족사
10	꿈을 깨면 내가 부처	서암스님	정토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붓다의 마음과학서 찾아낸 '인공지능' 한계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TV 부처'



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
지승도 지음
운주사 펴냄
1만 5천원

인공지능 인류 멸망 초래할 수 있어
붓다의 가르침서 그 해결점 찾아
기존 과학 사고체계 아우르는 용광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문제 쉽게 설명

인공지능은 미래산업의 총아로 각광 받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류의 생존과 정체성을 위협할 위험성도 있다. 인간이 갖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무장 되면 인공지능은 충분히 인류를 파괴하거나 지배하는 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류와 상생의 동반자가 되거나 인류 행복에 이바지하는 인공지능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문제의식을 갖고 다양한 학문을 섭렵한 저자는 붓다의 사상과 과학을 접하고, 그 안에서 뚜렷한 가능성을 발견한다. 저자에게 붓다는 종교인이라기보다 유별난 탐구자이자 철저한 관찰자로서 마음의 과학, 지혜의 과학을 완성한 뛰어난 과학자였다. 과연 첨단과학인 인공지능은 붓다와 어떤 접점을 가지며, 붓다를 만나 어떤 모습으로 변화, 발전할 것인가? 이 책이 모색하고자 하는 방향이다.

저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소프트웨어학을 가르치는 정통 공학자이다. 그것도 인공지능의 대가이자 컴퓨터의 아버지로 불리는 폰 노이만(Von Neuman)을 계승해 생명체적 인공지능 학파를 형성하는 최첨단 공학자이다. 그런 그가 붓다를 내세우고 나서 주목 받고 있다. 게다가 붓다를 뛰어난 과학자로 칭하기까지 하면서 그의 사상과 철학을 최첨단 인공지능과 결합시킨다. 그는 붓다에게서 무엇을 본 것일까?

현대 과학기술의 최첨단에는 인공지능이 자리하지만, 아직은 그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단순히 방대한 데이터의 종합이나 분석 또는 프로그래밍된 반응을 뛰어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단계에 들어서야 진정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과 똑같이 지능이 발달하고,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종족보존 욕구를 갖는 로봇, 과연 문제는 없을까? 만약 로봇이 인간 처럼 탐욕과 분노, 이기심 등의 마음으로 행동한다면 어떨까?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이유이다.

인공지능에 대해 우려한 대표적 과학자는 스티븐 호킹이다. 그는 "완전해진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는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 진화 속도가 느린 인간은 자체 개량이 가능한 AI의 등장으로 경쟁서 밀리고 결국 AI에 대체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테슬라 CEO인 엘런 머스크 역시 "인류의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은 AI다. 인공지능은 핵무기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큰 우려를 표한다.

하지만 과학기술은 이미 좀더 기능이 향상된 인공지능체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 간다. 물론 거기에는 '통제 가능한 인공지능' 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하지만 어디 '마음' 이 마음대로 되던가? 여기서 저자는, 인공지능의 핵심은 마음의 문제에 있다고 본다. 즉 인공지능에 마음을 어떻게 그려 넣느냐에 따라 인류를 파멸에 빠트릴 전자가 될 수도 있고, 인류 행복에 이바지하는 후자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 마음의 문제 해결을 위해 그는 자신의 전공인 컴퓨터과학은 물론이고 뇌과학, 심리학, 인지과학, 철학 등을 섭렵했지만 그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그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감로수처럼 붓다를 만났다고 한다. 물론 그가 만난 붓다는 종교인이 아니라 과학자 붓다, 철학자 붓다였다. 철저한 공학자인 저자의 눈에 비친 붓다의 가르침은 과학 그 자체고, 기존 과학의 사고체계와 사상을 모두 아우르는 거대한 용광로였다. 붓다의 가르침은 간결하고 명료했으며 보편적이었다. 이렇듯 저자는 붓다의 사상에서 현재 인공지능이 안고 있는, 혹은 미래에 닥칠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는 해결점을 찾았으며, 그것은 바로 "이타적 마음"이었다. 오래 전부터 로봇은 영화의 주요 소재 중 하나다. 악당을 쳐부수는 착한(?) 로봇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악당의 손발이 되어 움직이는 로봇도 있다.

인간을 위해 헌신하는 로봇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인간을 지배하려는 로봇도 있다. 영화에서야 항상 착한 쪽이나 인간의 승리로 끝나지만, 과연 그렇게만 될 것인가?

새처럼 날고 싶은 마음(원인)에서 비행기(결과)가 탄생했듯이, 지금 인류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그림 그리느냐에 따라 미래에 나타날 존재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 그림에는 지혜롭고 이타적인 마음을 그려넣어야 하며, 그 사상적 배경에는 공(성)을 토대로 한 붓다의 철학이 자리한다.

저자는 자칫 무거워 보이는 인공지능과 붓다라는 두 가지 주제를 아주 가볍고 재미있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이 책의 큰 장점이다. 예를 들어,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을 등장시켜 인공마음시스템의 인식과정을 설명하며 "신이 인간의 뇌를 만들었나? 아니면 인간의 뇌가 신을 만들었나?" "세상은 뇌가 보는 것이 아니다. 뇌가 아는 것을 본 것이 세상이다."라는 식으로 재미있게 서술한다. 또한 '카사노바의 비결' 이라는 부제가 붙은 첫 장에서는 소개팅이라는 재미있는 소재를 통해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의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나간다.

이처럼 저자는 생활 속의 이야기들과 다양한 영화적 소재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시스템과 붓다의 사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는 방안을 붓다의 마음과학에서 찾을 수 있음을 드러낸다.

건강 원한다면?… "갓난 아기처럼 호흡하라"

숨만 제대로 쉬면 무병장수 문제없다

수신오도 편 | 사유수 펴냄 | 1만 7천원



인간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건강이다. 특히 100세 시대를 살면서 장수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을 위한 건강을 더욱더 중요시 여긴다.

이러다보니 신문을 비롯해 TV나 인터넷 등에는 수많은 건강식품과 운동기구 정보들이 넘쳐난다. 또한 의사들이나 운동 트레이너들은 갖가지 건강법들을 제안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살아온 인생이 틀린데 천편일률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건강을 찾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이 책을 펴낸 수신오도(修身悟道)는 몸과 마음을 같이 이완해 무심, 무소유, 무병으로 나아가고자 공부하는 수행단체이다. 수신오도서 수련법을 지도하는 적광 선사는 논산에 위치한 수련원서 회원들을 지도하고 있다. 수신오도의 수련법은 몸을 통해 마음을 닦아가는 수행법으로서 인간과 자연과 조화를 이뤄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함을 지향한다.

건강과 행복을 원한다면 우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는 게 최우선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몸 전체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호흡하도록 생성돼 있다. 그런데 갓난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낯선 환경에 두려움을 느끼고 울기 시작한다. 순간 몸은 굳어지고, 마음에는 경계심이 생긴다. 어른으로 자라면서 몸은 더욱 상하게 되고 호흡도 힘들어진다. 몸속에 피로물질이 쌓이고 질병에 걸리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숨쉬는 게 뭐 그리 어려우냐 싶겠지만, 이런 호흡스트레스가 몸을 경직시키는 주원인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몸을 갓난아기 때로 되돌릴 수 있을까? 답은 하나다. 숨을 제대로 쉬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갓난아기 때의 호흡으로 돌아가려면 몸을 이완해 일그러진 몸통을 펴야 한다. 몸통을 넓게 쓰면 산소가 많이 들어오고 호흡은 부드러워지며 몸도 건강해지기 때문이다. 병든 세포들이 건강해지면 몸이 편안하고, 그렇게 되면 마음 또한 시원하고 가벼워진다.

이 책은 몸과 마음이 자유와 평화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이다. 이를 따라 호흡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완의 힘을 믿는다면 당신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이 책서 건강의 핵심으로 '호흡'과 '이완'을 꼽는다. 제대로 호흡하고, 충분히 이완해 원래의 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갓난 아기의 몸으로 말이다. 저자는 갓난아기의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마음까지 아기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릴 땐 생각의 경계도, 분별하는 마음도 없었으니 스트레스도 없었고, 몸이 경직될 일도 없었다. 사람의 몸이 경직되고 제대로 된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된 건 결국 머릿속에 들끓는 마음이 원인이란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이 책에 따르면 마음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세포의 아우성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세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말이다. 통증을 느껴야 몸에 관심을 갖고 몸을 치료하지 세포의 문제라고까지 생각하지는 못한다. 상황이 이러니 마음이 세포와 연관된 사실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 세포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관리를 잘하면 몸도 마음도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 텐데 말이다.

건강하게 사는 호흡 원리, 이완 비밀 소개
실생활서 유용한 실천법도 수록

세포가 원하는 건 신선한 공기와 양질의 음식이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공급하면 세포는 끝없이 분열을 일으키며 생명을 이어간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중요한 것은 산소와 포도당을 세포 구석구석까지 전달하는 일이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데 모세혈관이 막히지 않게 관리해야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고, 몸을 이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세포가 편안하면 이완이 잘 되고 호흡도 깊어져 몸에는 깨끗한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 모든 신경이 되살아나고 혈액순환도 활발해진다. 활성산소가 생성되지 않으니 염증에서도 해방되며 몸과 마음이 편안해져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한편 이 책 마지막 장에는 실생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천편도 함께 수록해 놓아 직접 쉽게 따라해 볼 수도 있다.

김주일 기자

책속의 밑줄 긋기

–몸의 구조도 모르면서 호흡만 길면 다 되는 줄 아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이완하지 않은 몸으로 하는 호흡은 결국 몸을 다치게 합니다. 호흡이 뇌의 신경까지 닿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어떻게 숨을 쉬느냐에 따라 어느 호흡신경까지 닿아 몸이 이완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게 호흡의 도리입니다.

–이완은 특정 부위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전체 세포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세포를 병들게 하면 조직이 병들고, 그러면 장기가 병들고, 다음은 인체가 병듭니다. 그러니 세포 하나하나를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몸을 이완해야 합니다. 끝없이 이완해야 세포도 몸도 오래오래 건강할 수 있습니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70번째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한 몸에 받은 강맥을

신간! 실증설 5개국어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 위해 홀연히 펜을 들어 일시에 써내려간 실증설! 실증한 이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도리로 가득한 이 책이 드디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더하여 5개국어로 편찬되었다.

禪의 일상, 禪의 누림!
방거사어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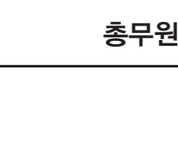


말 밖의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 할 수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 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 대원 선사님 서문 중에서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안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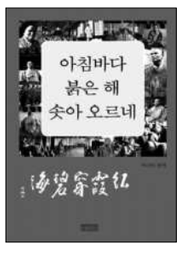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일거수 일투족 生生 법문”… 성철 스님 핵심 사상 논집 정리

아침바다 붉은 해 솟아오르네

책임편집 원택스님 | 장경각 펴냄 | 1만 3천원



성철 스님 사상의 핵심을 담고 있는 논집 〈백일법문〉 〈선문정로〉 〈본지풍광〉 등을 쉽게 풀어 낸 책이 발간됐다. 제목은 〈아침바다 붉은 해 솟아 오르네〉이다.

이 책에서는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재영 박사가 〈백일법문〉을, 부산 동의대 중문과 강경구 교수가 〈선문정로〉를,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영욱 박사가 〈본지풍광〉을 쉽고 명쾌한 글로 각각 해설했다.

이외에도 뉴욕 스토니부룩대 박성배 교수의 ‘돈오돈수설의 종교성에 대하여’ 와 중앙승가대 도서관장이자 서울 삼정사 주지인 원소 스님(성철 스님 상좌)의 ‘곁에서 본 성철 스님’ 원고도 함께 수록됐다. 위 세 책은 성철 스님의 핵심저작으로 꼽힌다. 〈백일법문〉은 성철 스님이 1967년 해인총림 방장으로 추대된 후 그 해 동안거에 100일 동안 불교의 핵심을 설한 것을 묶었다. 성철 스님은 ‘백일법문’ 을 통해 불교의 핵심은 중도(中道)에 있음을 강조했다.

〈선문정로〉(1981년 발간)와 〈본지풍광〉(1982년 발간)은 참선 수행의 방법과 근본 원리를 다양한 경전과 어록을 인용해 제시한 책이다. 성철 스님 스스로 “부처님께 밥값을 했다”고 말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인 저서들이다. 특히 성철 스님은 위 책들에서 ‘돈오돈수(頓悟頓修)’ 를 본격적으로 명확히 주창했다.

서재영 박사는 〈백일법문〉에 대해 말한다. “1960년대 한국불교계는 정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앞날을 예견할 수 없을 만큼 암울한 격동의 나날이었다.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 은 바로 이와 같은 시대적 어둠 속에서 포효처럼 울려 퍼진 사자후였다”며 “주제는 불교의 핵심적 사상, 돈오돈수와 같은 수증론 등 심원한 불교사상과 수행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다. 만약 이 같은 주제들이 실천이 결여된 채 문헌적 탐구를 통해 기술된 것이라면 종교적 의미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백일법문〉은 평생 수행으로 일관한 투철한 수행자가 펼친 법문이라는 점에서 내면적 검증을 거친 저서라고 볼 수 있다.”고 평했다.

이어 서 박사는 “〈백일법문〉은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으로 돌아감으로써 불교의 본래성을 회복하자는 성철 스님의 투철한 가치관이 배어 있는 저서다. 여기에 흐르는 주제의식은 도도하리만치 불교의 본질적 주제에 철저하다. 이는 근대 이후 발간된 불교권의 저작들을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이 책만의 특징이자 가치이다”고 덧붙였다.

강경구 교수도 〈선문정로〉에 대해 밝혔다. “〈선문정로〉는 참선수행의 지침이자 깨달음의 자기 점검기준으로 제시된 수행자의 길잡이 책이다. 그 핵심은 견성(見性), 돈오(頓悟), 무심(無心) 등의 단어에 집중되어 있고, 여기에 이르는 첩경으로 공안참구의

〈백일법문〉〈선문정로〉〈본지풍광〉 설명
서재영 강경구 김영욱 박성배 교수 등
학자들 쉽고 명쾌한 글로 법문 해설
상좌 원소 스님 ‘곁에서 본 스님’ 수록

길이 제시된다. 그런데 성철 스님은 여기에 ‘완전함’ 이라는 하나의 전제조건을 제시한다. 즉 철저한 견성, 완전한 돈오, 궁극적 무심이 아니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므로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참선수행의 과정에 얻게 되는 기특한 견해나 기이한 체험을 깨달음으로 인정하는 당시의 수행풍토에 대한 소박한 비판에서 시작되어 보조스님의 돈오점수 사상을 지해종도의 견해로 규정하는 비판으로 절정에 달한다.”며 “〈선문정로〉는 성철 스님의 수행 및 깨달음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집필된 책이라 평가된다. 이 책의 인용문은 전부 성철 스님의 발언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인용문에 개입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문의 생략과 추가에 자유롭고, 완전히 새로운 문장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문맥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학문적 엄밀성이 부족하다는 학자들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인용문에 개입하여 자기화하는 일은 중국의 전통적 글쓰기나 선사들의 설법에 드물지 않게 발견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논의의 편의성과 권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용한 문장이라 해도 결국은 성철 스님의 발언으로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영욱 박사도 〈본지풍광〉 ‘화두와 현재적 의미’ 에서 이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말했다.

“성철 스님은 이 책에서 자신을 아낌없이 드러내고 있다. 스님의 저술 가운데 선사로서의 진면목을 이처럼 철저하게 담은 책은 없다. 동시에 그 진면목을 깊이 숨기고 있는 책이기도 하다. 그만큼 이 책은 해독하기 쉽지 않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접근이 허용됐다. 더구나 〈본지풍광〉은 다른 저술들에 가려져 늘 뒷전에 밀려나 있었지만 이 책에 성철선의 핵심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이 책을 제외하곤 스님에 대해 아무리 비난해도 허공에 삿대질하는 격이고, 반면에 어떤 찬사로써 추어올리더라도 이 책의 진면목에 뿌리내리지 않으면 이 또한 터무니없는 소리일 뿐이다. 이런 방식의 칭찬과 비난은 모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맹목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박성배 교수와 원소 스님 역시 성철 스님을 만난 인연부터 가르침을 받던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박성배 교수는 “돈오돈수란 말은 쉬운 말이 아니다. 사람들은 보통 ‘갑자기 깨치고 갑자기 닦는다’ 로 번역하는데, 말도 안 된다. ‘점차 깨닫고 점차로 닦는다’ 는 점오점수(漸悟漸修)라는 한자어에 근거해 억지로 만든 말이다. 점오점수든 돈오점수든 점수파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 돈오돈수를 해석한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다. 점수파 사람들은 점수와 돈수는 말의 족보가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점수(漸修)는 연장적인 시간개념이 중심이 된 말이지만, 돈수(頓修)는 시간개념이 아니다. 꿈의 세계서 깸의 세계로 넘어올 때 시간의 길고 짧음은 문제되지 않는다. 꿈에서 깨어날 때 점차 깨어나든가 갑자기 깨어나든가? 점의 세계는 시간의 장단이 문제되지만 돈의 세계는 시간의 장단이 문제되지 않는다. 아니, 시간개념을 버려야 ‘몰록(頓)’ 이란 말의 참뜻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성철 스님을 시봉한 상좌 원소 스님도 이 책에서 스승에 대한 가르침과 추억을 밝혔다.

“성철 스님이 개인의 하루 일상생활부터 산중의 어른으로서 한 점의 흐트러짐이 없이 산 것은 그 당시 해인사에 살던 사부대중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바다. 그는 수행자의 위의를 잃지 않고 평생을 통해 치열히 살았기 때문에 스님의 일거수 일투족(一擧手 一投足)은 바로 살아 있는 법문이었다”며 “성철 스님은 사부대중의 지도자로서 수행은 물론 일상생활서 언제나 타의 모범이 되셨다. 공부를 마친 도인으로서 자기만의 정신세계에만 안주한 것이 아니라 승속을 막론하고 스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근기에 맞춰 지도하셨다.”고 회고했다.

〈아침바다 붉은 해 솟아 오르네〉 출간과 관련해 원택 스님은 “성철 큰스님께 참회하는 마음으로 소납의 고희 참회집을 내어 놓게 되었다”며 “박학한 학자님들의 붓끝을 빌어 큰스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쉽게 풀어 놓았으니, 진리를 깨쳐 성불하고자 하는 불제자들에게 어둠을 밝히는 훌륭한 횃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와 인문학 쉽게 배울 수 있는 스토리텔링

극락추천서

원빈 스님 지음 | 이층버스 펴냄 | 1만 2천원



이 책은 4월부터 방영된 BBS 불교방송 ‘원빈스님의 불교인문학:최고의 행복학, 불교’ 코너서 사용하는 교재다. 불교의 극락에 대한 정보를 현대인들에게 알맞은 인문학 자료인 도서나 영화, 사회현상과 대중문화 등을 예로 들어 쉽게 설명한다. 극락에 대한 경전들은 부처님과 여러 고승들이 마음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선정력으로 기록돼 자체 검열을 2000년 이상 견뎌온 높은 신뢰성을 가진 보물이다. 본문에서는 불교와 불교인문학의 개념, 믿음, 죽음, 삶, 연기의 기본개념부터 설명하고 극락에 대해 세친보살의 ‘왕생게’ 를 중심으로 극락의 기원, 구성요소의 성품, 극락에 대한 자세한 소개, 극락을 가기 위한 수행 등으로 전한다.

이 책을 읽다보면 윤회의 원리와 내생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극락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돼 자연스럽게 극락에 대한 건강한 확신과 신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스토리텔링 형식의 ‘무심이 이야기’ 는 극락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됐으며, 주인공 무심이와 함께 극락체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온 목적은 뚜렷하다. 독자들이 극락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

‘BBS 원빈 스님의 불교인문학’ 교재
‘왕생게’ 중심으로 극락 기원 등 소개

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극락세계를 소개하고 그곳의 아름다운 모습과 뛰어난 즐거움, 극락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시해 자연스럽게 극락에 대한 건강한 확신이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유도할 것이다.

저자는 “극락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 극락이 좋아지고, 극락왕생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이 책의 난이도는 난해한 교리의 설명은 피하고 핵심만을 간단하게 언급하는 정도로 조절했다”며 “인문 지식에 도움이 될 만한 도서나 영화, 사회현상과 대중문화 등의 인문 자료를 예화로 들어 일반 대중의 관심사에 걸맞은 방식으로 극락을 소개했다. 이렇게 극락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그 아름다움에 취하고 수승함에 반해 어느새 ‘나무 아미타불’ 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저자 **원빈 스님**은?
해인사서 출가한 스님은 중앙승가대를 졸업한 후, 육군 군종 장교로 임관했다. 전역 후에 템플스테이, 강연, 법회, 스터디 등을 통해 많은 대중들과 소통한다. 저서로는 〈같은 하루 다른 행복〉과 자기계발서 〈명상선물〉이 있다. 꾸준히 포교에 힘써 온 공로를 인정받아 제 2회 전법학술상서 대상인 바라밀상을 수상했다. 현재 행복문화연구소 소장이자 행복명상 지도법사이다. 중앙승가대 박사과정 재학중이며 동대학의 강사직을 맡고 있다. BBS 불교방송 라디오 〈행복한 2시〉를 진행했고, 현재 BBS 불교방송 TV 〈불교인문학〉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에도 첩첩산중 오지가 있다”

나봄

이기와 지음 | 시산맥사 펴냄 | 1만원



“남녘 땅, 강건너 첩첩산중에만 오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도 오지가 있다. 그대 안에 자리하고 있어도 그대가 단 한번도 가보지 못한 곳, 닫힌 시간의 상자마다 오래된 비밀이 쌓여 있는 곳, 하늬바람 부는 날 그대가 찾아올까 산벚꽃 후드득 떨구고 있는 곳, 평생을 울던 그대를 달빛 품에 안아 환히 씻겨 줄 그곳, 그대의 마음안에 까마득히 버려진 그대가 있다”

이기와 시인은 2002년 처녀시집 〈바람난 세상과의 블루스〉로 베스트 작가에 오른 이래 그녀가 발간한 책들마다 화제에 올라 언론계와 평론가들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아왔다. 2006년 ‘인간의 본성과 깨달음을 향한 여정’ 을 그린 〈비구니 산사 가는 길〉 이후 8년 만에 선보인 이번 〈나봄〉 명상시집. 이 책은 제목서 말해 주듯 과도한 인간의 욕망을 뒤로하고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 깊고 단단한 침묵을 통한 성찰과 그 속에서 깨달은 면면을 조심스럽게 시어로 풀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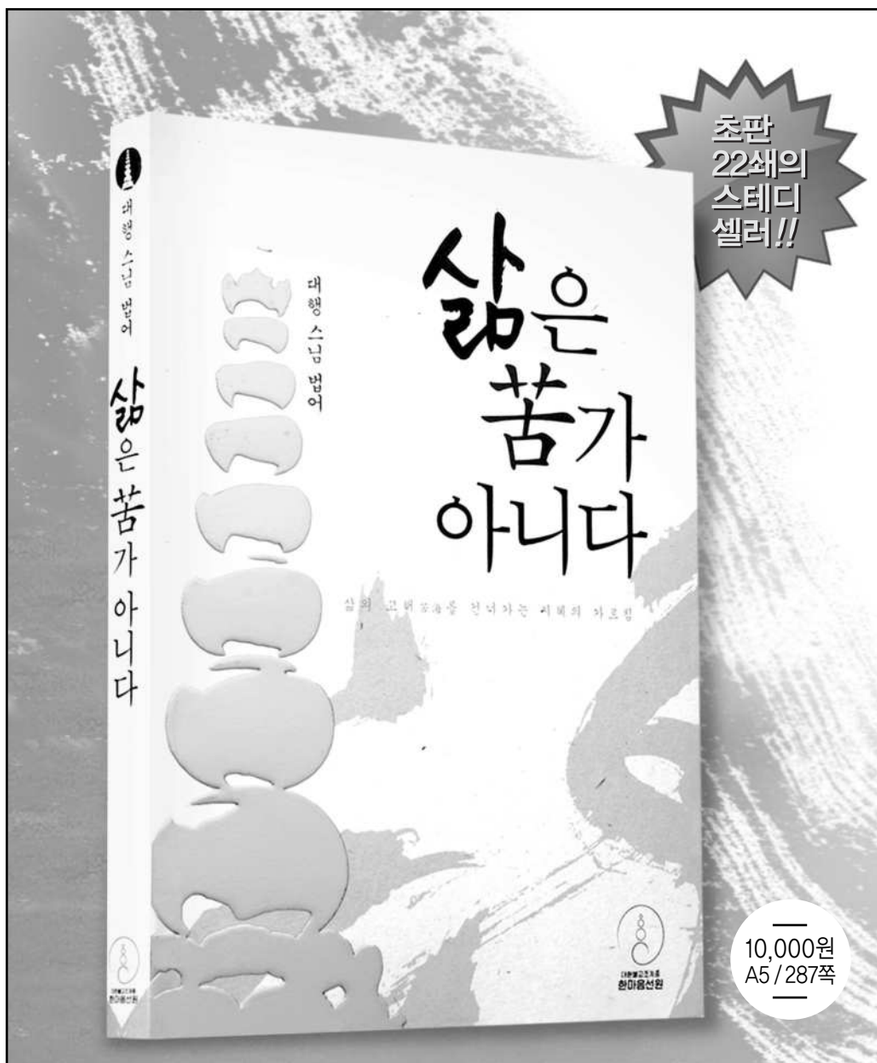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이 쏟아질 것이며, 마지막 장을 덮을 때에는 삶이 무엇인지 돌연 막막해져 현재 나의 삶에 저마다 유서를 써 놓고 싶을 것 같다.

침묵을 통한 성찰 명상 시어로 표현
라다크, 히말라야 사진 독서 미각 돋워

읽어가다 어느 한 문장 속에서 홀연히 왜곡된 의식의 전환을 맞이할 수도 있다.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한쪽 눈으로 바라보던 편견과 견해로부터 벗어나 보다 총체적이고 다원적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거시적 안목의 지평이 열리기도 한다. 한 문장 한 문장 놓칠 수 없는 잠언적 시구 속에서는 묵은 관념의 때를 벗길 수 있는 해법을 슬며시 엿보게 될 것이다.

이 책 왼쪽면에 배치된 시원스런 사진들은 독서의 미각을 돋워주는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한다. 모두 이기와 시인이 명상 여행을 떠난 인도 라다크와 히말라야서 가슴 깊이 담아 온 경외의 흔적들이다. 이 사진들을 보고 있노라면 인간의 말이 멈추고 생각 이전, 그 무엇에 가 닿은 듯한 절대고요의 느낌이 든다. 짤막한 잠언 형식으로 구성된 이 책을 단박에 읽을 수 없는 이유다. 사진 한 장에도 상념에 잠들게 만들어 책장을 쉽사리 넘기기 어렵다. 명상시집이란 책의 부제에 걸맞게 사진과 글을 통해 한없이 명상하게 만든다. 이 책이 가진 마력이다. **김주일 기자**

▲저자 **이기와 시인**은?
1997년 문화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시집으로는 〈바람난 세상과의 블루스〉 〈그녀들 비탈에 서다〉이 있고, 산문집으로 〈비구니 산사 가는 길〉이 있다. 인도 남갈사원서 달라이라마 티칭 및 따시종마을 캄바갈사원, 미얀마 파욱명상센터 및 담마마마까국제선원, 한국 호두마을 등서 수행함. 현재는 강원도 화천서 〈나봄〉명상예술학교를 운영중이다.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차별없는 평등 주장·실천은 '불이법문'

불교로 읽는 古典

화담 서경덕의 〈화담집(花潭集)〉



김문갑
충남대 한자문화연구소 연구교수

화담과 비트겐슈타인

벽에 하도(河圖)를 붙여 놓고 / 壁上糊馬圖
거적 속에서 삼년간 생각에 잠겼네 / 三年下董幃
태초의 혼돈으로 소급해 보면 / 遡觀混沌始
음양오행은 누가 발휘했을까 / 二五誰發揮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 1489~1546)의 〈천기(天機)〉란 시다. 하도는 낙서(洛書)와 함께 우주의 생성과 변화의 이치를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다. 화담은 이 그림을 벽에 붙여 놓고 삼년간 두문불출하며 원리 탐구에 골몰하고 있었다. 그는 사물의 이름을 벽에 걸어 놓고 그 사물의 이치가 궁구될 때까지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였다. 이런 화담의 모습을 그의 제자인 초당(草堂) 허엽(許曄, 1517~1580)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물건의 이치를 궁리할 적에 목록을 나열해 써 놓고 차례로 끝까지 궁리해 나갔는데 바야흐로 한 물건을 생각하다가 끝내지 못하고 변소에 가면 변소에서 오로지 계속 생각하여, 얼마 후에 이해하고 일어났으니 이렇게 힘들여 공부하기를 3년 동안 했다. 낮이면 밥 먹는 것을 잊고 밤이면 잠자는 것을 잊었으며, 혹 며칠 동안 문을 닫고 나무판 위에 단정히 앉아 있었는데 아무것도 깔지 않았다. 기혈이 막혀 무슨 소리를 들으면 문득 놀래곤 하였다. 이에 삼남 지방의 명산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1년 만에 돌아오니 그 후로는 몸이 충실하고 건강해서 움직이나 쉬나 모두 편안하였다."

어느 정도로 생각에 몰두해야 기혈이 막히는 지경에 이를까?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져 1년은 족히 휴양을 해야만 회복될 수 있다면 그 몰입의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

조선에는 천재들이 많다.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교산(蛟山) 허균(許筠),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 등등……손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신동과 천재들이 태어났다. 이들에 비해 화담은 신동도 아니었고, 천재라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하지만 몰입의 정도를 따진다면 아마도 화담을 능가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화담의 이런 모습은 B.러셀이 천재의 전형이라고 했던 비트겐슈타인을 연상시킨다. 그 또한 지독한 몰입형 천재여서, 한 가지 문제에 골몰하면 정신과 육체를 극단에까지 몰아넣었다. 그의 〈논리·철학 논고〉는, 러셀에 의한다면 비트겐슈타인이 미쳐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을 정도로 사색을 밀어붙인 결과물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쉬라는 러셀의 권유를 뿌리치고 노르웨이의 숲에 들어가 사색에 잠긴다.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터에서도 그의 사색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하여 철학사에 한 획을 긋는 이 책은 포로수용소에서 완성된다. 훗날 비트겐슈타인은 '그때 나의 정신은 불타고 있었다' 라고 회고한다. 러셀의 말대로 '열정적이고 심오하고 강렬하고 지배적인' 천재의 모습을 조선의 한가로운 시골에서 발견한다는 게 얼핏 신기하다. 심신의 안정 위에서 물 흐르듯이 순리에 따르는 학자의 모습이 연상되는 동양이기에 하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화담과 비트겐슈타인은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다. 동서고금이라는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 두 사람은 만나고 있다.

화담과 비트겐슈타인 모두 특별한 스승이 있었던 게 아니다. 비트겐슈타인의 경우 비록 러셀이나 케인즈 등 여러 학자들과 교류하며 많은 지식을 얻었지만, 그의 철학은 전적으로 그 자신의 숙고의 결과이다. 러셀과는 서로 다른 견해로 말미암아 멀어지기까지 한다. 비트겐슈타인이 남긴 두 권의 철학책, 〈논리·철학 논고〉와 〈철학적 탐구〉는 전적으로 그의 열정과 사색의 산물이다.

화담은 가난한 하급무사의 집에서 태어나 어떤 사승관계를 맺을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그는 전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깨우쳐야만 하였다. 율곡(栗谷) 이이(李珥)는 〈석담일기(石潭日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화담은) 항상 말하기를, '나는 스승을 만나지 못했기에 공력이 이렇게 몹시 들었지만 뒷사람들은 내 말대로 하면 공력을 나같이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자득(自得)의 즐거움은 사람들이 짐작할 수 없었다."

율곡의 논평처럼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학문이 전적으로 주자학(朱子學)에 의지하고 있었다면, 화담의 학문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룩한 것이었다.

당연히 이들의 철학은 매우 독창적이다. 비트겐슈타인이 분석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면, 화담은 일명 기일원론(氣一元論)이라는 새로운 성리학을 펼친다. 화담은 죽음에 임박하여, '성현의 말씀이 이미 경전에 있고, 선유들이 주석하였다. 여기에 내가 번거롭게 덧붙일 필요는 없다. 다만 아직 설파하지 않은 것만 지으려고 한다' 라고 하며, 〈원리기(原理氣)〉, 〈이기설(理氣說)〉, 〈태허설(太虛說)〉, 〈귀신사생론(鬼神死生論)〉 등 네 편을 초한다.

이런 독창성은 조선보다 오히려 중국에서 더 높이 인정되어, 〈화담집〉은 사고전서(四庫全書)에 한국인의 개인 저서로는 유일하게 등재된다. 화담철학이 북송의 성리학자 장재(張載) 철학을 표절했다는 등의 폄하는 그 독창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단견이다.

화담과 퇴계

"화담의 저서에 병통이 없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 그러니 그 인간과 학문이 어떤지 알 수 있다."

퇴계가 화담의 저술을 평가하며 한 말이다. 도대체 화담철학의 어떤 점이 그토록 맘에 안 들기에 고결한 인품을 지녔던 퇴계가 이토록 거친 말을 쏟아내며 비난을 했을까? 어쩌면 퇴계가 병폐로 주목했던 지점이 화담철학의 요체일지도 모르겠다.

태허(太虛)는 맑고 형체가 없는데, 선천(先天)이라고 부른다. 그 크기는 밖이 없고, 그 앞은 시작이 없다. 그 오는 바를 헤아릴 수도 없다. 맑고 고요히 비어 있어 기(氣)의 근원이다. (기가) 밖이 없는 멀리까지 널리 퍼져 있으며 충실하게 꽉 채우고 있어 터럭 한 올이 들어갈 만한 틈새도 허용하지 않는다.



화담 서경덕 영정

이론을 방편문자로 설한 철학자
달마·혜가·유마 모습 보여
"죽고 사는 이치 아니 편안"

화담에 의한다면 이 우주는 기로 꽉 차 있고, 기가 모이고 흩어지면서[聚散] 만물이 생기고 사라진다. 태허와 취산작용은 불교에서 말하는 바다와 파도의 관계와도 같다. 바다는 선천(先天)의 체(體)이고 파도는 후천(後天)의 용(用)이다. 우주만물의 생성소멸 작용은 마치 바다에 의지해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선천의 태허에서 기가 모이고 흩어짐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원리가 작동하기에 기가 모이고 흩어질 수 있는가?

'기(氣)의 밖에는 리(理)가 없다. 리는 기의 주재(主宰)이다. 이른바 주재라 함은 밖으로부터 와서 주재하는 게 아니다. 기가 용사(用事)함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까닭을 일컫는 말이다.'

파도가 일었다가 사라지고, 꽃이 피었다가 지는 모든 일들이 용사(用事)이다. 용사는 취산작용의 다른 표현으로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용사의 원리, 즉 취산의 원리가 리(理)다. 따라서 리는 우주생성 자연변화의 원리이며 법칙이다. 이런 생성변화를 리가 주재한다고 하면 리는 곧 주재자(主宰者)이며 조물주(造物主)이어야 한다. 그런데 화담이 말하는 주재의 의미는 그렇게 거창하지 않다. 화담철학에서 리의 주재성은 내재적인 이유라는 의미와 다름 아니다. 즉 삼라만상의 생성변화는 만물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그럴 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갑자기 뛰어 오르고 문득 열린다. 누가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리의 때라고 한다.'



화담집에는 그의 독특한 철학세계가 담겨있다.

꽃이 피는 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피는 것이며 지는 것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싶지 않다고 해서 피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지기 싫다해서 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부득불 어찌할 수 없기에, 부득이한 이유, 그게 리다.

이런 철학체계에서는 기독교적인 인격신은 물론, 스토아철학의 신의 섭리조차 용납되지 않는다. 젊은 남녀가 눈이 마주칠 때 가슴이 뛰는 건 누가 시켜서도 아니며, 억지로 못하게 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니다. 남녀가 때가 되면 사랑을 나누는 건 자연법칙이고 원리이다. 화담의 리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부득이한 언어문자, 방편반야(方便般若)에 불과하다.

하지만 퇴계는 이런 점이 견딜 수가 없었다. 리가 다만 문자에 불과하다고? 말도 안 돼! 이게 퇴계의 생각이었다. 퇴계가 볼 때, 기를 그냥 자체의 원리에 맡겨두면 남녀는 아무 때나 짝을 지을 것이고, 질서는 깨질 것이다. 꽃이 때를 맞춰 피는 것은 아무 때나 피지 못하게 하는 강한 통제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게 퇴계의 리다. 퇴계의 리는 기의 주재로써 기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한다. 기가 리의 통제에 순응하여만 우주는 질서와 조화를 지킬 수 있다. 한겨울에 꽃이 제멋대로 피면 얼어 죽는 것처럼, 기가 리의 주재를 벗어나 멋대로 작용하면 질서가 붕괴된다.

퇴계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현실인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퇴계는 생전에 세 번에 걸쳐 사화(士禍)를 목도한다. 사화는 선비들이 화를 부르고 선비들이 화를 당한 사건이다. 선과 악이 뒤섞이고, 정의와 불의가 뒤엉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간할 수 없는 지경을 보며, 퇴계는 선과 악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런 현실인식은 그로 하여금 강렬한 도덕의식을 불러일으킨다. 기를 따르다보면 때론 악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에는 선악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선한 리의 명령을 따르는 것만이 악에 빠지지 않고 도덕적인 이상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화담은 순수하게 자연법칙에 주목하였다. 반면에 형이상학적 자연법칙을 윤리학적 도덕법칙으로 환원시키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사실과 가치의 착간은 다분히 의도된 것이었다. 이른바 내성외왕(內聖外王)의 길. 조선선비들에게 지상과제처럼 받들어진 이 도덕적 이상사회의 구현은 한편으론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구조로 드러난다. 조선은 개체적 자율성에 방점을 찍는, 예컨대 불교나 도교는 말할 것도 없고, 같은 유학인 양명학, 같은 성리학인 화담철학까지도 억압하였던 것이다.

평등한 개체적 자율성

화담철학의 특징은 개체의 자율성이 존중된다는 데에 있다. 조선이라는 매우 차별적인 권력체제에서 무차별의 자율적인 개체성을 드러내었다. 이런 개체의 자율성과 평등성은 그를 불교니 도교니 하며 비난하는 근거가 되었다. 조선처럼 양반과 상놈, 적자와 서자,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나라에서 그의 사상은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조선의 지배권력이 퇴계 아니면 율곡의 문하에서 배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당연히 화담철학은 환영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화담 자신은 자유롭게 살았다. 또한 굳이 방외(方外)의 선비가 되지도 않았다. 그는 유학자요, 성리학자로 일생을 마쳤다. 왕에게 예(禮)에 관한 상소문까지 올릴 정도로 방내(方內)의 질서체제에 머물렀지만 체제에 구애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고, 자유인이었다. 진리에 몰입했고, 깨달음에 열정을 다하는 모습에는 9년 면벽의 달마(達磨)나 한쪽 팔을 자르는 혜가(慧可)가 보인다. 독단을 거부하고, 존재하는 모든 개체의 내적 자율성을 확립하는 데에서는 대승논사(大乘論師)들의 얼굴이 드러난다.

그는 지독히도 차별적인 사회에서 차별 없는 평등을 자신의 철학 속에 녹여냈고, 실천하였다. 마치 불이법문(不二法門)을 완성하고 설하는 유마거사가 환생한 듯 말이다. 화담은 천한 기생 황진이를 동등한 인격으로 대했고, 사랑했다. 그는 찾아온 사랑을 거부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빠지지도 않았다.

1577년 음력 7월 7일. 화담은 시자에게 부축하게 하고는 연못에 나가 목욕하고 돌아와 임종하였다. 향년 57세. 임종을 앞두고 한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 지금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에 화담이 대답하였다.

"죽고 사는 이치를 안 지 오래되었다. 내 마음은 편안하다."

그러고 보니 비트겐슈타인의 마지막도 오버랩된다. 말기암을 앓던 그는 죽음을 예감하고 문병을 오기로 한 친구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다.

"멋진 인생을 살았노라고 그들에게 전해주시오."

우리는 죽을 때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편안히 말할 수 있을까? 오늘도 내 삶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탈 종 공 고

• 법명 : 성준 (최준섭)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태장2동
주공아파트 206동 803호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6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인간의 길흉화복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혼들의 영향력 확인 천도법

일반적인 천도제가 아닌 내가영혼을
체험하는 확실한 영가천도법. 환자와 가족이 확인

1 영가장애를 상담자리에서 영가가 누구인지 확인체험
2 영가를 환자의 몸에서 확인가능
(6하원칙에 의한 빙의 경로 확인)
3 인체오라장 (생명전기장측정을 통한 과학적인
빙의 확인 치유과정 확인)
4 일반병, 정신병, 영가질환의 구분
(질병의 원인 영가장애 확인)
5 보라색과 파란빛, 황금빛으로 영가들이 천도되는
것을 확인
6 암, 당뇨, 고혈압,중풍,치매,우울증, 불면증,공황장애,
트라우마, 빙의, 무속병, 환청, 환시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질환의 원인규법 (유전병 치유, 특이성 질환)
7 영가들의 수준확인
⇨ 저급영가 – 한과 집착 질병 호소
⇨ 중급영가 – 진리를 찾아 방황과 혼돈
⇨ 고급영가 – 내면의 깨달음에 대한 갈망
8 신앙생활과 기도를 해도 진도가 없는분
스님, 불자분, 포교원
9 기도명상,만트라진언,영언수련을 통한
자신의 영혼과 교감으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과 삶의 가치확립, 영혼의 윤회 과정을
확실히 앎

검색 유튜브강의 자각선원 네이버카페 자각선원

자각선원 (인체전기파동의학) ☎ 043)296-5258. 010-9242-5259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원봉로 93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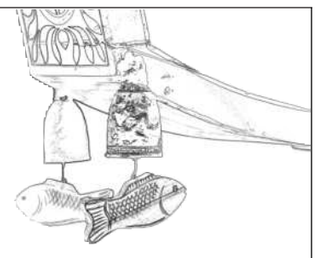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마음이 사람을 따르게 할지언정 사람이 마음을 따르게 하지 말라. 마음은 사람을 하늘도 되게 하며 축생도 되게 하기 때문이다.

- 불반니항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 음 범 패 대 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실전 방편술

명리와 귀장술 - 1개월 완성
기초를 알면 - 1주일 완성
사찰운영 하시는 스님, 보살님
무속인은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중생은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기도를 하면 성불을 받는가?
정확하게 답해 줍니다
호산 합장 010-5960-4984

손도사 태산스님의 독성불



수행식 중화요리 특허출원

새로운 메뉴 탄생, 밥두부 출원,
짜장이나 짬뽕이 국수(면) 종류지만
소승의 출원은 불교적인 메뉴개발,
채식의 변화 대중화, 연구비만 받고
자금부족으로 저렴하게 양도함
041-542-1120

청 소

- 이사, 입주, 상가,
공장, 사찰 청소
- 제초, 벌초작업
코끼리 청소가 하면 다릅니다
(서울 경기 지역)
(주)코끼리청소 1566-8986

인과의 업장소멸 해법

만사 만생의 고를 풀어가는 글문 비방
- 불치병 (병명無)
- 빙의(신병)
- 사업,소원,가정사상담
- 알수 없는 풍수탈
- 인생의 고는 인생방정식의 해법으로 답을 찾자
- 번뇌 해탈은 불정사에서
불정사 도정 치우 합장
051)558-5585.010-4593-2918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청암 달마도

장당 5천원 (40cm × 60cm)
선물이나 불사용
필요하신 스님들을 위하여
친필 달마도를 직접 그려드립니다
10장 이상이면 사찰명,
법명 써 드립니다
010-2953-8770 / 051) 202-8770
www.달마.kr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정릉)
02)919-0480

비구니 부전스님 구합니다

010-2748-3004

부전스님 모십니다

(울진 영명사)
010-2078-959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0-3774-4099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천년고찰)
010-8559-9400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밀양 삼봉사)
010-4484-575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진주, 60세 이상)
010-4450-2500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051-413-3318

원하는 대로 이루는 기도

- 아주 묘한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께 확실하게 전수 합니다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 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신심있는 공양주 2분과 거사님 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학림사)
010-7275-3730 원주스님
042-825-1724 종무소

천도재,49재,점안식등 모든행사 봉행함

영남범음범패,바라작법,오공양무 지전무,
살풀이,극락무등
010-8674-3839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화, 금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희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에너멀 에너지 힐링 세미나

* 반려동물(개,고양이 등)을 가족처럼 기르고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 반려동물의가벼운 병과 나쁜 버릇을 스스로 치료해주어 마음 고생을 덜으세요. 여기와서 (디바인 하트) 라는 기 에너지를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 교육시간 : 오전11시부터 ~ 오후 4시, 교육은 단 하루에 끝납니다
* 교육비 : 20만원, 미리 예약필요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www.Reiki.co.kr 02)720-5682. 010-8392-2557

구성학+현공풍수양택 무료공개강의

(4월16일 목요일 오후 3시30분-6시30분)

1. 구성학 인연관법으로 본인과 인연되는 조상영가, 대인관계, 재물운, 직업운, 부부운 등을 정말로 쉽게 찾을 수 있고, 운세을 개운하는 방법이 가능하며, 래정 및 점단 적중 확률이 실제로 높은가?
2. 현공풍수 양택을 내집, 내가게, 내사무실에 적용하면 정말 잘 맞고,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이고, 타고난 운명에 얼마나 도움을 줄까?

* 구성학+현공풍수양택 개강일 : 4월 23일(목)오후3시-7시(4시간씩 16주)
* 주소 :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65-2번지 세종오피스텔 317호
* 2호선 전철 서울대입구 3번출구 전방 80m 버스승강장 옆 안경박사 골목 전방 100m 좌측 세종오피스텔 317호
* 010-5116-9313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성학학회 강남 안병내 배상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불 교 의 식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점안식,
각종행사를 봉행합니다.
범음범패, 바라춤, 작법무, 살풀이, 극락무, 회심곡
다보사 주지 성원 합장
010-4802-3290

사람을 찾습니다

전원생활하시며 노후를 즐겁게 보내실 분. 비구, 비구니, 불자님
45 ~ 65세 부부환영. 신축주택 무료사용. 경우에 따라 식사 제공 가능.
김천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면 소재지 부근 계곡물 콸콸,
남향집이며 시내버스가 집앞에.

- 주변여건 : 대형 복숭아, 자두, 표고, 감나무 정원
- 조 건 : 3천만원 이상 투자 가능한 분, 투자가치 확실하며 등기도 가능합니다.

현재 비어있는 세 집이 있으며 수백평 정원이 정리되어 있고 마당에 잔디, 주차장 완비 총면적 약 3천평이며 유실수 등 텃밭도 있습니다.
기타 상세문의는 전화요망
전화 010-9923-2452 / 팩스 054)434-2452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님뫁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 (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덕천동 뉴코아백화점 뒤)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물이 풀과 약초와 나무를 키우듯이 청정한 원을 지닌
보살은 중생을 자비로 적시고 중생이 지니고 있는 맑고
깨끗한 성품을 키워준다.

- 보적경 -

사 찰 안 내

▶ 청정지역 토굴 안내◀
- 위치: 경남 고성
- 총부지: 970평 건물:4동
- 청정지역지정, 자연산 약초 (봉삼, 비비초, 산초, 제피, 엉개, 각종산나물 등등)
- 요양처 최적지(환우 있는분)
- 가액:1억 8천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관광 사찰 안내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1,900여평
- 건물 : 법당48평 및 요사채 38평, 원주실15평 세계불교박물관 (5,400여년 전 벼락 맞은 대추나무화석등 석물 300여점보유)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650평
- 가액 : 6억 5천 인수(은행 5억 별도)

※전국사찰 30년 역사※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 도심사찰 양도
- 목조법당과요사채(방사7).산신각.창고
- 토지 730㎡ 납골터.텃밭.주차장.노천불
- 양도금액 : 5억6천만(융자 2억)
- 원주 횡성 5분거리. 최고위치임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010-5369-4154 (창건주)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석현리 소양리 22-31
- 대지 1,240평
- 산식각, 미륵불, 요사채 없음 암반수
- 가액 : 9,000만원

010-3763-2809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여수,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6억 8천만원, 조절가능

010-3855-7885

010-3604-54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남 양산시 북부동 소재
- 삼존불, 방 5, 공양간
- 평수 85평
- 가액 : 전세 4,5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1,500백만원 (절충가능)

010-8384-7754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부지 : 220평
◎ 법당 : 50평
◎ 요사 : 60평
◎ 양도 : 6억5천

◎ 위치 : 경기
◎ 종교용지 : 770평
◎ 법당 : 40평
◎ 요사 : 40평
◎ 양도 : 5억3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석불,골동품,탱화,고서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경주시 계곡접(폭포) 관광사찰 양도
* 요사건물80㎡,스님실79㎡, 법당,산신각 등 건물 5동
* 토자 6.400㎡ 법당.산신각기와 단청됨.바위계곡접
* 양도가 : 12억(주차장. 전설과 문화재 급 있음)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까지 7분거리
- 대지 505평 등기 필
- 요사채 38평, 후면 창고 15평
- 요사채 위 법당 20평 2층
- 옥외화장실 6평 내 창고재중 6층석탑(제주석)
- 가액: 현평당 50만원
- 건물 전체 5,000만원 (건물양호 · 절충가능)

010-7517-7037

사 찰 안 내

- 위치 : 안동시 소재 남안동 IC 10분거리
- 법당 좌우로 실개천이 흐르는 합수머리
- 종교용지 대지 약 590평
- 법당 15평, 목조 기와 단청
- 산신각1동, 요사채 2동 1동에 2층 황토방 원룸
- 법당, 집기, 공양간, 일체집기
- 가액: 2억 8천

010-5114-0172

010-4320-8842

바다가 보이는 절터 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삼산면 장치리 위치한 삼면이 산으로 감싸고 앞은 탁트인 남향바다를 바라보고 있음
- 도로, 전기, 조경 농막허가(콘테이너)한동 설치
- 지목은 전(관리지역) 총 평수 1,104평
- 건축허가 가능
- 가액 : 2억 (주인직거래)

010-2002-10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장한평(5호선 5분) 자동차 시장 끝에 위치
- 아미타불,대세지보살,관세음보살,지장보살
- 소불 30불, 탱화(후불, 신중, 지장) 기타 불기용품
- 오피스텔 2층 15평(10층 건물 도시형 주택 및 사무실 약 170실)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2,500만원 합 3,000만원

010-9105-002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절 앞에 낙동강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음
- 평수 : 120평
- 인법당 27평,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 양도
- 잔디밭 마당에 7미터 지장보살
- 가액 : 1억 6천 5백만원

010-5555-8744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종교용지,대지,임야 및 건물 안내

- 주소 :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525-3 번지 종교용지 632 평방미터 525-4 번지 대지 686 평방미터 525-5 번지 임야 131 평방미터 525-7 번지 임야 457 평방미터 528-8 번지 임야 464 평방미터
- 건물 4채 60평, 15평, 30평, 5평
- 총 가액 : 7억

010-8817-842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곡성 3대명산 설산
- 암석으로 사자형상(사자앙천혈)
- 산 :1만3천평/ 종교부지 : 650평
- 건물 : 경량철골판넬 3동
- 식수 : 암반 지하수 (상수도인접)
- 특징 : 사찰, 연수원, 선원, 별장, 광주광역시 20분거리
- 가액 : 4억 2천 (절충가함)

010-7732-237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 40평
- 대지총면적 : 450평
- 즉시 법회가능
- 총양도가액 : 4억 7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가격조절가능)

010-4725-590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큰 도로변 버스정류소 앞
- 2층 약 60평, 큰법당, 방3 샤워실, 큰 공양간
-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시설 환경 A급
- 가액 :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천 3백만원(조절불가)

010-7337-1727

명당사찰 및 별장터안내

- 위치 : 포천 왕방산 대진대학 우측 중앙 위치
- 군신동조 혈자리 금시발복 거부장자 문무겸전 터
- 대지 300평, 1층 100평 / 2층 100평
- 가액 : 8억 5천

010-9292-311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 수성구 (지하철 부근)
- 평수 : 약 45평
- 법당, 방 3, 주방, 욕실
- 가액: 보증금 4,0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답사후 협의 (엄청 싸게 드립니다)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505-010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150-22(청용안 1길 4)
- 전통기와 한옥건물 대지106평, 건평52평,법당 22평,거실,방3, 후불탱화 4×8 1점
- 신중탱화 1점, 대리석 법단, 태양광 발전설치
- 가액 : 1억 5천만원 절충가능

010-4705-7711

010-6252-7711

사 찰 안 내

- 위치 : 홍천군 홍천강 상류, 경치 좋음. 경춘고속도로 경유 서울에서 1시간 거리
- 종교부지 312평, 대지 200평, 목조법당 30평
- 요사채 : 30평
- 가액 : 2억 6천

033-434-1365

010-2665-9978

명당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강원도 오대산
- 법정스님 집필 하시던 주변 50M 거리
- 좌청 우백 안산이 완벽 수려한 삼길육수
- 1,000평(대지 100평 포함)
- 꼭 필요하신분 연락주십시오

010-2678-0727

사찰 최적지 안내

- 위치 : 충남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282-8 남포저수지 앞
- 옥마산 정기를 받은 사찰
- 법당 외 부속건물 3채
- 건평 52평, 토지 377평
- 가액 : 3억 2천만원(주인직)

010-6444-4252

041-934-849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양산시 남부시장내
- 평수 : 34평
- 보증금 2,000만원 달세 25만원
- 보증금 3,000만원 달세 15만원
- 전세 5,000만원
- 시설비 850만원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합니다
- 부동산은 연락 자제 해주세요

010-9906-9668

토 굴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에서 20분거리
- 바닷가 5분거리 뒷산을 끼고 경관수려
- 별장 및 전원주택지, 채전밭 황토찜질방, 주차 6대
- 임법당 30평, 가건물 20평
- 토지 150평(등기 78평, 국유지 72평)
- 인근 대규모 아파트 개발 중
- 가액 : 1억 7천 300만원
- 법당 및 주방시설 완벽

010-4392-24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가액 : 2억 5천만원 (대출 1억 포함) 교환도 가능

010-8725-3196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50년된 사찰 안내

- 위치: 부산
- 법당, 방사, 공양실 합 50평
- 지하철 2분거리
- 몸만 들어 오시면 됨
- 가액 : 전세 4,000만원, 월세 30만원
- 절충 가능함

010-3574-330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강남 최고 요지로 주변상권 좋음. 전철 10분 거리
- 양옥으로 포교원 겸 토굴
- 남향으로 깨끗하고 아늑함
- 정원조성 되어있음
- 가액 : 보증금 1,300만원 월세 18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2887-2570

경내로 청정수가 흐르는 조용한 수행 도량임

- 위치 : 포항시 북구 죽장면
- 대지: 1408(약 425.92평)
- 전 : 83㎡(약 25.1평)
- 임야 : 103㎡ (약 75.02평) (주차장 완비)
- 가액: 3억 6000만원 (금액조정가능)

010-5479-5779(공산)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울주군 두동면 부근 부근
- 대지 187평, 대웅전 25평, 지장전, 삼성각, 대중방 8개 예쁜 용왕당
- 연못 및 청정 지하 암반수 있음
- 가액 : 보증금 4,000만원에 월 30만원
- 양도가 : 2억

010-4855-7205

010-3036-767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평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 황토방 2개, 화장실, 주방
- 집기 일체, 즉시법회 가능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가액 : 4억 3천(융자 있음) (절충가능)

010-3186-0361

사찰안내(국유지)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동
- 대지 734평, 인법당10평 정도
- 방 8개, 화장실 3개, 시설완벽
- 주차 : 마당에 10대가능
- 연못, 방가로 시설
- 가액 : 6억(절충가능)

010-4918-259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양산
- 2층 중 1층, 약 150평
- 법당 최고시설,
- 온천물 24시간 사용가능
- 주차시설완비
- 가액 : 전세 3,000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3574-330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 몸만 들어오시면 됨
- 시설비 일체 없음
- 보시고 결정
- 가액:전세 2천만원 월세 50만원(조정가능)

010-8620-8889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래)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위치, 양쪽계곡, 앞쪽으로 전망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관내
- 평수: 대지 167평
- 법당: 15평,(블록조)
- 칠성당: 3평(콩크리트벽조에 전통한옥지붕)
- 요사채: 판넬 33평 5년된 신축건물
- 마을뒤편 야산아래 남향, 경내에 100년된 고목이있음,
- 가액: 1억7천(절충없음)

010-9664-9127

봉안당(납골당) 안내

- 위치 : (재)미라클라파재단 소유 전북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산 59 임야 9만평
- 개요 : 봉안기 30,000기 연건평 1,500평의 설계 및 주민 동의를 완료하고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수군청에 설치 신고 준비 중
- 참여자 : 봉안당 사업을 희망하는 종교단체 및 개인, 단체로서 저희 법인에 참여 또는 법인인수 희망자
- 참여 및 인수가격 : 전화상담(참여 또는 인수)

010-3686-6140 (재단법인 이사장)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 5층 중 3층(32평)
- 삼존불, 신중, 칠성, 산신, 영가단, 소불 100불
- 시설완비(공양간, 방1, 실내화장실)
- 가액:보증금 5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

010-8423-2335

010-7430-119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경주 동국대 15분 거리)
- 건평 : 230평
- 방3개, 공양간, 산신각, 법당
- 집기류 일체 두고갑니다
- 몸만 오신면 법회 가능합니다
- 가액 : 1억 5천(조절가능)

054)334-6698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
- 종교부지 206평
- 건물 1층 34평, 2층 23평
- 뒷산계곡 목조황토기와
- 라운드 형으로 된 별장식 건물
- 가액 : 3억 8천

010-4562-10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부 성주군 금수면 무학3길 136-1
- 대지163평, 전답790평,
- 건평40평1채(준공5년), 12평1채(준공1년),
- 원두막1채, 각종 과실 나무와 약초재배중
- 경치좋고 사찰하실분께 추천
- 가액: 총2억3천만원(조정가능)

010-8591-1076

좋은자리에 한옥토굴 선원암자

- 별장 전통찻집 노스님 비구니 스님 적합
- 위치: 경북 청도군 풍각면 근교 대구밀양 30분
- 대지 236평, 건평 기역자 한옥 57평
- 내부인테리어, 에어컨 3대, 태양광전기설치
- 대밭, 잔디정원 양호, 마을 뒤 끝집
- 가액 : 1억 9천(대출 3천 5백) 실매입가 1억 5천 5백
- 곧바로 좋은인연 되십니다

010-7417-4560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 도심속의 작은 암자, 지장보살 도량
- 대지 45평, 방2, 거실, 욕실완비
- 기차역 터미널 걸어서 10분거리
- 보살님, 비구니스님 적합함
- 가액:수리비 포함해서 4,500만원

010-5308-0876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시 남구 대명동 (약 50평)
- 시설: 아미타 삼존불 완벽 법당 유 방3, 실내 화장실2, 에어컨 3 세탁기, 전자렌지, 목재8상탑 등
- 환경: 대로변 산중같은 암자
- 마당 화단유, 주변공원 15평 끼고 대중교통양호, 지하철 5분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세 20만원
- 시설비: 2,000만원(약간절충가능)

010-3505-9509

당산을 보유한 작은암자

- 위치 : 부산 서구
- 가액 : 보증금 천오백만원

일년월세 육백만원

010-5632-196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군 가곡면
- 면적 300평, 법당 40평
- 요사 51평(이층 15평 별도)
- 방사 : 11개 화장실 3개
- 가액 : 1억 6천(융자 3천) 전세 5천만원
- 안내 및 전세 꼭 하실분만

010-8993-359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기장읍 시장 입구 삼거리
- 카도 버스정류장, 시장부근 장소최적
- 3층중 2층, 법당, 주방, 욕실 창고 삼존불, 소불 108불, 에어컨1
- 가액 : 보증금 1천, 월세 3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4880-1533

사찰(급)안내

- 위치: 구미 근교
- 시내와 아주 가까우면서 삼면이 산으로 병풍처럼 감싸있고 사계절 용천수가 흐르고 양쪽계곡에는 가재가 살고 있는 청정수월 기도도량입니다
- 토지 : 2천 700평(법당,요사,임법당)
- 양도가 : 3억 8천만원(절충가능)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강북구 도봉세무소 뒤 농협은행 옆
- 평수 : 약 25평
-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보증금 1천, 월 50만원
- 시설비 1천 1백만원, 조절가능

010-8678-4945

포 교 원 선 원

- 위치 : 부산 금정구 남산동 전철역2분거리
- 4층 건물 중 2층, 약 50평, 큰 선방1, 방3개, 거실 및 주방
- 정남향, 조용함, 명상센터로 최적지, 주차장 있음
- 깔끔, 최신인테리어, 냉방, 바닦 필름 난방
- 가액 : 전세 1,500만, 월 6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9317-91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목포시 시내 유달경기장 부근
- 대지 40편 건평 30평 단독주택
- 삼존불. 신중단. 산신단. 칠성단 영단 모셔져 있고 욕실 있는 침실. 상담실. 공양간
- 신도용 외부 화장실. 소대할 수 있는 뒷마당과 창고
- 유, 무선 마이크. 프로젝터와 스크린 등 음향시설, 에어컨 4대. LED인등. 범종
- 가액:보증금 시설비 포함 1700만원 /월30만원
- 금액에 구애받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061-274-3981

화(Anger)-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2〉 호흡과 보행은 훌륭한 처방전

틱낫한 스님(승려 · 평화운동가)

"마음 꽃밭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화가 났을 때 남의 탓을 하지 마라

화가 치미는 순간에 우리는 대개 그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기가 쉽다.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통이 다 남들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믿으려 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자기 안에 들어 있던 어떤 화의 씨앗이 고통을 일으킨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일을 당했어도 냉정을 잃지 않고 흥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너무도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 있는 화의 씨앗이 너무 크기 때문이며, 화를 보살피는 방법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씨가 더욱 커져왔던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의식의 깊은 곳에 화의 씨를 갖고 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화의 씨가 가령 사랑이나 이해 같은 다른 감정의 씨보다 더 큰 경우가 있다. 화의 씨가 더 큰 것은 그것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각의 에너지를 길러내기 시작하면, 우리의 고통이나 불행의 원인이 타인들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들어 있는 화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맨 먼저 통찰하게 된다. 타인들은 단지 부차적인 원인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한 통찰에 이르면 커다란 위안이 오고 기분이 훨씬 좋아진다. 그러나 그 같은 통찰을 얻기 위한 수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지옥을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화를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의 눈에는 화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확연히 구별된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돌려주어야 한다.

화를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 화를 주위 사람들에게 쏟아 붓게 된다.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고통스러워진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신의 화를 주위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화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가장인 사람은 식구들의 안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그는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식구들마저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통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그의 고통은 그 개인만의 고통으로 그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의 행복도 그 자신만의 행복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몹시 화가 났지만 그 화를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는 또 주위 사람들마저도 고통스럽게 만든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은 응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 때문에 나까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게 벌을 주고 싶어한다. 그러나 10분이나 15분쯤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고 걸음걸이를 자각하면, 그 사람은 응징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가 나에게 매우 가까운 사람일 경우, 내가 돕지 않는다면 누가 그를 도울 것인가?

자신의 화를 끌어안을 줄 아는 사람은 타인들이 고통을 당하는걸 보면 마음이 아파진다. 이 새로운 안식이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다고 하는 마음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른다. 그리하여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돕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해진다. 이것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다. 이제는 그 사람을 응징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화가 연민의 정으로 바뀐 것이다.

자각은 집중과 통찰로 이어진다. 통찰은 자각이 맺어준 결실이며,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준다. 15분이나 30분쯤 자각을 실천해 집중과 통찰력을 갖게 되면 자신의 화로부터 해방 될 수 있고, 자애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그것이 모든 인간관계에 꽃을 피우는 변화의 방법이다.

화내는 것도 습관… 연결고리 끊어라

여름철마다 플럼빌리지에 와서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수련을 하는 열두 살짜리 소년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 어렸을 적에 가령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친다든가 하는 실수를 저지르면 아버지는 아들을 위로하기는 커녕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이 바보 같은 놈! 넌 어떻게 하는 짓이 늘 모양이지?" 고작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정도의 실수를 갖고 그처럼 험악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러니 그가 아버지를 자애롭고 훌륭한 아버지로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이 다음에 커서 결혼을 하고 자식들을 갖게 되면 자신은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들이 놀다가 다쳐서 피를 흘리더라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 않을 것이며, 아들을 품에 안아서 위로해 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플럼빌리지에 두 번째로 왔을 때 그는 여동생을 데리고 왔다. 여동생이 다른 소녀들과 함께 그물 침대에서 놀다가 떨어졌다. 돌멩이에 머리를 부딪혀서 얼굴에 피가 철철 흘렀다. 갑자기 그는 화가 치밀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여동생한테 "바보 같은 계집애! 넌 어떻게 하는 짓이 늘 그 모양이지?"라고 곧 소리를 지르려 했다. 아버지가 그에게 했던 바로 그 말을 그도 여동생에게 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플럼빌리지에서 두 번이나 수련을 한 덕분에, 그 순간에 스스로를 억제할 수 있었다. 소리를 지르는 대신에 그는 얼른 그 자리에서 벗어나 의식적인 호흡과 보행을 실천했다.

그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여동생을 도왔다. 그리고 불과 5분 만에 그는 어떤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했다. 그는 여동생이 다친 데 대해 그가 보인 과민한 반응이 바로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습관적 에너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의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여동생을 아버지가 그를 대하던 방식으로 대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습관적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그도 거의 아버지와 똑같이 될 뻔했던 것이다.

열두 살짜리 소년에게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깨달음이었다. 그는 계속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습관적 에너지를 처리하기 위한 수련을 해야겠다는 열망이 차올랐다. 나중에 자기 자식에게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며, 자각을 실천하기만 하면 그 고통의 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플럼빌리지에 모인 틱낫한 스님과 신도들이 연꽃을 바라보고 있다.

쉽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내면의 화 씨앗이 크기 때문

화 보살피는 방법 훈련 않으면
화의 씨앗은 더욱 커지기 마련

화가 날 때는 10~15분 동안
호흡과 걸음걸이 자각하면 좋아

소년은 그의 아버지도 화에 전염된 희생자라는 것을 그제야 알 수 있었다. 그의 아버지도 그를 그런 식으로 대하고 싶지가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 습관적 에너지가 너무도 강해서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버지도 역시 전염된 희생자였으리라는 통찰이 오자 아버지에 대한 그 동안의 화가 말끔히 사라졌다. 그리고 몇 분 후 그는 갑자기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수련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열두 살짜리 소년으로서 그것은 참으로 대단한 깨달음이 아닐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를 응징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자신의 수련이 성공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이제 훌륭한 정원사가 된 것이다.

우리 모두의 몸 속에는 꽃밭이 있으며, 모든 수련자는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그 꽃밭을 가꾸어야 한다. 그 꽃밭을 오랫동안 그저 내버려두고 차마 손대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그 꽃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모든 것을 정돈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예전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반드시 복구해야 한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꽃밭을 즐기게 될 것이다.

속이 시원하려면 반드시 화해해야

우리는 상대방과 언쟁으로 감정이 상할 때가 있다. 그 경우 반드시 분쟁의 당사자와 화해를 해야 한다. 그래야 서로의 불편함을 씻고 내 마음에 위안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분노의 원인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면, 그 사람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될 것이다. 그는 자문할 것이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던 거지? 내가 무슨 말을 했기에 그 사람이 그리도 마음이 아팠지?"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를 가질 것이다. 그는 자기가 이제까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줄 만한 말이나 행동을 자주 했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의 고통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 책임도 없다고 믿어왔던 생각을 의심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미숙한 탓으로 본의 아니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잦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도 이내 나에게 그 사실을 말해올 것이다.

두 사람 다 주중에 그 같은 깨달음을 얻으면, 금요일 저녁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금요일 저녁에는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정담을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마음껏 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주중에 그 깨달음에 이르지를 못했다면, 금요일 저녁에는 서로의 말에 깊이 귀를 기울이고 사랑의 말로 대화를 해야 한다. 화가 난 쪽은 자기의 가슴 속에 들어 있는 것을 털어놓을 권리가 있다. 그 사람이 나의 배우자라면 나는 그저 말없이 그의 말을 들어 주기만 해야 한다. 깊이 귀를 기울이기만 할 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다짐을 해두었기 때문이다. 연민의 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평가나 비판이나 분석을 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그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아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자세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신의 고통을 상대방에게 말할 때는 마음속에 쌓여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권리가 있다. 그것은 또한 의무이기도 하다. 상대방은 모든 것을 다 들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이미 그렇게 하기로 서로 다짐하고 약속했다. 그러므로 가슴속에 들어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해주어야 한다. 자애로운 말로 차분하게 자신의 심정을 다 털어놓아야 한다. 분개심이 고개를 들거나 흥분이 일어날 때는 당장 말을 그쳐야 한다. "지금은 더 말을 못하겠어. 나중에 다시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될까? 호흡과 보행을 자각적으로 하는 수련을 좀 더 해야겠어. 지금은 상태가 좋지 않아. 차분하게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상대방도 이해를 하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어쩌면 다음 주 금요일 저녁까지 기다려줄 것이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동안에도 호흡을 자각해야 한다.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면서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비울 수 있다. 연민의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전부를 그에게 던져놓는 채로 그의 앞에 앉아 있으면 그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 나의 마음속에는 연민의 씨앗이 있다. 그가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그 씨앗이 싹을 틔우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관세음보살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된다. 위대한 연민의 정을 베푸는 관세음보살은 단지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 현실 속에 실재하는 인간이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화(Anger)-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명진출판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중산리 부근
- 평수 : 200평
- 황토 이중벽으로 완공 된 법당 및 요사채 (방3칸),후원 9평, 몸만 오시면 됨
- 수양 정진 도량
- 가액: 1억 7천만원(시설비 포함,절충가능)

010-3895-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리
- 대지 300평(전450평)
- 대웅전 25평, 요사채 35평
- 대진해수욕장 차편으로 10분거리, 고래불 해수욕장 5분거리 화목 기름보일러설치
- 가액 : 2억 8천(대출금융 4천 5백만원)

010-4747-3164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면목역 5분
- 6층 건물중 6층 약 80평, 옥상사용가능
- 법당, 삼존불, 삼성각, 영가단, 각단 탱화
- 스님방,종무소방, 공양간, 화장실 2개
- 밖에 정지따로 가마솥4개 바닥전체 도시가스
- 연등 1,000개, 영가등 1,000개 몸만오십시오
- 가액:보증금 5천만원 월 155만원(관리비 포함)

*시설비는 포교 열심히 하실 스님께 조금만 받겠습니다.

010-2127-4755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광양시와 순천시 접속지역
- 도시 한복판이면서 숲속 뒷산은 울창한 소나무
- 절 앞은 큰 시냇물과 저수보 시내 건너엔 아파트 밀집촌
- 대지 730평, 임야 3,700평, 대웅전 30평 요사 2채 50평, 방 5개 창고 등
- 가액: 4억 5천

010-2124-3620

사찰,치유힐링원,연수원
- 위치: 경남 합천군
- 한옥 본관 80평 • 한옥 주택 32평
- 한옥 화장실 6평
- 황토 초가집 3동
- 전망이좋고 조경이 잘되어 있음
- 사찰, 치유힐링원, 연수원
- 운영에 아주 좋음

010-3521-692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연봉산자락
- 대지 400평, 법당 40평, 창고 30평
- 불상및 비품시설완비, 주차시설완비
- 아득하고 조용한 남향터
- 가액 : 1억4천만원

054)931-4449
011-543-2161
010-3123-3113

사 찰 안 내
- 위치 : 거제시 중심부
- 대지 : 2,103㎡ 건평(법당, 요사) : 329.4㎡
- 창고, 기타 : 약15평 외 약 25평은 기초공사 완료되어 있음
- 석등외 조형물 다수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이 좋음
- 가액 : 7억 5천

010-7582-0098

청 평 한 옥 안 내
- 위치: 청평
- 대지 : 199평, 건평 :30평
- 전통한옥에 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3,(큰방1, 작은방 2개 중 하나는 구들방임)
- 욕실2, 거실, 주방, 패치카, 석유보일러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가액 : 2억 6천만원

직거래 010-9411-530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 평수 : 대지 248평, 법당 23평, 요사채 2동
- 텃밭(마당 잔디), 방가루, 조경, 전망 좋음
- 시청, 은행 등 관공소 도보 10분거리 뒷산 지상공원 확정
- 가액: 6억 7천만원 (대출 3억 안고 양도금액 3억 7천)

010-5019-5385

절 터 안 내
- 최고의 명당 절터
- 대지 3000천평 내 가옥 60평 한채
-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이 살아있는곳
- 대형차 진입가능
- 가액 : 4억

011-9583-3107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전시 서구 둔산동
- 4층 건물 2층 40평
- 대웅전1, 서재1, 큰방 1, 작은방1, 주방겸 거실 1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108소불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는 협의 가능

010-8653-321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 언양시장 상가 지역
- 전체 75평, 건평 24평(작은 텃밭)
- 1층 방3, 주방, 욕실, 마당해수관음 2층 법당 삼존불, 삼성각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시설일체완비)
- 시장안에 위치해 포교하기 좋음

011-9542-8250

납골당 · 수목장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내석리 산 36번지 (구, 청운사)

■ 토지(임야) : 36,199㎡ (약 10,650평)

■ 건축 : 지역 / 지구 : 도시지역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산지전용 대지 면적 : 3,223㎡ (약 975평)
-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 면적 : 1,259.96㎡ (약 381평)

■ 현재공정율 : 70% 골조완료 마감공사중

■ 가액(매도)예정가 : 현재상태인수 15억 (2015년 4월 기준) 완공후 허가취득시 22억

■ 상담문의

010-9344-1661

주어진 일을 즐겁게 생각해요



친구가 잘하는 것은 인정하고 칭찬하겠어요

I will praise my friends when they do something well.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Abraham Lincoln, 1809~1865년)은 젊은 시절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웃기로 유명했습니다. 링컨은 그것이 나쁜 점이라는 것을 알고 고치려고 애썼습니다. 화가 났을 때 쓴 편지는 바로 부치지 않고 며칠간 보관했다가 다시 읽어볼 정도였습니다.

링컨에게는 적도 많았습니다. 특히 에드윈 스탠턴(Edwin Stanton, 1814~1869년)은 변호사 시절부터 링컨과는 앙숙이어서 링컨을 '어릿광대, 고릴라' 라며 인신공격을 하곤 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미국에서는 남북전쟁(1861~1865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남부와 북부는 흑인 노예제도 등의 사회문제를 두고 대립 중이었는데, 북부의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 남부가 반발해 내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북군을 지휘하던 링컨은 스탠턴을 육군장관에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면 안 된다고 말렸지만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드윈은 애국심이 강하고 지나치리만치 정직하니 일을 잘 해 낼 겁니다. 게다가 노예제도 폐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니 육군장관에 적임자가 아닙니까?"

링컨의 판단은 맞았습니다. 스탠턴은 군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물자를 아껴서 북군이 승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비인간적인 노예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전쟁에 패한 남부 사람의 총에 저격을 당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스탠턴은 '이제 그는 한 시대의 역사가 되었다' 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스탠턴의 실제 성격은 매우 무뚝뚝했으며 남에게 폭언도 서슴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링컨은 자기를 비난하는 스탠턴이었지만 그의 좋은 점과 능력만은 인정하고 칭찬했습니다. 그 결과 남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노예 해방이라는 역사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만 보려고 한다면 좋은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링컨이 스탠턴의 능력을 보려 하지 않고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 지어 버렸다면 오늘날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 칭찬해 주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 그 친구에게서 본받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요?

나는 친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겠어요

I' ll try to let go of feelings of jealousy.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1452~1519년)와 미켈란젤로(Michelangelo, 1475~1564년)는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 예술가들입니다.

다빈치는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등을 남긴 화가이면서 조각가, 건축가, 발명가, 과학자로 활동했습니다. 미켈란젤로 역시 조각가, 화가, 건축가로 활약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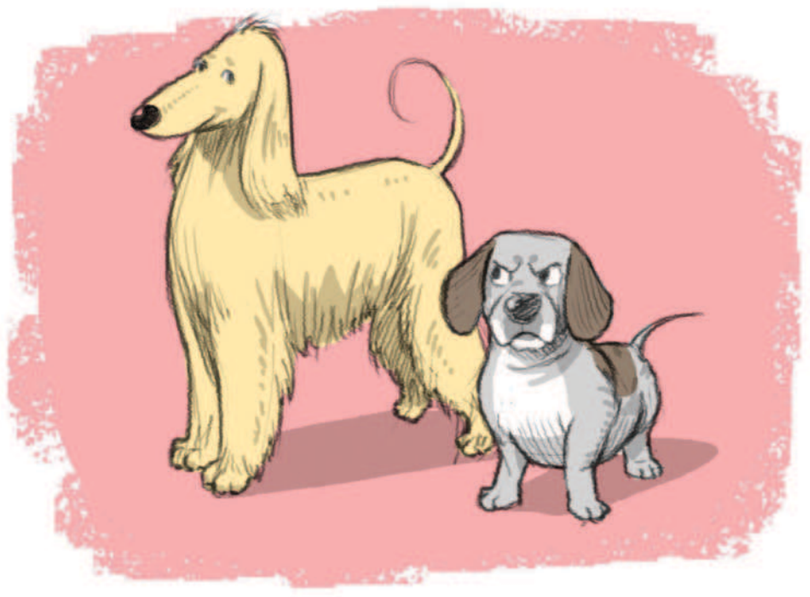
같은 시대를 살았던 두 천재 사이에는 경쟁심이 싹텄습니다. 사람들도 두 천재의 대결을 은근히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피렌체 사람들이 정부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한 쪽 벽화는 다빈치에게, 다른 한 쪽 벽화는 미켈란젤로에게 의뢰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결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둘의 경쟁관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는 서로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알고 싶어 했고 따라 그리기도 했습니다. 경쟁심을 통해서 둘은 더 나아지려고 애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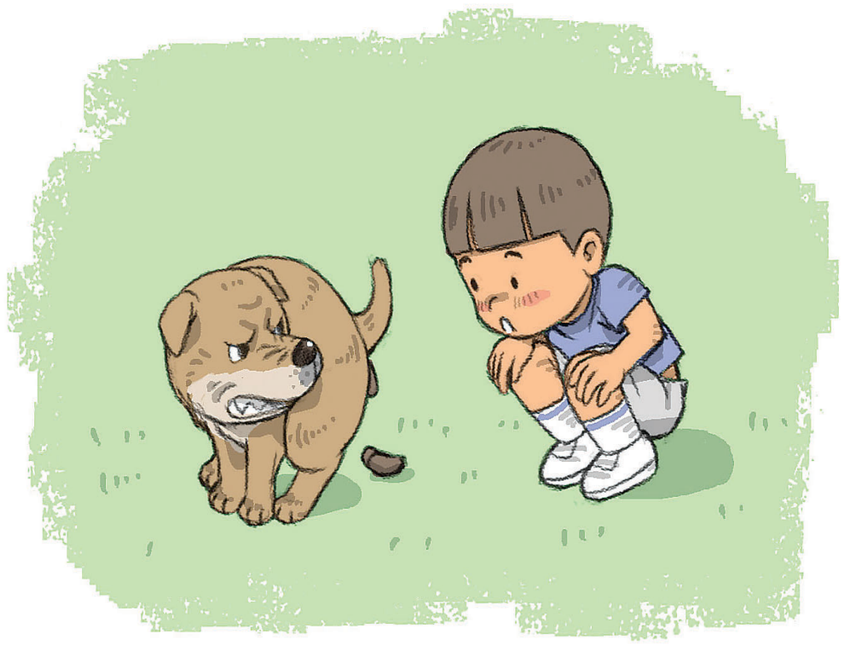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질투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시기심과 질투를 앞세워 남을 헐뜯기만 한다면 남는 건 심술궂은 자기 모습뿐입니다.

시기심을 앞세우기 전에 상대를 인정하고 그에게서 배우려고 노력하면 발전이라는 뜻밖의 선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 친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해 본 적이(혹은 질투 받아 본 적이) 있나요?
* 질투를 했거나 받아 보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 시기와 질투는 왜 나쁠까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변에 관심을 주면 호기심이 살아나고 생활이 즐거워져요

I will be aware can care about what happens around me.

"나에겐 특별한 재능이 없다. 단지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가질 뿐이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이자 1921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1879~1955년)의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궁금한 것이 생기면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상상력이 풍부해서 온갖 신비한 일들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과학자가 비과학적인 신비한 일에 관심을 갖다니 이상하게 들리지만, 아인슈타인은 신비한 일에 대한 관심이 야말로 예술과 과학의 바탕이라고 했습니다.

영화 아바타를 만든 미국의 영화감독 제임스 카메론(James Cameron, 1954~)도 어린 시절의 호기심에 대해 고백합니다.

"학교 수업이 없는 날이면 숲에서 하이킹을 하거나 개구리, 뱀 같은 것을 관찰했습니다. 벌레나 연못의 물을 채집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기도 했지요."

호기심은 사람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바꾸어줍니다. 새로운 생각을 심어주고, 남들이 볼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 앞에 펼쳐줍니다.

호기심으로 인해 우리 생활은 늘 즐겁습니다. 호기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언제, 어디서, 무엇에든 관심을 주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즐겁게 생각하고 '왜,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와 같은 질문을 꾸준히 던지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책읽기를 통해서 내가 모르는 세상을 접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에 호기심을 갖고 있나요?
* 호기심과 상상력이 풍부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 호기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3칸겹집 목조건물 : 11,000㎜×6,000㎜×4,800㎜ ■가격 : 평당 1,500,000원
다그라스목재기둥 180×180×2700 / 다그라스 대들보 180×210
다그라스목재도리 180×180 / 다그라스서까래 100×100 / 목재판재 120×18
전통강판기와 주춧돌 300×300×300 ※황토흙 ALC 블럭 내화벽돌 판넬 자유 선택
원하는 평수 가능 토목공사 부가세별도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조립식 평상 : 1800×1030×400㎜
~~가격 29만원~~ → 할인가 19만원
부가세 운송비 별도
폴리프로필렌 자재 – 기둥 110×90×400 / 도리 80×35 / 중간대 80×35 / 마루판 210×12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지구산업
www.지구산업.com
TEL 063)323-3011~2 / FAX 063)323-3010



자연산 구지뽕
묘목 분양 (3년, 5년생)

무노동으로 (2,000평) 연봉 1억이상 가능!!
●구지뽕 나무는 잎파리, 가지, 열매, 뿌리 등 전체를 건강식품, 약재로 쓰고 있습니다.(고혈압, 당뇨, 근골강화, 면역력 증진에 특효)
●최고 소득 작물로써 자연산은 한번 심어 놓으면 300년이상 사찰자립에 꼭 필요한 나무입니다. (500년 이상도 가능)
●무농약, 무비료, 무퇴비로 키워야 더 좋음으로 사찰자립, 귀농귀촌, 은퇴 후 생활에 최적의 고소득 효도나무입니다.
▶3년생 7,000주 ▶5년생 5,000주 보유중

개복숭아 묘목분양 (1년생)





• 강원도 350고지 이상의 토종 자연산 씨앗으로만 발아
• 무농약, 무비료 노동력 無
• 열매솎기, 밭매기가 전혀 필요 無
• 꽃이 황홀해서 관상수로도 최고!
• 한번 심어 놓으면 150년이상 수확 (300년 가능)
※ 전국 최대 묘목 보유! (50주이상 주문 부탁)

구입문의 010-9608-2356(충주농원)
입금계좌 : 농협 123-02-311652 (이상국)

수정기공 및 기공재활사 자격과정 특강

(사람정비 메뉴얼 수정기공)이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수정기공 재활사) 민간자격(2014-5765)을 등록하고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아직도 약물이나 침 뜸 지압, 마사지 등으로 질병을 치료를 고집하는가?

수정기공은 1-3차원에 강압에 준하는 단계가 아닌 거의 힘을 주지 않는 4단계를 지나 과거 설화나 천기누설같이 사랑의 극치인 5단계 재활 단계로 영육간 불편했던 모든 장애인에게 건강과 희망과 행복을 재활시키는 꿈의 결정판입니다.

◆강 의 일 정 : 매월 첫주 일요일 시작, 1개월 4주 단기코스 (일정변경 가능)
◆강 의 내 용 : 기공을 이용한 사람정비 매뉴얼
◆접 수 인 원 : 선착순 8명 이내.
◆수강 대상자 : 의료인, 물리치료사, 건강과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모든 남녀.

1 강 사 : 김문기 원장 (박사 / 한국 신지식인)
2 교 재 : 환상의 통증치유 STT의 4단계와 5단계 기공법 전수
3 강의 장소 : 수원 성균관대학 전철역 앞
4 접수 및 상담 : 010-3463-7806
5 수강료 : 수정기공 수료 및 자격증 취득과정 전화 상담
6 참고 홈페이지 : soojung99.pe.kr



대행 스님

항복을 받는 사람도 나요 항복을 하는 사람도 나다!

싱그럽게 공부할 수 있으려면

질문 끊임없이 들고 나는 습기를 녹이고 항복 받고 싶어서 마음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단체에 소속이 되어 공부를 하다 보니 저의 마음에 집중하기보다는 주위 도반들의 모습에 울고 웃고 기뻐하고 실망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금강경에도 내 마음을 항복 받는 방법은 중생심을 내지 않으면 된다고 하였는데요, 제 마음을 항복 받고 주위 도반들과 더불어 싱그럽게 공부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하는지요?

답변 우리가 싱그럽게 공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는 언제나 나를 세우지 말고, 남을 참견하지 말고, 주변의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남의 탓을 하지 말고, '남이 이렇게 해서 이렇다.' 이러지 마세요. 남의 탓이 절대 없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놨을 때,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놨을 때는 그것은 스스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스스로 돌아갑니다. 완화되고 그것이 아주 스무드하게 돌아가는데, 말로 이게 틀리다 저게 틀리다, 이 사람이 틀리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이런다면은 공부하는 거는 틀려 버렸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만 벌어져 가지고 싸움만 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부하는 데 심중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러한 관습적인 습을 몽땅 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남 탓 안 한다. 남을 원망 안 한다. 남을 증오 안 한다. 남의 말에 끄달려서 돌아가지 않는다. 남을 참견 안 한다. 모든 것은 안으로 굴린다. 참견을 안 하되 참견을 할 수 있는 거는, 내 앞에 닥친 참견은 해야지요. 이 도량에서도 만약에 뭐가 잘못 돌아간다 이럴 때는 자기 생각에, 주인공에 맡겨 놓고 돌아가게 해야지, 이걸 말로 발설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이런다면 일이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바깥으로 더 커지죠. 이런 건 다 놔 버리고 자기한테만 오로지, 자기 주인공한테만 맡겨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리를 들었고,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걸 봤고,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눈에 거슬린 거지 내가 없이 어떻게 거슬립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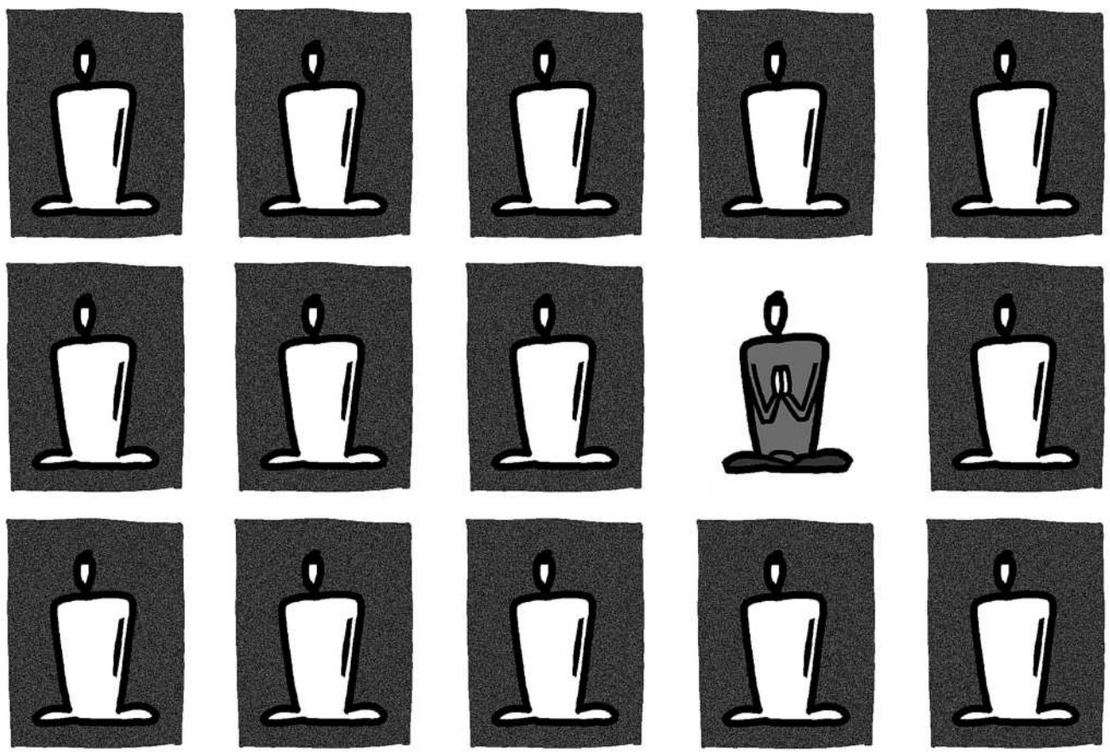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런 거를 놓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끝없는 옛적부터 우리가 가지고 살아온 습을 녹일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항복을 받을 수 있으며, 또 항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항복을 받고 내가 항복을 하는 건데, 항복을 받는 사람도 나요 항복을 하는 사람도 나다 이겁니다. 육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삼십이상(三十二相)이 구족(具足)하다.' 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대로 산 부처다 하는 겁니다. 산 보살이다, 산 법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게 정법이다 사법이다 하기 이전에 그걸 다 놔 버리고, 못났든 잘났든 문이 아니든 문이든 한번 엎드러져 보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큰 경험이며 보배를 크게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 남의 말로 '팔만대장경에 이렇게 해 놨으니까 요렇게만 가야겠다.' 이건 모두가 착이에요.

예전엔 그렇게 등대가 있고 등잔이 있고, 기름이 있고 심지가 있고 성냥이 있고 손이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손도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손이 들어지는 거지 그게 억지로 들어지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책을 본다 하는 것도, '글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마음을 담습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글자를 쓸 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쓴 거지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글을 썼겠습니까? 그래서 글을 보지 말고 그 글 속의 백지의 마음을 봐라 이겁니다. 글씨가 나를 보고 내가 글씨를 보지 말라 이겁니다. 그 글씨 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글씨 써 놓은 대로 이름을 가지고 상징하지 말고 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운문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어느 날 대중을 모아 놓고 "이 세상의 모든 게 왈가왈부하는데…", 다시 말하면 '광활한데' 하는 소립니다. 그러니깐 복잡다단하다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종이 울리니 어째서 너희들은 칠조 가사를 입느냐고 하셨답니다. 종소리를 듣고 어째 칠조 가사를 입느냐는, 뭣 때문에 그 칠조 가사를 입느냐 이런 말이죠. 거기에는 참 심중 깊은 의미가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대중들은 제각기 달리 들은 겁니다. 똑같이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심중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한마디 간단하게 하셨건만, 그건 말씀이 아닌 말씀이겠지요?

가사에는 칠조 가사, 구조 가사, 오조 가사가 있는데, 최초로 가사를 두를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한 폭이면 한 폭, 두 폭이면 두 폭, 한 오락지면 한 오락지 이렇게 시주를 한 거니까, 오조는 조그만 오락지들 모아서 한 거고, 칠 폭을 얻으면 칠조로 하고 또 구 폭을 얻으면 구조로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중 깊이 들었겠죠. 우리가 그 뜻을 한번 음미해 본다면 대답을 가벼이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때에 따라서 내 생각의 범위 내에서 내 생각만 하고 남 생각은 안 하고, 남의 속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면서 내 생각대로 말을 해 버리고 맙니다. 또 내 생각의 차원에 따라서 옳다고 주장하고, 또 내가 아니면은 이런 건 못한다고 하는 자만심, 이런 것 때문에 그르치는 겁니다, 모든 게. 그런데 벌레 하나도 허투루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보시와 적선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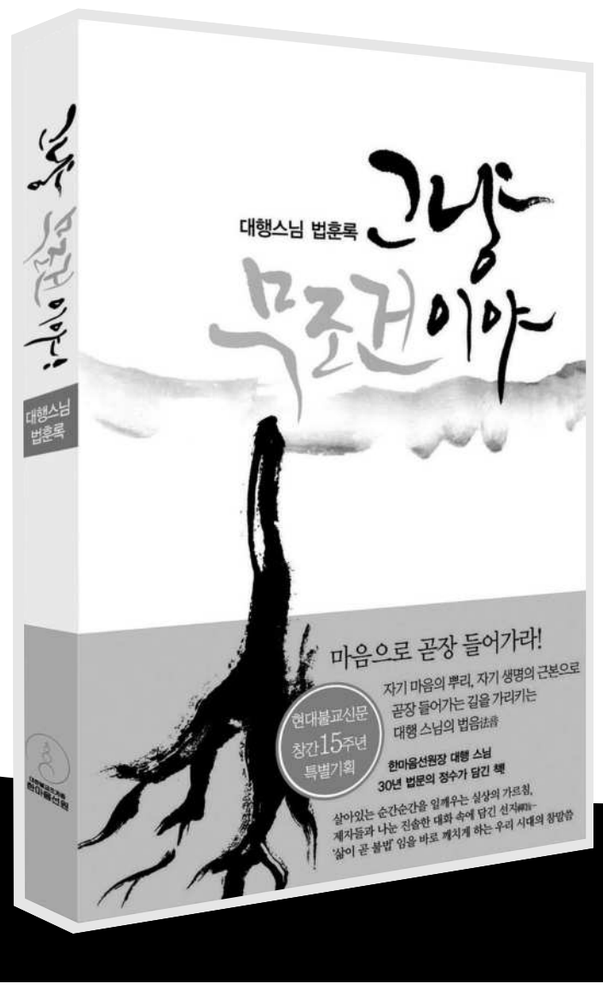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질문 제가 아는 분이 인도에 가서 거지에게 돈을 주니까 인도의 거지가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면서 다시 또 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돈을 줬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느냐 하니까, 그 거지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공덕 베푸는데 왜 내가 고맙다고 하느냐. 당신 복 지으라고 그러는데 뭣이 나쁘냐." 하고 오히려 반문을 하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절에 '오늘 얼마 갖다 줘야지.' 하고 '어디 어디서 왔는데 오늘 요거만 냅니다.' 하고 돈을 내고 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보시의 과보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줬으면 준 대로 그냥 받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닌 받는 것이지마는,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갈 때에 돈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 아, 내가 돈 준 거 생색내겠습니까? 그와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또 달라는 건 뭡니까? 굳이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은 공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만한 것 하나를 시주를 한다 하더라도 내 주인공에, 이게 주인공과 더불어 일체제불의 마음이 한마음이기 때문에, 나와 더불어 같이 한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다 할 때 내가 했다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갖다 내는 거지 스님네들을 위해서 갖다 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생각들 해 보세요, 스님들을 위해서 갖다 주는 게 있던가 없던가?

그러나 이 스님네들이 잘못 생각하고 '나는 스님이니깐 날 갖다 줬겠지.' 한다면 이거 오산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쓰레기를 치워 달라고 갖다 주는데 내 이 고깃덩어리가 치울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체제불의 한마음, 즉 불바퀴에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천당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곧 이 자리에 있다!

☞ 29면에서 계속

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사이도 없고 준 사이도 없이 보시를 하고, 누구한테 무엇을 건네주더라도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공덕입니다.

칠식과 팔식, 여래장에 대해서

질문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과 같은 논장을 보면은 아뢰야식(阿賴耶識)이다, 장식(藏識)이다, 여래장(如來藏)이다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소위 팔식(八識)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할 때의 그 마음과 칠식이다 팔식이다 하는 그 식(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그거를 여러 마디로 할 것 없이 아주 축소해서 말을 하죠. 칠식(七識)이다 하는 것은 우리네 육근(六根)이 공(空)해서 돌아가는 거를 하나로 묶어서 한마음이 된다면 그것이 칠식입니다. 그리고 한층 더 나아가서 내 몸을 떠나서 더불어 같이 이 세상 사무 사유를 한데 합쳐서 한마음이 된다면 팔식(八識)입니다. 좁게 따진다면 칠식이요, 넓게 전부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한데 합친다면은 팔식에 속합니다. 칠식이래도 하나요 팔식이래도 하나입니다. 팔식 하면 벌써 칠식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팔식 하면 팔(八)이라는 건 없어지고 식(識)만 남아서 그건 구경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래장이 되는 거죠. 여래라는 것은 일체 만물만생이 다 송두리째 둘이 아닌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없고 너도 없어지는 겁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그렇기 때문에 모두 부처 자리 아닌 자체가 없고, 부처님의 작용 아닌 게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그 자리가 되기 때문에 여래장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질문 친구의 권유로 뇌사 상태에서 죽음 너머의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온 하버드 신경외과 의사의 실제 기록인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뇌가 기쁨도 슬픔도, 삶도 죽음도, 전생과 깨달음마저도 주재한다고, 과학 학술지에 150여 편이 넘게 논문을 게재했던 최고의 인텔리가 천국을 경험한 책을 보면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생활 속에 얽매여 살아가다 보니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어지지도 실감이 나지도 않습니다. 진짜로 있기는 있는 것인지요?

답변 천당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곧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인데 한마디 더 하자면 독사같이 살면 독사의 무명을 쓰고 나오죠. 지옥이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의 생각과, 속으로는 사람으로 살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죽으로는 말의 모습을 가졌을 때, 소의 모습을 가졌을 때, 개구리의 모습을 가졌을 때, 독사의 모습을 가졌을 때, 벌레의 모습을 가졌을 때, 가지각색의 모습을 가졌을 때에 그 답답함이란 어떻겠습니까? 달리 지옥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 영가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탄생을 하기도 한다 이겁니다. 자기가 지은 대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런 말 하는 거를 무시하지 마세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령들의 의식은 첫째, 살아서 의식을 가졌을 때에 '나'가 항상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나라고 했기 때문에 죽었어도 항상 나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 데는 자기 몸속의 의식들이 전부, 이 수십억 마리가 그냥 깔려 있으니 한 발자국을 떼어 놓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악업 선업의 그 업식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는 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강을 사이에 놓고 건너가지 못해요, 빠져 죽을까 봐. 그러니까 물가를 뺑뺑 돌면서 오백 년을 돌아도 배가 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불바퀴를 넘어서야 될 텐데 뜨거워서 타 죽을까 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또한 '나'라는 걸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하나만 알면 나라는 게 공해 버려서 무조건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있을까.' 하고 모든 걸 팽개치게 될 텐데, 그거를 놓지 못해서 항상 그 업식에 밟혀서 못 나오고, 자기 의식대로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못 나오고 불에 타 죽을까 봐 못 가고 이래서 자기의 갈 길을, 궤도를 넘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그렇게 넘기보다는 살아서 깨달아야 그게 열반입니다. 살아서 깨달음이 열반이지 죽어서 혼백이 가는 것이 열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열반이란 말도 할 게 없죠. 살아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깨닫습니까? 죽으면 살았을 때 그 업식이 그대로인데. 그래서 살아생전에 이 도리를 알아야 우리가 그 발자취를 걸머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 놓고 하나 떼어 놓고, 또 하나 놓고 또 하나 떼어 놓고, 하나 놓고 하나 놓고, 이렇게 걸음을 걷지 않습니까? 일체 만법이 다 우리가 걸음 걷듯이 그렇게 놓고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항상 얘기해 드리죠, 그렇게 놓고 간다고. 자연스럽게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자연스럽게 남편 노릇을 하고, 자연스럽게 형님 노릇을 하고, 아들 노릇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간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니 어떤 노릇을 할 때에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는 게 공한 도리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할 땐 실감이 안 납니다. 자기가 진짜로 지옥고에 들어서 봐야 '정말이지 이거는 이렇게 할 게 아니로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열 아들을 두었는데 이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얼마나 청개구리 짓을 하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기를 "나 죽으면 산에다 묻어 다오." 그랬거든요. 그러면 물가로 갈 줄 알고. 그랬는데 돌아가시니까 아이, 살아생전에 영 말을 안 들었으니까 죽어서나 말을 듣겠다고 아, 산으로 올라가지 뭡니까? 그런데 막내아들한테는 "나를 죽으면 물에다 넣어 다오. 관을 물에다 넣어 다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산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깐 막내아들이 밤중에 몰래 지게를 대어 놓고는 관을 져다가 강물에 갖다 넣는데 그냥 쩍 벌어지면서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고 뭐,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모조리 죽고 막내아들만 남았는데, 아버지는 죽어서 저승 천자가 되시고요, 아들들은 죽어서 소가 됐어요. 소가 되어서 전부 외양간에 매여 있는데 막내아들이 꿈을 꾸니까 환경이 그렇게 돼 있더란 말입니다. 꿈에 "음매" 하면서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그러니깐 아버지가 있다 하는 소리가 "저거는 너의 큰형이다. 저거는 너의 작은형이다.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남을 해코지를 하고 그랬으니 소가 돼서 남의 일을 봐 줘야 되고, 언짢은 일 한 거를 다 저걸로 갚아야 하느니라." 하더랍니다. 그런데 소 무명을 쓰고 나왔으니 자기는 "음매 음매"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죠.

실제로 자기가 당해 보지 않으면 실감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허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한 철 날 동안에 열심히 내 탓으로 돌리고 남을 원망치 말고,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으로써 남에 원망 같은 거는 하지 않고 모든 일을 내 탓으로만 돌린다면은 그게 바로 내 마음 발견하는 데 지름길입니다. 모든 거 내 탓으로 돌리고 그 한 구멍에, 두 구멍도 아닙니다. 구멍 없는 구멍에다가 모든 거를 놓으면은 거기서 일체 만법이 나고, 일체 만법을 거기다 놓고….

이런 말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상생활 속에서 전체 살아나가는 게 여러분이 살지 딴 사람이 살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기를 못 믿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끌고 다니면서 모든 걸 그렇게 살아나가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길을 걸어가다 엎드러지면 땅을 짚고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기에게 잘못된 일도 자기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딴 데서 보태 주거나 뺏어 가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 오로지 자기 주인공한테만 맡겨 놓아야 합니다.
> 왜냐하면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리를 들었고,
>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걸 봤고,
>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눈에 거슬린 거지 내가 없이 어떻게 거슬립니까?

깨달으면 한 물건도 없는 것인지요?

질문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돈오점수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심쩍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 깨닫고 난 뒤에는 한 물건도 없다고 하는 그 의미와 깨닫고 난 뒤에는 보임을 잘해야 된다는 그 의미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깨닫고 나서 보임을 잘해야 한다는 것도 맞고, 깨닫고 나면 아무것도 건덕지도 없다 하는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성 부(父)와 자성 자(子)가 한데 합쳐지면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데 합쳐졌을 뿐이지, 즉 자기가 씨를 심어서 싹이 났을 뿐이지 자란 것은 아닙니다. 예? 자라려면 그만큼 수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 머리 깎은 사람들이나 머리 안 깎은 사람들이나 입산을 할 때는 '이 무명초를 다 끊어 버리겠습니다.' 하고선 다짐을 하고 끊어 버렸습니다, 아주 애당초에. 그랬는데 이게 형식적으로만 끊어 버렸지 수행해 나가는 데 진실하게 무명초 하나하나를 끊어 버린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을, 모든 것을 거기다 모아서 놓는 데에 이 무명초가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점수(漸修)다 하는 거는, 그런 수행을 하는 나를 발견했으면, 보림이라고 해도 좋고 보임이라고 해도 됩니다. 즉, 남의 탓을 하지 말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어떤 게 있어도 내 탓으로 돌리고 나로 밀어 넣고, 나한테 그냥 놓고 또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보임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다가 놓고 가야 합니다. 악이든지 선이든지 다 말입니다. 그래서 잘되는 거 감사하게 놓고, 안되는 거는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 하고 놓고, 이렇게 해서 둘 아닌 도리를 또 두 번째 깨달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 가서는 둘 아닌 도리를 탁 알았는데 나투는 도리를 몰라. 전깃줄과 전깃줄을 대어 주고 떼어 주고 대어주고 떼어 주고 하는 도리를 모른다면은 모두 일체 여래라고 할 수가 없다. 또 일체 중생이 나 아님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투는 데, 즉 아버지가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이렇게 나툴 줄을 모른다 이럴 때는 그 나투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세 번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깨달음이 있어서 만약에 나툼의 도리를 안다면 일체가 나 아님이 없이 모두가 난데, 자기가 자기 꺾는 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화해서 자꾸자꾸 돌아가는데, 어떤 거 됐을 때 내가 됐다고 하고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땐 점수(漸修)라고 해도 맞고, 그게 끝났을 때는 '아, 너도 나도 다 둘 아니게 돌아가는데 이거는 하나도 없다.' 하는 소리도 맞고, 둘이 다 맞으니까 둘이 다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절대적으로 이 도리를 물렁물렁하게 봐서는 아니 됩니다. 형상을 보고 무시하거나 그래서도 아니 됩니다. 이거는 형상을 배우는 게 아니라 형상과 정신과 둘 아니게 작용하는 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고도 없고 일체 만물만생이 생명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전력이 똑같듯 생명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거를 알려면 모두 하나도 버림이 없어야 되고 버림이 없어야 항복을 받고, 항복을 받아야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9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5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 (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 급 과 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

사찰 사용 모습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전동운반차 1회 충전으로 3~4일 운전 가능"

써스펜션 (강력한 추진력)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3. 저렴한 유지비!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5. 소음 걱정 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 근우테크㈜ KEUNWOO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7518-7854,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명품승복(가사전문)

※ 광고 홍보기간 동안 할인해드립니다.

명품 승복을 경영하고 있는 저는 깊은 사찰 기도터에서 4박 5일 기도중 큰스님께서 홍가사를 수하시고 제게 상을주는 현상을 선몽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승복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발명특허 3땀 가사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님들께 뛰어난 디자인과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가사를 드릴 수 있기에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박만복(활안수지상) 합장

반 수가사 (3땀 가사) 특징

❶ 일반 기계가사와 달리 반 수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콩(구슬)이 지나갈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❷ 일반 기계가사와 달리 모양이 전통 삼땀으로 가사를 지었습니다.
❸ 수가사 보다 가격이 월등히 저렴 하며, 고르게 삼땀이 되어 있어 디자인 모양으로도 뛰어 납니다.

명품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 (제일시장 내)

불자 세상보기

정신건강 회복 위한 마음챙김 기회



선업 스님
봄 행복치유센터 원장

4월은 초입에 '정신건강의 날' 이 있는 마음챙김의 달이다. '정신건강의 날' 은 1968년에 제정되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에서 4월 4일로 정한 이유는 숫자 4를 죽을 사(死)로 동일시하는 편견을 깨듯 정신병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깨기 위해서라고 한다.

잘 챙겨 보면 '정신 건강의 날' 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전국 단위로 진행중이다. 정신건강 특별전, 정신건강 강좌 그리고, 정신건강 박람회 등이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 기회에 자실예방과 스트레스 관리 등에 대한 강연도 듣고,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 정보도 제공 받고, 정신 가정 의학과 의사와의 무료 상담 서비스도 받으면 된다.

정말 챙겨야 할 정보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4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0~59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 · 발표한 '국민정신건강과 행복조사'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의 3분의 1은 우울, 불안, 분노 등 정서적 문제를 경험했으며 이들 가운데 28%는 우울증이, 21%는 불안장애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분노조절장애 대상자도 11%에 달했다는 점이다.

발표 중에서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정신건강상태' 라는 대목이 눈에 띄었다.

특히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우울증, 분노 조절장애 그리고 스트레스를 들고 있다는 점과 조사 내용을 발표한 학회 이사장이 언급한 "정신건강의 문제가 국민 행복과 직결된다" 는 부분은 공감 포인트였다.

이에 국민행복의 지수를 떨어뜨리는 우울증과 분노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보니 상후하박(上厚下薄 · 직급이 높을수록 연봉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이 현재 진행형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매체마다 '임원-직원 연봉차 최고 143배, 하늘과 땅 차이' 라는 등의 자극적인 문구로 '차이' 를 강조하다보니 경제에 민감한 이들의 감정은 강한 눌림 즉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사마나만디까경〉에서 '붓다' 는 이처럼 상대적 박탈감을 포함하여 인지적으로 문제가 생긴 상태를 '올바르지 않은 사유' 로 명명하고 각각 감각적 욕망의 사유, 성냄(화냄)의 사유, 해코지(폭력)의 사유 등을 그 요소로 보고 있다. 고통 상황을, 자신의 바람을 잣대로 그에 미치지 못하면 화를 내고 목표 미달성의 원인을 본인에게로 돌려 스스로를 경멸하는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타인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비난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더욱 상처를 받는 과정으로 절묘하게 해석하고 있다.

그럼 정신 건강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해답으로 '붓다' 는 올바른 사유를 통한 '의도 바꾸기' 를 제시하고 있다. 〈대념처경〉에 의하면 감각적 욕망, 성냄 그리고 해코지를 여읜 사고인 '정사유' 가 회복의 열쇠이다. 마음밭에 좋지 않은 의도가 있으면 날려 보내고 그 대신 자애와 연민 그리고 수희와 평정의 꽃을 심어 가꾸는 노력을 하라는 것이다.

'사섭법' 은 이런 노력의 결정체이다. '의도' 가 바뀌면 '박탈' 이 '지족' 이 되어 함께 나누는 것이 보다 더 행복하다는 보시의 마음이 의식에 자리 잡게 되고 그 영향으로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나와 다름없이 상대를 대하는 과정에서 어울림의 가치를 발견하여 더불어 사는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바뀐 의도로 키운 발달된 사회성은 자비희사로 함께하는 동사섭을 통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제공하고 그 역량은 결국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다.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마음챙김의 달을 맞아 정신 건강의 척도가 되는 마음가짐을 재정비하고 바른 어울림을 실천해 보자. 이것이야말로 바로 정신 건강 포교사이자 마음챙김 치유사인 불자들이 해야 할 대사회적 역할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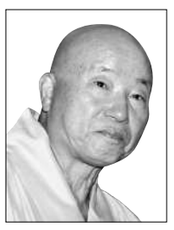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간화선 무차대회에 바란다

오는 5월 16일, 불교계는 범종교적 행사로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세계 고승들을 비롯해 총 20여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불교 사상 초유의 대규모 대회다. 이에 성공개최에 대한 불교각계의 바람을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간화선 참된 의미 알리는 평등 법회 되길



법산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무차대회는 차별이 없는 법회를 말한다. 즉 성별, 귀천, 상하 등의 구분 없이 재시와 법시를 펴는 법회를 일컫는다. 계급의 차이, 사회적 차별이 있었던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설법은 무차법회라 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 얻으시고 "인과법 연기법에 비추어 어떤 생명이라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업에 대한 대가는 있을 수 있지만 차별은 있을 수 없다"며 평등을 외치고 사회평화를 말씀하셨다. 그러니 '무차' 라는 단어는 불법을 통해 반야의 지혜를 증득하고, 모든 생명은 행복의 권한이 있음을 의미한다.

간화선에서 무차법회는 중국 당나라 시대 육조 혜능대사의 제자인 화택화상이 처음으로 열었다. 육조혜능의 남종조계선이 가장 훌륭하고 가장 정통한 선이라 선언한 것이다. 의견이 있는 누구나가 질문을 할 수 있는 형식이었다. 이는 육조 혜능대사의 사상을 널리 알리는데 한몫을 했고 부처님-가섭존자-달마대사-육조혜능으로 이어지는 법맥의 정통성을 선언하는 계기가 되었다.

선(禪)은 차별이 없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참된 이치를 깨닫는 것을 말한다. 마음의 걸림이 있으면 안 된다. 금강경에 '불취어상 여여부동(不取於相 如如不動)' 이라는 말이 있다. 상의 모순에 집착하지 않아야 여여부동하게 된다는 의미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읽고 맑고 밝은 반야의 지혜를 체득한다는 것이 선의 요지다. 이를 위해서는 참나를 증득해야 하는데 화두를 들고 수행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번뇌망상을 떨쳐버려야 한다.

5월 15일~18일 서울 조계사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및 간화선 무차대회' 는 한국의 큰스님과 세계 각국 종교 지도자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간화선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우고, 모두에게 평등한 부처님의 법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민 모두가 한데 어울리는 한마당으로



남전 스님
조계종 기획국장

그동안 우리 불교계는 세계 인류에게 행복과 평화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노력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는 갈등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는 한국전쟁의 아픔과 이어진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다양한 갈등이 있다. 남과 북의 갈등, 그리고 점점 사회문제가 되어가는 세대와 이념대립을 우리 불자들 모두가 공존과 상생, 화합과 평등의 가르침을 전하는 연등회와 무차대회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이번 기원대회는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인 간화선을 통해 세계인류에게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더욱 눈길을 끈다. 간화선은 출가, 재가를 막론하고 누구나 일상의 수행으로 궁극의 행복을 얻는 수행법이다. 흔히 불교는 어렵다고들 여기지만 간화선을 통해 불교가 생활 속의 종교이며, 삶의 철학이란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번 간화선 무차대회에서는 특히 최고의 수행력을 갖춘 300여 해외고승들이 나서 시민들과 불자들을 지도 할 예정이다. 각기 다른 종파의 스님들이지만 궁극적으로 불교가 추구하는 큰 가르침에서는 같기에 흔쾌히 참여를 결정했다. 이들의 지도 하에 2천여 스님들, 그리고 2천만 불자와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칠 것이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이자 전통의 멋과 흥이 넘치는 축제인 '연등회' 도 더욱 성대하게 열린다. 이미 연등회는 불교적 의미를 넘어 온 국민 공동체의 문화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올 연등회는 예년과 달리 광화문에서 끝을 맺는 만큼 역대 최대 인원이 참석하리라 예상된다. 연등회의 의미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모두가 연결된 큰 세상' 이다. 함께 연등을 들고 거리를 걸으며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돌아보고, 국가발전과 개개인의 건강을 기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社說

불교 NGO에 불자들의 관심을

불교계 대표 이주민 지원 협의체인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이하 마주협)가 존폐 위기에 처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다. 마주협은 4월 7일 2015년 정기총회를 열고 운영계획 등을 논의한 데 이어 10일 조계종 총무원 측과의 협의에 들어갔다. 올해 마주협은 조계종이 그동안 지원해 온 사무국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며 존립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현재 마주협의 운영 인력은 1명만이 남은 상황이다. 조계종 예산이 삭감되자 바로 운영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이 같은 운영난은 마주협만의 문제가 아니다. 불교계 NGO가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물론 사회적으로도 NGO가 가지는 파급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태생부터 뿌리가 튼튼하지 못했던 불교계 NGO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

지난 4월 4일 7기 집행부가 발족한 참여불교재가연대의 경우 한때 1600여명의 회원이 270명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운영비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단기부채가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난으로 사무실 일부를 매각했으며, 신임 집행부는 취임해서 부채해결을 위해 대표단서 일정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한때 들불같이 타올랐던 불교계 NGO운동은 일부 스님들의 원력에 의해 움직였고, 스님이 떠나고 나면 그 순간 동력이 상실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는 독립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내부 구조 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에도 실패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또한 다른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문제에 무관심한 불자들의 의식도 불교계 NGO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불교계 NGO가 위축되면 그동안 불교계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받아 온 사회적 역할 수행이 더욱 줄어들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불교가 세속을 떠나있다는 불자들의 인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불자 전반의 발상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포교에 SNS 적극 활용하자

청년 불자들의 신행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사찰 정기법회나 행사에 참석해 법문 듣고 기도하는 일반적 방식서 벗어나 서로 뜻 맞는 도반끼리 모여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그들만의 신행생활을 한다. 이 모임들은 불교에 관심은 많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불교에 관심과 호감만 있던 상황에서 공감대를 갖고 밴드 모임을 통해 기도 하고 서로 점검하니 도반으로서 의지도 되고 힘이 난다고 참여자들은 입을 모은다.

또한 청년 불자들은 SNS를 통해 수행 일지를 올려 108배를 하면서 느낀 점과 삶에서 변화된 점도 공유한다. 평소 불교 · 명상에 관심이 있었지만, 어떻게 수행할지 몰랐던 초심자들에게는 간편한 소셜네트워킹 모임을 통해 매일 삶을 바로 잡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

그동안은 혼자서 일지를 쓰며 수행했지만 이제는 마음 맞는 친구들과 그룹채팅으로 점검하고 격려하다보니 공동체 의식도 생기고 기도에 소홀하지 않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청년 불자들은 SNS를 통해 스님 법문도 듣고, 수련회와 성지순례 등 다양한 행사 정보도 갖는다. 봉사단체도 만들어 좀 더 체계적으로 청년회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밴드도 있다. 공동 관심사인 불교를 주제로 그룹채팅방서 이야기 나누고 친목을 다지니 소속감도 생기고 불자라는 자부심도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

전반적으로 불자수가 감소하는 상황서 SNS는 포교에 활기를 불어넣는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해 보자. 청년들이 자주 애용하는 SNS를 포교 매체로 활용한다면 청년 포교에 새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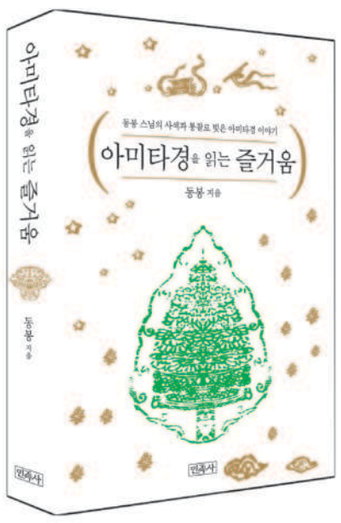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동봉 스님의 사색과 통찰로 빚은
아미타경을 읽는 즐거움



동봉 스님의 특별한 체험, 수행 이야기가 녹아 있는
수필처럼 아름다운 아미타경 해설서

동봉 지음 신국판 580쪽 23,000원

봄꽃이 화사하게 피어 마음을 들뜨게 하는 봄날, 출판계는 예쁜 봄꽃, 따사로운 봄햇살과는 거꾸로 움츠러들고 서늘한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봉 스님의 〈아미타경을 읽는 즐거움〉이 출간되자마자 독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까닭은 무엇일까? 오마이뉴스 임윤수 기자의 서평 첫머리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스님 어떤 분이지? (중략) 역사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생물학자? 한학자? 천문학자? 영화평론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솝' 하면 '우화'를 떠올린다 해도 과언을 아닐 겁니다. 이솝우화만 재미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읽을 수 있습니다. 종교 코드로만 썼다면 종교서적이 갖는 무형의 무게는 묵직했을지 모르지만 딱딱하고 지루했을 겁니다.

어떤 분인지, 뭐하는 분인지가 점점 궁금해질 만큼 다양한 이야기들로 풀어낸 내용이라서 그런지 맛있는 걸 기대하다 보면 어느새 입에 침이 고이듯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이 점점 궁금해지고 흥미로워지는 내용들입니다."

〈마음을 비우게 자네가 부처야〉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MBC 스페셜 '동봉, 킬리만자로에 가다'를 통해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고,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들을 구호하면서 한국불교를 전하는 모습으로 일반인들에게도 친근한 동봉 스님의 57번째 저서.

임기자의 말처럼 이 책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천문학, 한학, 역사, 영화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아미타경의 세계를 흥미진진하게 해설해 놓았다. 게다가 100일 동안 스마트폰으로 이 책을 집필하여 날마다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에 연재, 짧은 아미타경이 580쪽이라는 방대한 분량으로 재탄생한 것도 경이롭다. 스님의 사통오달의 식견과 필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편편마다 행간 행간마다 동봉 스님 특유의 유려한 필치가 더해져 수필처럼 쉽고 편안하게 다가온다. 그야말로 경전을 읽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게다가 스님의 삶과 수행 이야기가 담겨 있어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아미타경의 현대적 의미를 통해 무릎을 치며 가슴으로 읽히는 묘미가 있다. 특히 동봉 스님이 아프리카에서 활동한 특별한 체험이 생생하게 녹아 있어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아프리카 체험으로 환골탈태한 동봉 스님,
아미타경은 21세기 지구인의 공통 화두인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 경전,
그 과학적 근거를 이 책에 담아 놓다

"2,600여 년이나 지난 '죽은 부처님'을 잘못 모시는 일보다, 보이지 않는 곧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음보다도 더 큰 죄악은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을 함부로 대하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좋습니다. 2,600여 년 전 부처님의 자비도 좋지요. 하지만 우리 환경은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제쳐두고 마음만으로 하는 사랑과 논리만으로 부르짖는 자비는 결코 정직한 사랑과 자비가 아닙니다." - 133쪽



환경 파괴가 스스럼없이 자행되는 오늘날 환경문제는 21세기 지구인의 공통 화두이다. "20세기 환경의 바이블로 알려진 레이첼 카슨Rachel L. Carson의 명저《침묵의 봄Silent Spring》에서 언급했듯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환경을 함부로 파괴하는 일"이라고 역설하는 스님은 이 책에서 환경문제를 매우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2009년 미국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3D영화로 만들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영화〈아바타Avatar〉의 판도라와 극락세계를 연계시켜 설명한다.

"나는 우리 법사와 함께 아바타를 보면서 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그토록 아름다운 숲을 일거에 베어내는 인간군상人間群像의 욕망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일 극락세계도 인간이 발을 딛으면서 곧바로 사바세계로 전락시키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앞서는 것은 어쩌면 나만의 기우일까요? 제발 기우였으면 싶습니다." - 140쪽

스님은 아미타경이야말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 경전임을 강조하면서 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점 또한 다른 아미타경 해설서에서는 만날 수 없는 내용이다.

과학과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아미타경 본격 해설서

"부처님의 말씀에서는 이를 인연因緣이라 표현하고 있지요. 2개의 업쿼크와 1개의 다운쿼크가 인이라면 그들의 작용을 돕는 힘이 연이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인이라면 그 두 가지가 결합하게 하는 힘이 연이며 양성자와 중성자의 결합인 핵과 그 핵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자가 인이라고 했을 때 핵과 전자를 묶어 주는 힘이 연입니다. 원자와 원자가 인이라면 원자와 원자를 연결하는 힘은 연이며 원자와 분자, 분자와 분자, 분자와 물질, 물질과 물체, 물체와 물체가 각각 인이라면 그들 개체와 개체를 낱낱이 연결하는 힘은 연입니다." - 본문 486쪽 중에서

우리나라 불교사에서 불자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의지처가 되었던 신앙은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한 정토신앙이다. 정토삼부경 중 분량은 가장 적지만 정토신앙의 핵심요체를 담고 있어 수행의 가교이고 정토로 나아가는 안내서인 아미타경은 불자들 사이에 가장 많이 유포되어 독송되어온 경전이기도 하다.

이 책 〈아미타경을 읽는 즐거움〉은 행간 행간마다 동봉 스님의 사색과 통찰이 빛나는 아미타경의 본격 해설서다.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폭넓은 과학과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집필, 정토 신앙을 가진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흥미진진하게 읽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독송하기 쉬운《사언절불설아미타경》, 정토신앙으로 이끄는 쉬어가기

이 책은 단순한 아미타경 해설서가 아니다. 이 책까지 57권의 책을 펴낸 동봉 스님의 사상과 안목이 총체적으로 녹아 있는 책이다. 또한 중간 중간 정토신앙으로 이끄는 미타인행사십팔원, 장엄염불, 왕생게, 아미타불십대인상, 정토다라니 등을 수록하였으며, 부록으로《사언절불설아미타경》전문을 실어 독송하기 쉽게 편집해 놓았다. 아마도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 책을 뛰어넘는 아미타경 해설서는 나오기 힘들 것이다.



동봉 스님

한국불교인으로서 최초로 아프리카에 〈학교법인 보리가람스쿨〉을 설립하였고, 탄자니아 수도 다레살람에 매입한 학교 부지 35에이커와 킬리만자로 산기슭에 개척한 부처님의 도량 사찰부지 2.5에이커를 학교법인과 함께 조계종단 산하 '아름다운 동행'에 기증하였다. 현재 조계종단에서 〈보리가람농업기술고등학교〉를 건립 중이며, 곤지암의 우리절 주지로 글과 법문, 페이스북 등 SNS로도 법을 전하고 있다. 저서 및 역서로《평상심이 도라 이르지 말라》,《밀린다왕문경》,《일원곡》14책 외 다수가 있다.

동봉 스님 BTN(불교텔레비전) 특강

아미타경을 읽는 즐거움
-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60분간) 4월 2일 첫 강의~
- 장소: 불교 TV 남부순환로 2265 (방배동1027-4)
- 전화: 02-3270-3355

동봉 스님 저자 강연 사인회
- 일시: 2015년 4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 장소: 부산 영광도서
- 전화: 051-816-9500

민족사에서 펴낸 경전을 읽는 즐거움 시리즈

숫타니파타를 읽는 즐거움
- 보경 지음/ 변형신국판 376쪽/ 값 15,000원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 일진 지음/ 변형신국판 312쪽/ 값 15,000원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
- 일감 지음/ 근간

